

# 인도네시아 개황

I N D O N E S I A 2013.9



## 인도네시아 국기



인도네시아 국기의 명칭은 Sang Merah Putih, 적백기라는 뜻으로, 용기를 상징하는 붉은색과 신성함을 상징하는 하부의 흰색으로 이루어져 있다.

13세기부터 힌두교의 여신 '비슈누'의 상징으로 전해져 오던 것을 수카르노(Sukarno) 초대 대통령이 1927년 자신이 창당한 국민당의 표상으로 사용했다.

네덜란드에 대항한 독립 투쟁 때 독립 인도네시아의 깃발로 쓰였다가 1945년 8월 독립 선포 시 인도네시아 국기로 정식 채택되었다.

## 인도네시아의 상징



'가루다'라는 독수리 모양의 새는 변영의 신의 상징이자 시공을 초월한 전설의 새로, 두 다리로 들고 있는 표어는 자바 고어로 '다양성 속의 통일'을 의미한다.

몸통 부분의 방패는 인도네시아 국토의 수호를 상징하며, 방패 안의 그림은 각각 인도네시아 5개 건국이념인 '판짜실라(Pancasila)'를 상징한다.

중앙의 별은 유일신에 대한 믿음을, 물소머리는 대의정치를, 보리수는 통일 인도네시아를, 비이삭과 목화는 사회정의, 사각형과 원모양 고리는 남성과 여성을 대표하며 인간의 존엄성을 상징한다.



# 인도네시아 전도



## 인도네시아의 주(PROVINSI) 이름 (\*Ibukota: 주도)

- Legenda**
- ☆ Ibukota Negara
  - ★ Ibukota Provinsi
  - Batas Provinsi
  - Batas Negara
- 0 500 Miles  
0 500 KM

- 1. Provinsi Nangroe Aceh Darussalam
- 2. Provinsi Sumatera Utara
- 3. Provinsi Sumatera Barat
- 4. Provinsi Riau
- 5. Provinsi Jambi
- 6. Provinsi Riau Kepulauan
- 7. Provinsi Bengkulu
- 8. Provinsi Sumatera Selatan
- 9. Provinsi Bangka Belitung
- 10. Provinsi Lampung
- 11. Provinsi DKI Jakarta

- 12. Provinsi Banten
- 13. Provinsi Jawa Barat
- 14. Provinsi Daerah Istimewa Yogyakarta
- 15. Provinsi Jawa Tengah
- 16. Provinsi Jawa Timur
- 17. Provinsi Kalimantan Barat
- 18. Provinsi Kalimantan Tengah
- 19. Provinsi Kalimantan Selatan
- 20. Provinsi Kalimantan Timur
- 21. Provinsi Sulawesi Utara
- 22. Provinsi Gorontalo

- Ibukota Serang
- Ibukota Bandung
- Ibukota Yogyakarta
- Ibukota Semarang
- Ibukota Surabaya
- Ibukota Pontianak
- Ibukota Palangkaraya
- Ibukota Banjarmasin
- Ibukota Samarinda
- Ibukota Manado
- Ibukota Gorontalo

- 23. Provinsi Sulawesi Tengah
- 24. Provinsi Sulawesi Barat
- 25. Provinsi Sulawesi Selatan
- 26. Provinsi Sulawesi Tenggara
- 27. Provinsi Bali
- 28. Provinsi Nusa Tenggara Barat
- 29. Provinsi Nusa Tenggara Timur
- 30. Provinsi Maluku
- 31. Provinsi Maluku Utara
- 32. Provinsi Papua Barat
- 33. Provinsi Papua
- 34. Provinsi Kalimantan Utara

- Ibukota Palu
- Ibukota Mamuju
- Ibukota Makassar
- Ibukota Kendari
- Ibukota Denpasar
- Ibukota Mataram
- Ibukota Kupang
- Ibukota Ternate
- Ibukota Ambon
- Ibukota Manokwari
- Ibukota Jayapura
- Ibukota Tawitawi

- 95° BT
- 100° BT
- 105° BT
- 110° BT
- 115° BT
- 120° BT
- 125° BT
- 130° BT
- 135° BT
- 140° BT

- 5° LU
- 0° LU
- 5° LU
- 10° LU

## 인도네시아 : 개관

### 1. 일반

국명	인도네시아 공화국 (Republic of Indonesia)
수도	자카르타 (인구 약 960만명, 면적 662km <sup>2</sup> )
면적	190만 km <sup>2</sup> (한반도의 약 9배)
기후	열대성 몬순기후, 고온다습 - 연평균기온: 25~28℃ (자카르타: 32~33℃) - 습도: 73~87% - 우기(11~2월), 건기(3~10월) ※ 2010년부터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건기가 줄어들고 우기와 건기의 구분이 모호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인구	약 2억 3,760만명(2010년 센서스)
종교	이슬람(87%), 기독교(7%), 카톨릭(3%), 힌두교(2%), 불교(0.5%), 유교(0.5%)
언어	인도네시아어(Bahasa Indonesia) ※ 자바어 등 지방어 포함 모두 600여종
국가표어	'다양성 속의 통일' (Bhinneka Tunggal Ika)

### 2. 정치

정부형태	공화국 (대통령 중심제)
국가원수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Susilo Bambang Yudhoyono) ※ 제6/7대 대통령(2004.10취임, 2009.10 재임)
의회	통상적인 입법권을 행사하는 국회(560명)와 지역대표협의회의(132명)의 이원적 구성(양원제와 유사) ※ 국회와 지역대표협의회의 의원으로 구성된 국민협의회(692명)가 총괄 기구로 기능
주요정당	민주당(PD), 골카르당(Golkar), 투쟁민주당(PDI-P), 복지정의당(PKS), 국민수권당(PAN), 통일개발당(PPP), 그린드리당(Gerindra), 국민계몽당(PKB), 하누라당(Hanura), 나스뎀당(Nasdem), 월성당(PBB), 정의통일당(PKPI)
독립일	1945년 8월 17일
UN가입일	1950년 9월 28일 (60번째 가입국)

### 3. 군사

총병력	38만명
국방예산	85억 달러 (2013)
병역제도	모병제

#### 4. 경제(2012년 기준)

국내 총생산(GDP)	9,282억 달러
1인당 국민소득	3,797 달러
경제성장률	6.2%
수 출	1,900억 달러
수 입	1,917억 달러
화 폐 단 위	루피아(Rp.)

※ 우리나라의 교역규모 (2012년 현재)

- 대인도네시아수출 : 139.5억 달러
- 대인도네시아수입 : 156.8억 달러
- 한국은 인도네시아의 제7위 교역국이며,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제8위 교역국임

※ 대인도네시아 투자규모 (2012년 현재)

- 대인도네시아 투자누계 : 106.5억 달러
- 2012년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투자는 19.5억 달러로 인도네시아는 미국, 중국, 홍콩, 베트남, 호주, 캐나다에 이어 우리나라의 제7위 투자대상국

#### 5. 기타

공 휴 일	- 신년 (1.1)
	- 마호메드 탄신일 (1.24) - 구정 (2.10) - 힌두 신년 (3.12) - 성금요일 (3.29) - 예수 승천일 (5.9) - 석가 탄신일 (5.25) - 마호메드 승천일 (6.6) - 이돌 피트리(Idul Fitri) (8.8~9) - 독립 기념일 (8.17) - 이돌 아다(Idul Adha) (10.15) - 이슬람 신년 (11.5) - 크리스마스 (12.25)
	★ 법정연휴 - 이돌 피트리 연휴 (8.5~7) - 이돌 아다 연휴 (10.14) - 크리스마스 연휴 (12.26)
	※ '이돌 피트리' 및 '이돌 아다' 는 이슬람 축일



## 연표로 본 인도네시아 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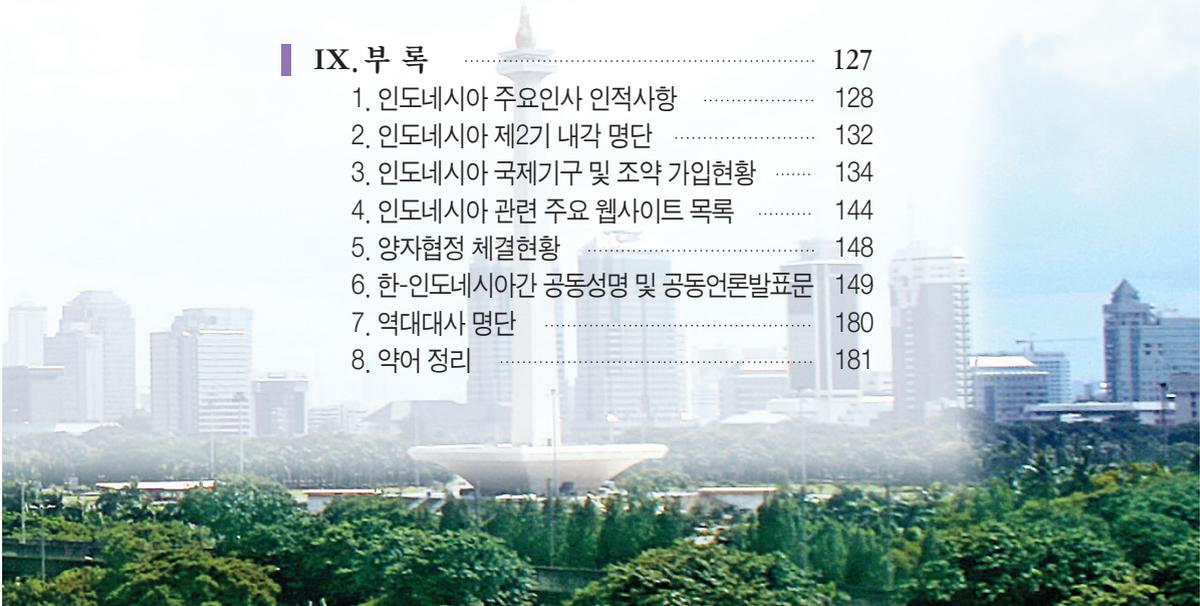
	358년	☞ 티루마너가라 왕국(힌두교 왕조) 자바 서부지역 지배
스리위자야 왕국(불교왕조) ☞ 수마트라, 자바, 말레이반도 지배	689년 1293년	☞ 마자파힛 왕국(힌두교 왕조) 인도네시아, 말레이반도, 필리핀
이슬람교 확산 ☞ 수마트라, 자바, 칼리만탄 해안 지역과 말라카, 반담, 마티람 등 수개의 이슬람왕국 설립	1400년	☞ 남부에 걸친 거대한 해상제국 형성
인도네시아 전역을 네덜란드 직할 식민지화	1602년 1824년	☞ 네덜란드 자바에 동인도 회사 설립 식민지 경영 시작
인도네시아 공화국 독립선언 및 수카르노(Sukarno) 초대대통령 선출, 4년간의 대 네덜란드 무력항쟁 시작	1942년 1945년	☞ 일본 점령
반동회의(아시아 · 아프리카회의)개최 ☞	1949년	☞ 인도네시아 연방공화국 수립
수카르노 대통령, 수하르토 장군 에게 실권이양	1950년 1955년 1965년	☞ 인도네시아 공화국 복귀, UN 가입 ☞ 인도네시아 공산당(PKI) 쿠테타 시도, 수하르토(Soeharto) 장군에 의해 진압(9.30사태)
동티모르 합병 ☞	1966년 1968년	☞ 수하르토 대통령 취임(제2대 대통령) 신질서(Orde Baru) 정권 출범
소요 · 폭동 사태로 수하르토 ☞ 대통령, 하비비(Habibie) 부통령에게 대통령직 이양(제3대 대통령)	1969년 1976년	☞ 이리안 자야 귀속
국민협의회(MPR) 특별회의에서 메가와티(Megawati) 대통령직 승계(제5대 대통령)	1998년 1999년	☞ 국민협의회(MPR) 선거에서 와히드(Wahid) 대통령(제4대 대통령) 메가와티(Megawati) 부통령 당선
유도요노 대통령 재선 ☞	2001년 2002년	☞ 동티모르 분리
	2004년	☞ 헌정사상 최초 국민 직접투표에 의한 대통령 선거 실시, 유도요노(Yudhoyono) 대통령 당선(제6대 대통령)
	2009년 2011년	☞ 유도요노 2기정권 개각 단행

# 목차 Contents

<b>I. 역 사</b> .....	11
1. 고대 및 식민시대 .....	12
2. 인도네시아 공화국 시대 .....	12
<b>II. 정 치</b> .....	19
1. 국가이념 .....	20
2. 행정부 .....	21
3. 입법부 .....	24
4. 사법부 .....	28
5. 주요정당 .....	28
6. 지방자치 제도 .....	33
7. 정치 정세 .....	36
<b>III. 외 교</b> .....	39
1. 외교정책 기조 .....	40
2. 외교방향과 주요시책 .....	41
3. 주요국 및 ASEAN 회원국과의 관계 .....	42
4. 수교국 및 재외공관 · 외국공관 현황 .....	48
<b>IV. 군 사</b> .....	51
1. 군사 조직 .....	52
2. 군사력 현황 .....	53
3. 인도네시아 군부와 민주주의 .....	54
4. 최근 군사동향 .....	54
<b>V. 경 제</b> .....	57
1. 분야별 동향 및 전망 .....	58
2. 인도네시아 경제관련 각종 통계자료 .....	63
3. 석유 및 천연가스 산업 .....	65
4. 산림자원 .....	66
5. ICT 산업 .....	67
6. 인프라 .....	69
7. 최근 경제동향 .....	72



<b>VI. 사회 · 문화 · 교육</b> .....	73
1. 국민성 .....	74
2. 문화 및 관습 .....	75
3. 언론 .....	76
4. 교육 .....	79
<b>VII. 우리나라와의 관계</b> .....	81
1. 기본관계 .....	82
2. 정무관계 .....	82
3. 경제 · 통상 관계 .....	84
4. 분야별 양자협력 .....	91
5. 문화 · 인적교류 .....	105
6. 영사 · 교민 관계 .....	113
<b>VIII. 북한과의 관계</b> .....	117
1. 기본 관계 .....	118
2. 외교사절 교환 .....	118
3. 통상 관계 .....	120
4. 협정 체결 현황 .....	121
5. 주요 인사교류 .....	122
<b>IX. 부 록</b> .....	127
1. 인도네시아 주요인사 인적사항 .....	128
2. 인도네시아 제2기 내각 명단 .....	132
3. 인도네시아 국제기구 및 조약 가입현황 .....	134
4. 인도네시아 관련 주요 웹사이트 목록 .....	144
5. 양자협정 체결현황 .....	148
6. 한-인도네시아간 공동성명 및 공동언론발표문 .....	149
7. 역대대사 명단 .....	180
8. 약어 정리 .....	181



인도네시아 개황 · I N D O N E S I A

# I 역사



〈자바섬 보로부두르〉

1. 고대 및 식민시대
2. 인도네시아 공화국 시대



## 1. 고대 및 식민 시대

- 644년에 힌두교 왕조인 말라유 왕국이 수마트라 남부지역에 수립되었으며, 689년에 불교 왕조인 스리위자야(Sriwijaya) 왕국이 수마트라·자바·말레이 반도를 지배
- 1292년에 다시 힌두교 왕조인 마자파히트(Majapahit) 왕국이 현재의 숲인도네시아 영토 이외에 말레이 반도와 필리핀 남부에 걸친 거대한 해상제국을 형성
- 15세기에 이슬람교가 전파됨에 따라, 수마트라·자바·칼리만탄 해안지역에 말라카·반담·마타람 등 수개의 이슬람왕국이 성립
- 1602년에 네덜란드의 동인도 회사가 설립되어 식민지 경영이 시작되었으며, 1824년에 숲인도네시아가 네덜란드의 직할 식민지화
- 1942년 일본은 전쟁수행에 필요한 자원수탈의 목적으로 인도네시아를 점령
  - 350년에 이르는 네덜란드의 식민지 지배보다도 일본에 의한 3년 6개월간의 점령통치가 더 가혹했다는 평가가 일반적.

## 2. 인도네시아 공화국 시대

### (1) 의회 민주주의 시대(1950~1959)

- 일본패전 직후인 1945년 8월 17일 인도네시아 공화국 독립 선언과 함께 헌법을 채택하였으며, 식민지 지배의 부활을 꿈꾸는 네덜란드와 4년간의 독립전쟁을 벌임

- 1949년 12월 인도네시아 연방공화국이 수립되어 국가주권을 회복하긴 했지만, 연방공화국은 자바인을 중심으로 하는 인도네시아 공화국과 네덜란드가 만든 각지의 괴뢰국가로 형성되었다는 점에서 한계.
  - 연방의 일원이었던 인도네시아 공화국은 괴뢰국가를 편입하는 운동을 전개하여 1950년 8월 연방을 해산하고 현재의 인도네시아 전지역을 아우르는 중앙집권국가 인도네시아 공화국을 건설
- 1950년 인도네시아는 헌법개정을 통해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새로운 국가건설에 착수함. 그러나 정당간 대립심화, 중앙과 지방간의 갈등, 공산당을 중심으로 한 좌파세력과 국군을 중심으로 한 우파세력의 정치적 대결로 인해 정치는 혼란을 거듭함.
- 한편, 미소냉전체제하에서 독립을 달성한 인도네시아는 동서 어느 진영에도 가담하지 않는 비동맹·중립의 외교노선을 견지.
  - 1955년 4월에는 수카르노 대통령이 중심이 되어 자바 서부의 도시 반동에서 아시아·아프리카회의(반동회의)를 개최함

## (2) 수카르노 시대(1959-1965)

- 1959년 수카르노는 서구식 의회 민주주의제도가 인도네시아에 적합하지 않음을 호소하고 1950년 헌법을 폐기한 뒤, 대통령인 자신에게 권력을 집중시킨 교도민주주의(guided democracy)체제를 수립하고 종신대통령이 됨
  - 수카르노는 민족주의, 종교, 공산주의 등 3파 세력과 인도네시아 군부를 포함한 4개 정치세력의 균형에 기초한 NASAKOM체제를 구축함.
  - ※ NASAKOM이란 민족주의(nasionalisme), 종교(agama), 공산주의(komunisme)의 첫글자를 따 조어
- 한편 교도민주주의체제하의 수카르노는 이리안(Irian) 해방투쟁, 말레이시아 대결정책 등을 통해 외부의 적을 만들고 대외적 위기를 조성함으로써 국내의 정치적 혼란을 수습하고 인도네시아의 통일을 유지하려 함.



- 1963년 1월 수카르노 대통령은 말레이시아 연방형성을 영국의 신식민주의로 규정하고 말레이시아 연방에 대한 대결정책을 선언, 말레이시아와 국교를 단절함.
  - 1964년 말레이시아가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에 선출되자 1965년 유엔을 탈퇴, 중국, 북한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등 국제적 고립을 심화

### ※ 말레이시아 대결정책

발단은 1961년 5월 말라야 연방 수상에 의한 말라야 연방, 싱가포르, 북보르네오의 사바, 사라왁으로 구성되는 말레이시아 연방 구상 발표.

수카르노 대통령은 구영국식민지의 통합에 의한 말레이시아 결성을 신식민주의 및 제국주의 세력인 영국의 음모라고 비난, 보르네오 북부지역인 사바와 사라왁이 식민지화되기 이전에는 인도네시아의 영토였음을 강조하며 말레이시아 연방에 대한 대결정책을 선언. 이후 인도네시아가 사바와 사라왁 그리고 말레이 반도에 군부대를 침투시키자, 영국이 말레이시아에 군대를 파견하는 등 군사적 긴장이 고조됨. 한편 미국과 IMF로부터의 경제원조가 중단되자, 급격한 물가상승과 식량부족으로 인도네시아의 국내경제는 심각한 위기에 처함. 이 사건은 1965년 9.30 사태로 권력을 장악한 수하르토가 말레이시아와의 화해정책을 추진하여 1966년 8월 국교정상화를 실현함으로써 해결. 이러한 양국간의 화해 협력은 이듬해인 1967년 ASEAN 창설의 기반이 됨.

- 1965년 9월 인도네시아 공산당이 쿠데타(9.30사태)를 시도하였으나, 수하르토(당시 전략사령관, 육군소장)가 이끄는 인도네시아 군에 의해 진압되었으며 1966년 3월 수카르노 대통령은 수하르토 장군에게 실권 이양

### ※ 9.30사태

인도네시아의 현대사를 뒤바꾼 사건임과 동시에 동아시아 국제정치 흐름에도 큰 영향을 준 사건. 당시 인도네시아는 NASAKOM체제하에서 군부와 공산당이 격렬한 권력투쟁을 전개. 1965년 9월 30일 군부의 쿠데타 계획을 입수한 공산당은 공산당을 지지하는 일부 군부세력과 함께 6명의 군장성 납치, 살해를 통해 군부의 쿠데타를 저지하고 권력장악을 시도함. 그러나 수하르토 장군이 이끄는 육군에 의해 바로 진압되었고, 이후 인니군부는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50만~100만에 이르는 공산당원 및 지지자들에 대한 대숙청을 실시. 이 과정에서 육군장성이었던 수하르토는 수카르노를 권좌에서 몰아내고 정치권력을 장악하였으며, 32년에 걸친 개발독재정권을 구축함.

#### (3) 수하르토 시대(1966~1998)

- 1968년 3월 제2대 대통령에 정식 취임한 수하르토는 경제개발과 정치적 안정을 최우선시 하는 정책을 실시함
- 우선 수하르토는 수카르노 시대의 경제적 혼란을 수습하고 경제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서방세계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서방진영의 일원으로서의 국제사회 복귀를 추구함
  - 1966년에는 IMF, 세계은행, 유엔에의 복귀를 선언함과 동시에 말레이시아와의 대결정책을 폐기했으며, 1967년에는 외국투자법 등을 정비하여 경제재건에 착수
- 수하르토는 정치적 안정과 자신의 권력유지를 위해 정당시스템과 의회제도의 개편을 실시했고 이를 통해 장기집권의 토대를 구축
  - 정당제도와 관련해서는 공무원, 군부, 관제 노조, 농업단체 등 수많은 직능단체의 연합으로 이루어진 골카르당을 설립하여 여당역할을 담당하게



하는 한편, 9개의 정당을 둘로 정리·통합하는 정당개편 작업을 실시하여 이슬람계 정당은 '통일개발당(PPP)', 민족주의성향의 비이슬람계 정당은 '인도네시아 민주당(PDI)'으로 통합하여 선거참가 정당은 이들 양당과 골카르에 한정함

- 의회제도와 관련해서는 의회에 군부를 위한 임명의석을 만들고, 정부통령 선출권한을 가진 국민협의회 의석의 절반을 임명제로 만들어 대통령인 수하르토 자신이 임명권을 행사했고 이를 통해 장기집권이 가능해짐
- 수하르토의 신질서(New Order)체제하에서 권력은 수하르토에게 집중되었고 그 결과 인도네시아의 통일은 강화되고 경제발전도 이루어졌지만, 다양성의 추구는 통제되고 억제됨
- 1997년 아시아통화위기를 계기로 수하르토의 개발독재체제는 붕괴의 위기에 직면함
  - 아시아 통화위기의 여파로 루피아가 폭락하자 정부는 IMF에 지원을 요청했고, IMF는 인니에 대한 지원 조건으로 인니경제의 구조조정을 요구
  - 하지만 구조조정 대상에는 수하르토의 친족기업도 포함되어 있었고, 인니정부가 친족들의 이권확보를 위해 IMF의 경제개혁안에 소극적인 움직임을 보이자, 인니경제는 시장의 신용을 상실, 루피아의 폭락으로 이어졌고, 물가폭등, 실업자 증대로 이어짐
- 1998년이 되자 학생과 노동자를 중심으로 경제재건, 부패척결을 요구하는 거리데모가 발생했고, 5월 군부대가 트리삭띠(Trisaskti) 대학 데모대에 발포하여 사상자가 발생하자 이를 계기로 자카르타에서 대규모 폭동이 발생
  - 일시적인 개혁조치로 사태수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정치지도부는 수카르노 퇴진을 요구. 결국 수하르토 대통령은 5월 21일 대통령직을 하비비(B. J. Habibie) 부통령에게 이양을 발표하였고, 이로써 32년에 이르는 장기 독재정치는 종식됨

#### (4) 민주화 시대(1998~현재)

- 99.10 국민협회의의 정·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에 압둘라만 와히드 (Abdurrahman Wahid), 부통령에 메가와티 수카르노(Megawati Sukarnoputri)가 당선
- 01.7 국민협회의 특별회의에서 메가와티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하였고, 함자 하즈 통일개발당 총재가 부통령에 선출
- 04.4 국회의원 선거 등 총선이 실시된 바, 수하르토 대통령 하야후 약화되었던 골카르당이 제1당으로 복귀
- 04.7 헌정 사상 처음으로 직접 국민투표에 의한 대통령 선거가 실시된 바, 과반수 이상을 득표한 후보가 없어, 상위 1위 후보와 2위 후보 사이에 결선 투표 실시
  - ※ 민주당의 수실로 범방 유도요노 前정치·안보조정장관과 투쟁민주당의 메가와티 대통령간 결선투표(9.20)
- 04.9 결선투표 결과, 유도요노 후보가 최초의 직선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으며, 부통령에 골카르당 출신의 칼라 前북지조정장관이 당선
- 04.10 유도요노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통합정부(United Indonesia Government) 출범
  - 05년 인도네시아 역사상 처음으로 주민 직접 투표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장 (전국 33개 주지사 및 226개 지자체장) 선거 실시
  - 신정부 출범 이후 정치·사회적 안정 기반하에 6~7% 수준의 지속적 경제성장 실현
- 04.12 아체, 북부 수마트라 지역 지진해일(쓰나미) 발생
- 05.8 30년간 지속된 정부-아체해방운동(GAM)간 분쟁을 종식시키는 ‘아체 평화협정’ 체결, 07.2 이르완디 아체 주지사 취임
- 09.4 총선 결과, 유도요노 대통령의 민주당이 골카르 당을 제치고 제 1당으로 부상



- 09.7 대선 결과, 유도요노 대통령은 7,300만 여표(60.8%)를 획득하여 3,200만 여표(26.8%)를 획득한 메가와티-프라보워 후보측을 큰 차이로 누르고 당선
- 09.10 유도요노 대통령 재선 취임, 인도네시아 단합 제 2기 내각 출범

## II 정치



〈따나룻 해상사원〉

1. 국가이념
2. 행정부
3. 입법부
4. 사법부
5. 주요정당
6. 지방자치 제도
7. 정치 정세



## 1. 국가 이념

### 가. 국가 이념

- Pancasila(Pancasila) 기본이념에 따라 1945년 헌법을 제정하였고, 이를 토대로 대통령을 국가원수로 하는 민주공화국 건국
- Pancasila(5대 건국이념)
  - 유일신에 대한 믿음 (Belief in the One and Only God, 다양한 신앙에 대한 존중을 의미)
  - 인간의 존엄성 (Just and Civilized Humanity)
  - 통일 인도네시아 (The Unity of Indonesia)
  - 대의 정치 (Democracy guided by the Inner Wisdom in the Unanimity arising out of Deliberations amongst Representative)
  - 사회정의 구현 (Social Justice for the Whole of the People of Indonesia)

### 나. 정치정세 개관

- 수하르토(Soeharto) 정권(32년간 통치) 하의 권위주의 체제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전환하는 진통 경험
- 각 정당은 Pancasila 민주주의에 기초한 우당관계였으나, 1999년 및 2004년 총선을 거쳐 이슬람계 정당과 민족주의 정당으로 크게 양분되는 양상
-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였으나, 수하르토 대통령 퇴진(1998년) 이후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고 국회(DPR)의 권한을 강화
  - 2004년 7월 5일 대통령 선거부터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부통령을 국민 직접투표로 선출
  - 이에 따라 국민협의회(MPR)가 국가주권기관으로서의 의미를 상실

- 1998년 수하르토 퇴임 이후 혼란기를 거쳐 유도요노(Yudhoyono) 대통령 집권 하에서 괄목할 만한 민주화 성취
  - 유도요노 대통령은 2009년 재임 후 발리민주주의포럼(Bali Democracy Forum)을 창설하여 인도네시아의 민주주의 발전 경험을 다른 국가들과 공유
- 2014년에 실시될 국회의원 및 대통령 선거가 인도네시아의 민주주의 발전 및 정착에 주요 고비가 될 전망
  - 인프라 시설 미비, 자바섬 중심 정치·문화 구조, 부패 잔존, 종교적 관용 유지, 테러리즘 잔존 등이 주요 국가적 도전과제

## 2. 행정부

- 대통령(임기 5년)이 국가원수 겸 행정수반으로서 국민직접투표에 의해 선출
- 1968년 6월 경제안정과 경제개발계획 추진을 목적으로 제 1차 개발내각이 발족한 이래 수하르토(Soeharto) 전대통령 하에서 7차에 걸쳐 개발내각이 구성
- 1998년 5월 수하르토 전대통령이 사임하고 하비비(Habibie) 대통령이 취임하여 새 과도 정부를 구성, 1999년 6월 7일 총선을 실시하였으며, 1999년 10월 20일 대통령 선거(10월 21일 부통령 선거)에서 압두라만 와히드(Abdurrahman Wahid)가 대통령으로 선출되어 정권 교체
- 2000년 7월 23일 메가와티(Megawati) 부통령이 국민협의회 특별회의에서 대통령직을 승계하였고, 7월 26일 함자 하즈(Hamza Haz) 통일개발당 총재가 부통령에 선출
- 2004년 10월 20일 유도요노 대통령이 국민직접 투표에 의해 신임 대통령으로 선출(유슈 칼라(Yusuf Kalla) 전 복지조정 장관이 부통령에 선출), 제 1기 인도네시아 단합(United Indonesia) 내각 출범



- 2009년 7월 9일 유도요노 대통령은 재선에 성공, 부디오노(Boediono) 부통령(전 중앙은행장)과 함께 제 2기 인도네시아 단합 내각 출범
- 2011년 10월 18일 유도요노 대통령은 연립여당 간 각료배분의 큰 틀은 유지하는 가운데 정권보강을 통한 리더십 재창출과 정권의 안정적 지속을 위한 개각을 단행

※ 인도네시아 역대 대통령

역대	이름	출신정당	재임기간
1	수카르노(Sukarno)	무소속	1945.8.18-1967.3.12
2	수하르토(Suharto)	골카르당	1967.3.12-1998.5.21
3	하비비(Bacharuddin Jusuf Habibie)	골카르당	1998.5.21-1999.10.20
4	와히드(Abdurrahman Wahid)	국민계몽당	1999.10.20-2001.7.23
5	메가와티(Megawati Setiawati Sukamoputri)	투쟁민주당	2001.7.23-2004.10.20
6	유도요노(Susilo Bambang Yudhoyono)	민주당	2004.10.20- 현재

○ 행정부 조직도





### 3. 입법부

#### 가. 국민협의회(MPR : People's Consultative Assembly)

##### 1) 주요기능

- 헌법제정 및 개정
- 대통령, 부통령 탄핵

##### 2) 구 성 : 692명

- 국회의원 : 560명
- 지역대표 : 132명

##### 3) 임 기 : 5년(2009.10-2014.9)

##### 4) 의장단

직 책	이 름	소 속
의 장	시다르토 다누수브로토 (Sidarto Danusubrotos)	투쟁민주당
부의장	멜라니 리메나 수하를리(Melani Leimena Suharli)	민주당
부의장	하리안토 토하리(Hajriyanto Y. Thohari)	골카르당
부의장	루크만 하킴 사이푸딘(Lukman Hakim Saifuddin)	통일개발당
부의장	아마드 파르한 하미드(Ahmad Farhan Hamid)	지역협의회

※ DPD : 지역대표 협의회(동 협의회 의원은 정당에 속하지 않도록 규정)

## 나. 국 회(DPR :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 1) 주요 기능

- 입법권
- 예산결정 및 예산집행 감독
- 행정부 견제(단, 정부 불신임권은 없음)

### 2) 구 성

- 560명
- 중선거구제, 개방형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혼합형 비례대표제)

### 3) 임 기 : 5년(2009.10-2014.9)

### 4) 의장단

직 책	이 름	소 속
의 장	마르주키 알리(Marzuki Alie)	민주당
부의장	프리오 부디 산토소(Priyo Budi Santoso)	골카르당
부의장	프라모노 아눔 위보워(Pramono Anung Wibowo)	투쟁민주당
부의장	모하마드 소히불 이만(Mohamad Sohiful Iman)	복지정의당
부의장	타우픽 쿠르니아완(Taufik Kurniawan)	국민수권당



5) 현 의석분포 (2009년 4월 총선 결과)

연번	정당명	DPR 의석	득표율(%)
1	민주당(PD)	148	20.85
2	골카르당(Golkar)	108	14.45
3	투쟁민주당(PDI-P)	93	14.03
4	복지정의당(PKS)	59	7.88
5	국민수권당(PAN)	42	6.01
6	통일개발당(PPP)	39	5.32
7	그린드라당(Gerindra)	30	4.94
8	국민계몽당(PKB)	26	4.46
9	하누라당(Hanura)	15	3.77
계		560	

6) 분과위 구성현황(2013년 8월 기준)

위원회 (Commission)	위원장	소속정당	담당분야
제 1위원회	마푸즈 시드 (Mahfudz Siddiq)	복지정의당	국방, 정보, 외교, 통신
제 2위원회	아군 구난자르 수다르사 (Agun Gunanjar Sudarsa)	골카르당	내무, 지방자치, 행정개혁, 선거
제 3위원회	그데 파섹 수아르디카 (Gede Pasek Suardika)	민주당	법률, 인권, 치안
제 4위원회	로마후르무지 (M. Romahumuziy)	통일개발당	농업, 산림, 해양, 수산, 식량
제 5위원회	로렌스 바항 다마 (Laurens Bahang Dama)	국민수권당	교통, 공공사업, 공공주택, 기상
제 6위원회	아이르랑가 하르타르토 (Airlangga Hartarto)	골카르당	통상, 산업, 투자, 중소기업
제 7위원회	수탄 바토가나 (Sutan Bhatoegana)	민주당	에너지, 광물자원, 연구기술, 환경
제 8위원회	이다 파우지야 (Ida Fauziah)	국민계몽당	종교, 사회, 여성
제 9위원회	립카 칩타닝 (Ribka Tjotaning)	투쟁민주당	노동, 이주, 보건
제10위원회	아구스 헤르만토 (Agus Hermanto)	민주당	교육, 문화, 관광, 청소년, 체육
제11위원회	에미르 무이스 (Emir Moeis)	투쟁민주당	재무, 금융, 개발계획

## 다. 지역대표 협의회(DPD : Regional Representative Council)

### 1) 주요 기능

- 지방행정, 지자체 관련 사업, 정책심의 및 입법권
- 지방분권 관련 사항 입법권
- 지자체 관련 예산 사항 심의
  - ※ 국회(DPR)의 기능을 보완하고, 지역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2004.10월 구성된 상원(上院) 과 유사한 기관

### 2) 구 성

- 132명
- 33개 주에서 각 4명씩 선출
  - ※ 2013년 신설된 북부 칼리만탄 주는 다음 총선인 2014년 까지 지역대표 없음
  - ※ 입후보 자격으로 정당에 소속하지 않는 것을 의무화

### 3) 임 기 : 5년(2009.10-2014.9)

### 4) 의장단

직 책	이 름	소 속
의 장	이르만 구스만(Irman Gusman)	서부 수마트라주
부의장	라 오데 이다(La Ode Ida)	남동 술라웨시주
부의장	구스티 칸젠 라투 헤마스 (Gusti Kanjeng Ratu Hemas)	족자 특별주



## 4. 사법부

- 3심제로서 대법원, 고등법원(26개), 지방법원 및分院(326개)으로 구성되며 대법원은 하급법원을 지도 감독
- 현행 사법부는 4개의 관할로 나누어져 ① 민사사건이나 형사사건을 다루는 일반관할, ② 회교법에 따라 결혼·이혼·상속을 다루는 종교관할, ③ 군사관할, ④ 민간인과 공무원 사이의 소송을 다루는 행정관할로 구성
  - 국방부 관할의 군사재판소, 종교부 관할의 종교재판소가 별도로 설치되어 각 관할사건 담당
- 검찰기관으로서는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이 있음.
- 2003년 12월 법률의 합헌성 여부를 심사하는 헌법재판소 신설
  - 국가사법 위원회도 설치되어, 국회의 승인을 받아 대법관 임명

## 5. 주요 정당

### 가. 개요

- 1965년 인도네시아 공산당 쿠데타 진압 이후 최초로 실시된 1971년 7월 총선거 9개 정당과 1개 직능그룹 등 다수 정당이 난립하였으나, 총선 후 2개 정당과 1개 직능그룹으로 정립
- 1974년 8월 정당 및 직능그룹에 관한 법률 개정
- 1985년 정치사회단체법 개정으로 골카르당, PPP, PDI 등 3개 정치단체만이 총선 참가자격 인정

- 과도한 군소 정당 출현을 방지하기 위해 2004년 총선에는 24개 정당, 2009년 총선에서는 44개 정당에 대해서만 총선 참가 자격을 인정
- 2014년 총선에는 전국 단위의 12개 정당과 아체 자치주의 3개 정당이 참가 자격을 획득
- 2014 총선 참가 자격 획득 정당

연번	정당명	성향	참고사항
1	민주당 (PD)	중도개혁	집권여당
2	골카르당 (Golkar)	보수	연립여당
3	투쟁민주당 (PDI-P)	진보	제 1야당
4	복지정의당 (PKS)	이슬람	연립여당
5	국민수권당 (PAN)	민족주의	연립여당
6	통일개발당 (PPP)	이슬람	연립여당
7	그린드라당 (Gerindra)	진보	야당
8	국민계몽당 (PKB)	이슬람	연립여당
9	하누라당 (Hanura)	중도개혁	야당
10	나스뎬당 (Nasdem)	민족주의	야당
11	월성당 (PBB)	이슬람	야당
12	정의통일당 (PKPI)	민족주의	야당
13	아체당(Partai Aceh)	진보	아체 지역정당
14	국가아체당 (PA Nasional)	민족주의	아체 지역정당
15	아체 평화당(PDA)	민족주의	아체 지역정당

## 나. 정당 개관

- 민주당(Partai Demokrat)
  - 2001년 9월 9일 유도요노(Yudhoyono) 당시 정치·안보 조정장관을 정점으로 하여 설립된 정당



- 사실상 유도요노 장관을 차기 대통령 후보로 추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되었으나, 2004년 4월 총선에서 기대 이상의 약진세를 시현
- 2004년 총선 결과, 7.45%의 득표율을 기록, 득표율 순위에서 5위를 차지 (의석수로는 56석을 차지, 제4위)
- 2009년 총선 결과, 국회 총 의석 560석 중 148석(26%)을 획득하여 제 4당에서 제 1당으로 부상(집권여당)
- 유도요노 대통령의 2기 연속 집권으로 원내 최대 정당이 되었으나 최근 지지율이 연립 여당인 골카르당과 제1야당인 투쟁민주당에 크게 밀리면서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위기에 봉착
- 2013.9월경 시작될 경선에서 대선후보를 선출하는 것을 계기로 지지율 회복 시도

○ 골카르당(Partai Golkar)

- 과거 수하르토(Soeharto) 정권 시절 재벌기업 및 전문 직업인층을 비롯, 250여 개의 산하 정치·사회단체들로부터 후원을 받았던 인도네시아 최대 정치세력 결합체로, 1999년 1월 정치관계법 개정예 따라 공무원들이 탈퇴하고 1999년 3월 정당으로 출범
- 1999년 6월 실시 총선에서 22.44%의 득표율로 투쟁민주당에 이은 2위를 차지
- 2004년 총선에서 21.58%를 득표, 투쟁민주당을 제치고 제1당의 위치를 탈환(의석 수는 118석에서 129석으로 증가)
- 2009년 총선 결과, 국회 총 의석 560석 중 107석(19%)을 획득하여 제 2당 실현, 인도네시아 단합내각 참여(연립여당)
- 연립여당이나 집권 민주당을 견제하고 있는 골카르당은 일찌감치 바크리(Bakrie) 당 대표를 대선후보로 지명하고 2014년 총·대선을 준비하고 있으나, 각종 여론조사에서 낮은 인기도로 고전 중
- 하지만 원내 제 2당이라는 점과 지난 30년 간 여당의 지위를 계속 이어오고 있다는 점에서 2014 총선에서도 당의 저력을 보여줄 것으로 전망
- 인도네시아의 정치 특성상 총선 후 대선 후보를 내기위한 조건인 원내 의석수

25% 확보를 위한 정당간 합종연횡이 예상되는 바, king maker의 역할을 통한 정부 구성 및 내각 진출을 시도할 가능성 다대

○ 투쟁민주당(PDI-P)

- 1973년 1월 비이슬람계 5개 당이 통합하여 설립되었던 인도네시아 민주당 (PDI : Indonesian Democratic Party)의 1996년 6월 메단 전당대회에서 축출된 메가와티(Megawati) 전 당수 및 그 지지세력이 세운 정당으로 1998년 10월 발리 전당대회를 개최, 메가와티를 1999년 대선 후보 겸 총재로 선출
- 전국적 조직을 갖추고 있는 정당으로서 과거 수하르토(Soeharto) 정권 시절에도 동 정권을 비판해 온 선명야당 기치 하에 1999년 6월 7일 총선에 임한 바, 개표 결과 득표율 33.74%(의석수 151석)로 최다 득표
- 그러나 2004년 총선에서는 메가와티 정부에 대한 실망감과 개혁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인해 18.53%를 득표하는데 그쳐, 제2당의 위치로 전환 (의석수도 151석에서 109석으로 현저히 감소)
- 2009년 총선 결과, 국회 총 의석 560석 중 94석(17%)을 획득하여 제 1 야당의 입지를 굳힘
- 제 1야당이자 인도네시아의 국부로 추앙받고 있는 수카르노(Sukarno) 초대 대통령의 적자라는 명분 측면에서 지지를 획득할 수 있는 유리한 기반 확보
- 2014 대선에서는 메가와티 당수가 조코위(Joko Widodo) 현 자카르타 주지사를 포함한 젊은 인물 중 적절한 인사를 지지할 가능성을 표명하였으나 실제 불출마 여부는 관찰 필요

○ 복지정의당(PKS)

- 2002년 창당된 회교성향의 정당. 전신은 1998년 창당된 PK(정의당)
- 2004~2009 기간 중 MPR 의장을 역임한 히다얏 누르 와히드(Hidayat Nur Wahid) 및 현 통신정보부 장관인 티파툴 쉴비링(Tifatul Sembiring)이 당을 대표하는 인물
- 2004년 총선에서 7.34%를 득표, 총 550석 중 45석 확보



- 2009년 총선 결과, 국회 총 의석 560석 중 57석(10%)을 획득함. 인도네시아 단합내각 참여(연립여당)
- 2013.1월 루트피 하산 이삭(Luthfi Hasan Ishaq) 당수가 뇌물 수수 혐의로 당수직을 사퇴한 이후 전 국회부의장 출신의 아니스 마타(Anis Matta) 당수 체제로 전환하였으나 공동 연립정권을 이루고 있는 민주당과의 마찰 등 어려운 상황
- 국민수권당(PAN)
  - 비종파, 비차별주의를 정강으로 1998년 7월 창당된 정당으로 지식인 계층이 주요 지지기반
  - 동 당은 아미엔 라이스(Amien Rais) 당수를 대통령 후보로 내세웠으나, 신설 정당으로 하부조직이 약하고, 아미엔 라이스 당수가 서민층에 지명도가 낮아 1999년 6월 총선 결과 7.12%의 득표율(의석수 34석) 획득
  - 2004년 총선에서는 6.44%의 득표에 그쳤으나, 2009년 총선에서는 8% 득표하여 46석 확보. 인도네시아 단합내각 참여(연립여당)
  - Hatta Radjasa 당수는 2014년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
- 통일개발당(PPP)
  - 1973년 1월 회교계 4개 정당이 통합하여 전체 인구의 87%인 회교도를 대표하는 정당으로 창설되었으나, NU 등 주요 회교단체 이탈(1987년) 및 당 주도권 쟁탈전으로 1992년 총선시 득표율 미진
  - 1997년 총선에서 89석 확보, 원내 제2당으로서의 위치가 강화되었으나, 새로운 회교세력 정당들(국민계몽당, 정의당 등)이 새로 창당하면서 기존의 회교 세력들의 상당수가 이탈
  - 함자 하즈 당수를 중심으로 회교도를 주요 지지기반으로 하며, 1999년 6월 총선 개표 결과 10.71%의 득표율(의석수 58석) 기록
  - 2004년 총선에서 8.15%의 득표율을 확보, 정당별 득표순위로 4위 기록(의석수로는 58석을 차지, 제3위)
  - 2009년 총선결과 7% 득표, 37석 확보(연립여당)

### ○ 국민계몽당(PKB)

- 최대 회교단체인 NU의 지원하에 창설된 정당으로 국민주권, 정의 및 단결을 목표로 하고 있는 개혁성향의 정당
- 같은 회교계 정당인 통일개발당(PPP)과 경쟁 관계
- 와히드(Abdurrahman Wahid) 전 대통령의 영향력이 점차 벌어지고 차세대 종교지도자들 간의 경쟁이 강화되는 추세
- 1999년 6월 총선 개표 결과 득표율 12.61%(의석수 51석)로 정당별 득표 순위에서 3위를 차지
- 2004년 총선에서는 10.57%의 득표율을 기록, 다소 퇴조하는 양상
- 2009년 총선결과 5% 득표, 28석 확보(연립여당)

### ○ 그린드라당(Gerindra)

- 전 전략사령관 프라보워(Prabowo) 당수가 강력한 리더십을 기치로 2008년 창당
- 2009년 총선에서 30석을 획득하였으며 2014년 총선 참가자격도 획득
- 프라보워 당수는 국민적 인기를 바탕으로 2014년 대선의 유력한 후보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으나, 1998년 특전사령관 시절 발생한 인권 침해 사건과 관련한 정치적 부담이 존재

## 6. 지방자치 제도

### 가. 행정구역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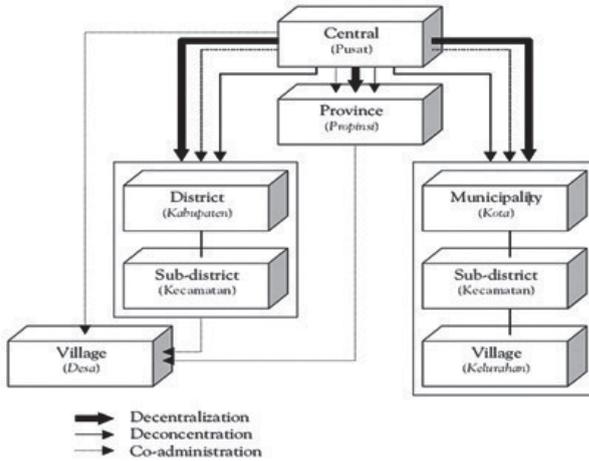
- 인도네시아 지방정부는 34개 주, 98개 시, 403개 군, 6,415개 읍으로 구성
  - 이중, 수도 자카르타와 족자카르타는 특별행정주, 아체와 파푸아 및 서부 파푸아는 특별자치주



- 행정구역 계층은 크게 두 단계로, 1단계인 주(Provinsi) 아래에 2단계인 군(Kabupaten/농촌지역)과 시(Kota/도시지역)로 구성
  - 군과 시 아래에는 우리나라의 면 또는 구과 유사한 크차마판(Kecamatan), 그 아래에 마을(Desa 또는 Kelurahan)이 존재
- 행정구역 명칭

계층	Name of Administrative Structure (Ind)	Name of Administrative Structure (Eng)	Top Officials (Ind)	Top Officials (Eng)	Notes
1	Provinsi (also known as Daerah Tingkat I)	Province (Provincial Government Level I)	Gubernur	Governor	- 선출직 - 대통령에게 직접 책임 - 행정적으로는 내무부장관이 조정
2	Kabupaten (also known as Daerah Tingkat II)	Regency(District) (Provincial Government Level II)	Bupati	Regent	- 선출직 - 주지사에게 직접 책임 - 주로 농촌지역 - 군마다 군의 수도 (Kota Kabupaten)가 존재
	Kotamadya (also known as Daerah Tingkat II)	Municipality (Provincial Government Level II)	Walikota	Mayor	- 선출직, - 주지사에게 직접 책임 - 주로 도시지역
3	Kecamatan	Sub-District	Camat	Head of Sub-District	- 주지사가 임명 - 군수, 시장에게 직접 책임
4	Kelurahan	Village	Lurah	Village Head	- 주지사가 임명 - Camat에게 직접책임
	Desa	Village	Kepala Desa	Village Head	- 준 정부 조직 - 마을대표는 공무원이 아니며, 마을 주민들의 합의에 의해 선출 - 법적으로는 Camat에게 직접책임을 지게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마을 주민들에게만 책임 지는 형태 - 인구나 면적에 따라 다양한 구조

○ 행정구역의 체계



나. 지방자치 역사 및 현황

- 1998년 수하르토(Soeharto) 실각이후, 민주화 바람과 함께 지방분권이 본격적으로 확산
  - 1999년 지방정부에 관한 법률(No. 22/1999, Law on Local Government)에 의해 지방자치가 시작
  - 동 법률에 의하면, 외교, 안보, 국방, 통화, 종교 등의 영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영역에서 지방정부가 권한을 행사함을 명시
- 그러나, 중앙정부의 권한이양 미흡과 지방정부의 준비 부족 등으로 실질적인 지방분권·자치를 이루는 데에는 많은 한계에 봉착
  - 이 과정에서 지방정부간 격차, 부패 등의 문제가 이슈화
- 이에 따라, 2004년에 지방자치제도 개혁이 이루어지면서, 99년에 제정된 지방정부에 관한 법률이 최초로 대폭 개정(No. 32/2004 Law on Local Government)



- 동 법률에서 지방정부의 서비스제공 기능을 의무적 기능(Obligatory Functions)과 재량적 기능(Discretionary Functions)으로 구분
- 의무적 기능에 대해서는 공공서비스 접근 및 품질에 대한 국가 차원의 최소 기준(Minimum Service Standards, MSS)을 만족시켜야 함을 천명
- 2005년부터, 주지사(Governor), 시장(Mayor), 군수(Regent)를 주민 직접 선거로 선출
  - \* 아래 단계인 구, 읍, 면 등의 단체장은 선출직 지자체장이 임명

## 7. 정치 정세

### 가. 2009년 4월 총선 결과

- 2009년 4월 9일 실시된 총선 결과, 유도요노(Yudhoyono) 대통령의 민주당은 2004년 총선에서 제 1당이 된 골카르당을 제치고 제 1당으로 부상
  - 선거 결과 민주당은 대선에 독자적 후보를 출마시킬 자격인 득표율 25%, 의석수 20%를 충족한 유일한 정당으로 발돋움
  - 골카르당이 내세운 대선 후보인 유습 칼라(Yusuf Kalla) 전 부통령과 하누라당의 위란토(Wiranto) 당수 그리고 투쟁민주당 총재인 메가와티(Megawati) 전 대통령과 그린드라당의 프라보워(Prabowo) 당수는 각각 연대하여 2009년 7월 대선에 출마할 자격을 획득
- 2009년 4월 총선은 폭력사태 및 선거부정 시비가 만연했던 과거 총선과 비교할 때 전반적으로 평온한 분위기 속에서 원만히 실시되었으며, 이는 인도네시아 민주주의 발전에 긍정적인 신호로 평가됨.
  - 당초 복잡한 선거 제도 등으로 인해 투표율이 40%까지 떨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었으나 선거결과 약 60%의 투표율을 기록
  - 다만, 분리주의 운동 촉발 가능성이 상존하는 인도네시아 동부 파푸아

지역에서 선거 전날부터 선거일 오전 까지 산발적인 폭력 사태로 11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으나 선거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함.

- 인도네시아 서부 아체 지역의 경우에도 일부 선거방해 시비가 제기되었으나 전반적으로 평화롭게 선거가 실시됨.

## 나. 2009년 7월 대통령 선거 결과

- 2009년 7월 9일 실시된 대선 결과, 유도요노 대통령은 73,878,562표(60.8%)를 획득하여 32,548,105표(26.79%)를 획득한 메가와티(Megawati) - 프라보워(Prabowo) 후보측을 큰 차이로 누르고 당선

후보자명	투표결과
유도요노 - 부디오노	73,874,562표 득표 (60.8%)
메가와티 - 프라보워 후보	32,548,105표 득표 (26.8%)
유슈 칼라 - 위란토 후보	15,081,814표 득표 (12.4%)

- 유도요노 대통령 당선 배경
  - ▶ 유도요노 대통령이 공약한 지난 5년간 달성한 업적의 지속성과 안정성 유지는 메가와티(Megawati) 후보가 제시한 서민중심 경제(people's economy)와 유슈 칼라(Yusuf Kalla) 후보가 제시한 효율적인 정책결정과 자주적 경제건설 보다 더 많은 지지를 획득할 수 있게 한 것으로 분석
  - ▶ 유도요노 대통령의 대중적 인기도와 '깨끗하고 강력한 지도자' 이미지를 토대로 한 선거전략도 주요
    - 여론 조사상 유도요노 후보는 60% 선의 지지도를 지속적으로 유지

## 다. 최근 주요 정치 정세

- 유도요노 대통령은 2004년 집권 이래 경제위기의 조기극복 및 안정적 성장,



개혁기조 유지, 민주주의 발전 등을 이루면서 국민적 지지 하에 정치적 안정을 계속 유지

- 최근 민주당 당내 인사의 부정부패 연루에 대해 국민들이 비판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으며, 2014년 대선후보 결정이 미루어지는 가운데 민주당의 인기하락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
- 한편, 인도네시아내에서의 대규모 테러 위협은 감소하고 있으나 지역화·소규모화된 테러 위협은 상존
  - 자유파푸아운동(Free Papua Movement) 등 파푸아(Papua) 분리 독립 요구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

## 라. 2014년 대선 전망

- 현재 각 정당들이 대선 후보 선출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대통령-부통령 조합, 당선 윤곽 등은 2014.4월 총선이후에나 드러날 것으로 예상
  - 3대 주요 정당(민주당, 투쟁민주당, 골카르당)의 정국 구도가 2014.4월 총선에서 지속될 가능성이 있으며, 유도요노 대통령이 출마하지 않는 민주당과 이슬람 정당들의 지지도가 총선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
  - 총선 결과에 기초하여 정당별 연합 구도를 잘 구성하는 정당이 2014. 7월 대통령 선거(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9월 결선 투표 실시)에서 승리하게 될 것으로 예상
  - ※ 인도네시아 선거법에 의거 총 득표수의 25% 또는 국회 의석의 20%를 획득한 정당이나 정당 연합만이 대선 후보를 낼 수 있음
- 그간 거론되어온 대통령 당선 조건(자바 태생 및 군 출신 배경)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으며, 세대교체 바람으로 새로운 인사가 등장할 경우 이는 인도네시아의 정치구조를 변화시키는 계기가 될 전망
  - ※ 2012.9월 자카르타 주지사에 당선된 조코위(Joko Widodo)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상황

# III 외교



〈자카르타〉

1. 외교정책기조
2. 외교방향과 주요시책
3. 주요국 및 ASEAN 회원국과의 관계
4. 수교국 및 재외공관 · 외국공관 현황



## 1. 외교정책 기조

### 가. 자유롭고 독자적인 외교(Free and independent diplomacy) 지속 전개

- 1955년 반동회의 개최를 통해 비동맹·중립 진영의 결속을 주도한 비동맹의 주도국으로서 비동맹을 통한 제3세계 진영에서의 주도적 역할을 지속적으로 추구

### 나. 경제개발을 위한 실리외교 추진

- 수출 확대 도모 및 중장기 경제개발 마스터플랜(MP3EI) 이행에 필요한 외국인투자 적극 유치

### 다. 지역안정 유지 도모

- ASEAN의 주도 국가로서 ASEAN+3, EAS, ARF 등 지역협의체에서 ASEAN의 중심적 역할 유지 및 남중국해에서의 갈등 방지 도모

### 라. 인도네시아의 안정과 영토 일체성 유지를 위한 지지 확보

- 국제사회에서 아체, 서부 파푸아 등 일부 분리독립 요구 지역에 대한 인도네시아 주권 재확인

## 2. 외교방향과 주요시책

### 가. 개도국의 입장 반영을 위한 적극적 역할

- UN, ASEAN, NAM(비동맹운동), OIC(이슬람회의기구) 등과 같은 다양한 국제무대에서 개도국 간의 협력 강화로 역할 증대 노력
  - ‘독립, 영구적 평화 및 사회정의에 기반한 세계질서’라는 헌법정신에 기초하여 중도노선 및 다자주의적 원칙에 입각한 기본 외교노선 지속

### 나. ASEAN내 결속력 강화

- ASEAN은 인도네시아 외교의 초석(사무국 자카르타 소재)
- ASEAN에서의 주도적 위치 견지와 함께 ASEAN 개별 회원국과의 협력 강화 지속 추진
- ‘국가간 연합체’에 불과했던 ASEAN을 EU와 같은 법적 구속력 있는 ‘지역 공동체’로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에서 주도적 역할 견지
  - ※ 2008.12.15 ASEAN 헌장 발효
  - ※ 2011년 ASEAN 의장국 수임

### 다. 주요 국가와의 양자관계 증진

- 한·중·일·호주·인도 등 비이슬람권 주요국과의 양자관계 증진 도모
  - 과거 비동맹위주 외교로부터 탈피, 균형적 접근 시도
- 최근 미국의 역내 관여 및 중국의 부상 관련 지역안정 및 경제실리에 바탕한 실리·균형 외교 추구
  - 동남아시아의 질서가 특정 국가의 지배보다는 역내 국가들간의 협력을 통해 유지되어야 한다는 ‘역동적 균형’ (dynamic equilibrium) 추구



## 라. 범지구적 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외교 중시

- 중동문제, 유엔 안보리 개편, 군축, 환경, 기후변화 등 주요 이슈에서 주도적인 입장 견지
  - 발리기후변화회의(07.12월) 개최
  - 발리민주주의포럼 개최  
(1차: '08.12, 2차: '09.12, 3차: '10.12, 4차: '11.12, 5차: 2012.11)
  - Post MDGs 어젠다 개발을 위한 고위급 회의(High-level Panel)의 공동 의장국 수행('12~'13년간) 등

## 마. 경제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 G20 회원국으로서 선진국-개도국간 입장 조율 노력
- 제9차 WTO 각료회의 개최('13.12, 발리)를 통한 다자무역체제 강화 지원

## 바. 이슬람국가들간의 협력 강화

- 이슬람회의기구(OIC) 주도국으로서 이슬람권 국가들과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비동맹-선진국, 이슬람권-비이슬람권 국가간 중도적 입장에서 협력 강화를 위한 주도적 역할 추구

# 3. 주요국 및 ASEAN회원국과의 관계

## 가. 주요국과의 관계

### 1) 미국

- 미국으로부터 경제 원조를 제공받고 있으며, 석유 등 각 분야에서 미국 민간자본 투자도 활발하여 긴밀한 우호협력 관계 유지

- 인도네시아는 미국으로부터 군장비 현대화 및 군사력 강화를 위한 원조를 기대하였으나, 미국은 1999년 10월 동티모르 인권문제와 2002년 티미카(Timika) 지역 미국인 피살사건 등을 이유로 군사협력을 중단
- 개혁지향적인 유도요노(Yudhoyono) 대통령 취임(2004.10)과 함께 미국과 군사협력관계 정상화를 위한 여건이 조성
  - 특히 2004년 12월 아체 지진·해일 피해 재건·복구 과정에서 미군 항공모함(Abraham Lincoln호)을 비롯, 수송기·헬기 파견 등의 지원
- 2005년 11월 미국은 대 인도네시아 무기 금수 조치를 해제
- 2010년 7월 미국은 인도네시아 특수군(KOPASSUS)과의 교류 중단 해제
- 2010년 11월 오바마 대통령은 인도네시아를 국민 방문하여 포괄적 동반자 관계(Comprehensive Partnership) 수립에 합의하고, 무역·투자, 교육, 에너지, 기후변화 대응, 안보, 민주주의 발전 등 제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한다는데 합의
- 2011년 11월 오바마 대통령은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참석차 발리를 방문하였고, 인도네시아가 매년 주최하는 발리 민주주의 포럼(Bali Democracy Forum)에 옵서버로 참여
- 미국은 F16기 24대를 정비 비용 부담 조건으로 인도네시아에 양허기로 결정하였으며 척 헤이글(Chuck Hagel) 국방장관이 2013년 8월 방문
- 2009년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이 해외 첫 방문지로 인도네시아를 선택한데 이어 2012년 9월에 재차 방문하였으며, 양국은 매년 외교장관회담(Joint Commission)을 개최하기로 합의
- 중국의 부상 및 미국의 아태지역 관여 확대(re-balancing) 관련 인도네시아는 양국관의 관계를 균형 있게 유지, 발전시키면서 최대한의 이익을 도모한다는 입장



## 2) 일본

- 일본은 인도네시아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무역상대국이자 최대 규모의 차관 공여국. 따라서 인도네시아는 일본투자 유치에 적극적이며, 일본도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 발생 이후 자동차 및 부품 산업을 중심으로 대인도네시아 투자를 확대
- 2008년 7월 인도네시아-일본 경제동반자협정(EPA) 체결
- 2013년 1월18일 아베 총리는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여 '아세안 외교 5원칙' 을 발표

### ※ 일본 아베내각이 천명한 'ASEAN 외교 5원칙'

- ▲ 자유·민주주의·기본적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정착·확대하기 위한 공동노력
- ▲ 힘이 아닌 법의 지배로 개방된 바다 수호, 미국의 아시아 중시 정책 환영
- ▲ 경제 네트워크로 무역·투자 촉진을 통한 공동 번영
- ▲ 아시아의 다양한 문화·전통 공동 육성
- ▲ 미래를 담당할 젊은 세대 교류 활성화

## 3) 러시아

- 1965년 인도네시아 공산당(PKI)에 의한 쿠데타 시도가 발생하기 이전까지는 구 소련이 최대 규모의 원조국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였으나, 동 쿠데타 이후 양국 관계 소원
- 수하르토 정권의 안정과 인도네시아의 대 동구권 관계 개선 정책(통상증진 실리 외교)에 따라 양국 관계는 점차 호전
- 1987년 3월 세바르드나제(Shevardnadze) 구 소련 외상의 인도네시아 방한 이후 관계 증진이 이루어졌으며, 1989년 9월 수하르토 대통령의 구 소련 공식 방문시, 양국간 우호·협력관계의 기초에 관한 특별의정서 조인

- 최근 들어 인도네시아-미국간 군사협력이 재개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는 자국산 수호기의 대인도네시아 판매를 위한 논의를 추진했으나, 2012년 발생한 러시아 항공기의 인도네시아 내 추락 사고로 논의는 중단된 상황

#### 4) 중국

- 반식민 반제국주의를 전면에 내세운 수카르노 정권하에서 인도네시아와 중국은 밀월관계였으나, 9.30사태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정권을 장악한 수하르토는 인도네시아 공산당에 의한 쿠데타시도의 배후에 공산중국이 있다고 판단하여 중국과의 국교를 단절함.
- 그러나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 실시 이후 1985년 7월 양국간 교역이 재개되고 실질교류가 증대되었고, 1989년 2월 일본 히로히토 국왕 장례식 참석차 일본을 방문한 수하르토 대통령과 첸지첸(錢其琛) 중국 외교부장은 외교관계 정상화에 원칙 합의
- 1990년 8월 외교관계 정상화에 합의한 양국은 1990년 10월 대사를 상호 교환하였으며 수하르토 대통령이 1990년 11월 중국을, 양상쿤(楊尙昆) 중국 국가주석이 1991년 6월 인도네시아를 공식 방문
- 1994년 11월 APEC 정상회의 계기 장쩌민(江澤民) 국가주석 공식방문, 상호 우호협력 관계 재확인 및 양국 경험관계 증진에 합의
- 와히드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1999년 12월 중국을 공식 방문하는 등 중국과의 실질협력 증진을 최우선 외교과제로 설정
- 2001년 11년 주룽지(朱容基) 중국 총리는 인도네시아를 공식 방문하고, 인도네시아의 주권, 영토보전, 국가통합을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양국은 경험을 보다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
- 2010년 1월 중·ASEAN 간 FTA 발효이후 중국산 제품의 수입 급증에 대해 경계감을 표시하고 인도네시아의 FTA 정책을 보다 신중한 방향으로 선회



- 2012년 3월 유도요노 대통령의 중국 방문에 이어 2013년 10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인도네시아 방문 예정
- 중국은 ASEAN 주도국이자 G20 회원국인 인도네시아와 국제무대에서 협력할 수 있고 자원 공급지 및 시장으로서의 인도네시아를 중요시하는 반면, 인도네시아는 중국의 지나친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면서 미국 및 중국과의 양자 관계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 ASEAN을 통한 다자외교를 통해 남중국해 등 중국 관련 문제를 관리해 나간다는 입장

## 나. ASEAN 회원국과의 관계

### 1) 개요

- ASEAN 회원국 간의 협력 증진을 통하여 동남아 지역을 자유평화 중립지대로 확립하고자 노력
- ‘ASEAN 10’의 실현을 통해 ASEAN 국가들 간의 결속과 협력 강화에 선도적 역할 수행(ASEAN 사무국 - 자카르타 소재)
- 캄보디아 사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해 ASEAN 각국과 긴밀히 협조하여 프랑스와 공동으로 파리국제회의 의장국으로서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 캄보디아 문제 해결에 기여
- ASEAN 내부의 경협 증진 및 통상증대를 위해 ASEAN 자유무역지대(AFTA) 결성 등 역내 경제협력 강화

### 2) 최근 동향

- 2003년 7월~2004년 7월 간 ASEAN 의장국으로 ASEAN 공동체 실현 구상(Bali Concord II) 합의 도출

- ASEAN 공동체는 안보, 경제, 사회·문화의 세 공동체를 축으로 구성

※ 2003년 10월 발리에서 ASEAN/ASEAN+3 정상회의 주최

- ASEAN 내 결속력 약화 및 ASEAN의 국제적 위상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인도네시아는 ASEAN의 영향력을 제고하고, ASEAN 내부 문제의 자체적 해결을 지향(ASEAN WAY)
- ASEAN 현장 채택(2007.11) 및 회원국 비준 완료(2008.10)
  - ASEAN이 향후 3대(정치, 경제, 사회·문화) 지역공동체로 발전해 나가기 위한 법적 성격 부여
- 인도네시아는 2011년 11월 ASEAN/ASEAN+3/EAS 정상회의 개최
  - ‘호혜적 관계 원칙에 관한 EAS선언’, ‘아세안 연결성에 관한 제6차 EAS 선언’ 채택
- 2012년 캄보디아 개최 정상회의에서 ‘아세안평화화해연구소’ (AIPR) 발족, ASEAN 인권현장 채택

Part I

Part II

Part III

Part IV

Part V

Part VI

Part VII

Part VIII

Part IX



## 4. 수교국 및 재외공관 · 외국 공관 현황

### 가. 수교국 현황(총 184개국)

아시아 · 중동	43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필리핀, 브루나이, 중국, 캄보디아, 미얀마, 베트남, 라오스, 몽고, 일본, 한국, 북한, 동티모르,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부탄, 인도, 이란, 몰디브, 네팔, 파키스탄, 스리랑카, 알제리,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이라크, 쿠웨이트, 레반논, 리비아, 마우리타니아, 모로코, 이집트, 오만, 팔레스타인, 카타르, 수단, 시리아, UAE, 예멘, 요르단, 투르크메니스탄
유럽 · 독립국가연합	53개	안도라, 오스트리아, 벨기에, 사이프러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리히텐슈타인, 룩셈부르크, 말타, 모나코,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산마리노,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바티칸시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폴란드, 헝가리, 체코, 루마니아, 에스토니아, 벨라루스, 슬로베니아, 불가리아, 조지아, 리투아니아, 슬로바키아, 라트비아, 크로아티아, 마케도니아, 알바니아, 아르메니아,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몰도바,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즈키스탄
대양주	13개	팔라우, 마이크로네시아, 호주, 사모아,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 피지, 솔로몬제도, 통가, 칼레도니아, 바누아투, 투발루, 나우루
미주	32개	미국, 캐나다, 파나마, 멕시코,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니카라과,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칠레, 페루, 볼리비아, 에쿠아도르, 콜롬비아, 브라질, 쿠바, 바하마, 자메이카, 수리남, 가이아나, 베네주엘라, 그레나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도미니카공화국, 트리니다드토바고, 도미니카, 아이티, 안티구아바부다
아프리카	43개	남아프리카공화국, 앙골라, 베냉,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부룬디, 카보베르데, 코모로스, 콩고, 지부티,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 가봉, 감비아, 가나, 기니, 기니비사우, 카메룬, 케냐, 콩고민주공화국, 레소토, 리베리아, 마다가스카르, 말리, 마우리티우스, 모잠비크, 나미비아, 니제르, 나이제리아, 코트디부와르, 르완다, 튀니지,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세이셸, 시에라리온, 소말리아, 스와질란드, 탄자니아, 토고, 우간다, 잠비아, 짐바브웨

## 나. 재외공관 현황

- 총 125개 : 상주대사관 95개, 총영사관 30개
- UN대표부(뉴욕, 제네바), ASEAN대표부(자카르타)

아시아 · 중동	51개	아프가니스탄(대), 사우디아라비아(대), 제다(총), 아제르바이잔(대), 방글라데시(대), 바레인(대), 브루나이(대), 중국(대), 홍콩(총), 광저우(총), 상하이(총), 필리핀(대), 다바오시티(총), 인도(대), 뭄바이(총), 이라크(대), 이란(대), 일본(대), 오사카(총), 캄보디아(대), 카자흐스탄(대), 한국(대), 북한(대), 쿠웨이트(대), 라오스(대), 레반(대), 말레이시아(대), 조호르바루(총), 페낭(총), 코타키나발루(총), 쿠칭(총), 미안마(대), 오만(대), 파키스탄(대), 카라치(총), 카타르(대), 싱가포르(대), 스리랑카(대), 시리아(대), 태국(대), 송클란(총), 터키(대), 이스탄불(총), UAE(대), 두바이(총), 우즈베키스탄(대), 베트남(대), 호치민(총), 예멘(대), 요르단(대), 동티모르(대)
유럽 · 독립국가연합	30개	오스트리아(대), 네덜란드(대), 벨기에(대), 영국(대), 보스니아 · 헤르체코비나(대), 불가리아(대), 체코(대), 덴마크(대), 핀란드(대), 헝가리(대), 이탈리아(대), 독일(대), 프랑크푸르트(총), 함부르크(총), 크로아티아(대), 노르웨이(대), 프랑스(대), 마르세유(총), 폴란드(대), 포르투갈(대), 루마니아(대), 러시아(대), 세르비아(대), 슬로바키아(대), 스페인(대), 스웨덴(대), 스위스(대), 우크라이나(대), 바티칸(대), 그리스(대)
대양주	8개	호주(대), 멜번(총), 퍼스(총), 시드니(총), 피지(대), 뉴칼레도니아(총), 파푸아뉴기니(대), 뉴질랜드(대)
미주	20개	미국(대), 휴스턴(총), 로스앤젤레스(총), 뉴욕(총), 샌프란시스코(총), 시카고(총), 아르헨티나(대), 브라질(대), 콜롬비아(대), 칠레(대), 에콰도르(대), 캐나다(대), 토론토(총), 밴쿠버(총), 쿠바(대), 멕시코(대), 파나마(대), 페루(대), 수리남(대), 베네주엘라(대)
아프리카	17개	남아프리카공화국(대), 케이프타운(총), 알제리(대), 이디오피아(대), 케냐(대), 리비아(대), 마다가스카르(대), 모로코(대), 이집트(대), 모잠비크(대), 나미비아(대), 나이지리아(대), 세네갈(대), 수단(대), 탄자니아(대), 튀니지(대), 짐바브웨(대)



### 다. 외국공관 현황 (2013)

- 총 93개국 103개 공관
- 국제기구 대표부 27개 상주

<b>대사관 (93개)</b>	아프가니스탄, 아제르바이잔, 바레인,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캄보디아, 중국, 인도, 이란, 이라크, 일본, 요르단, 한국, 북한, 쿠웨이트, 라오스, 레바논, 말레이시아, 미얀마, 파키스탄, 팔레스타인, 필리핀,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스리랑카, 시리아, 태국, 동티모르, 터키, UAE, 베트남, 예멘, 파푸아뉴기니, 오스트리아, 벨라루스, 벨기에,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체코,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바티칸, 헝가리, 이탈리아, 카자흐스탄, 라트비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러시아,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스웨덴, 스위스, 우크라이나, 영국, 우즈베키스탄, 호주, 피지, 뉴질랜드, 아르헨티나, 브라질, 캐나다, 칠레, 콜롬비아, 쿠바, 에쿠아도르, 멕시코,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수리남, 미국, 베네주엘라, 알제리, 이집트, 리비아, 모로코, 모잠비크, 나이지리아, 소말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수단, 튀니지, 짐바브웨	
<b>총영사관 (10개)</b>	수라바야    일본, 중국 메단        일본, 인도, 말레이시아 덴빠사르    일본, 인도, 동티모르 마나도       필리핀 자야뿌라    파푸아 뉴기니	
<b>국제기구 대표부 (27개)</b>	UNDP, UNICEF, UNFPA, UNODC, FAO, UNAIDS, UNESCO, UNIDO, WHO, ADB, IMF, WB/IBRD, IFC, BRSP-OIF, IOM, ILO, IFAD, UNHCR, CIFOR, ICRC, UNIC, UNOCHA, CAPSA, WFP, SOCSEA, ASEAN-FOUNDATION, AIPA	

# IV 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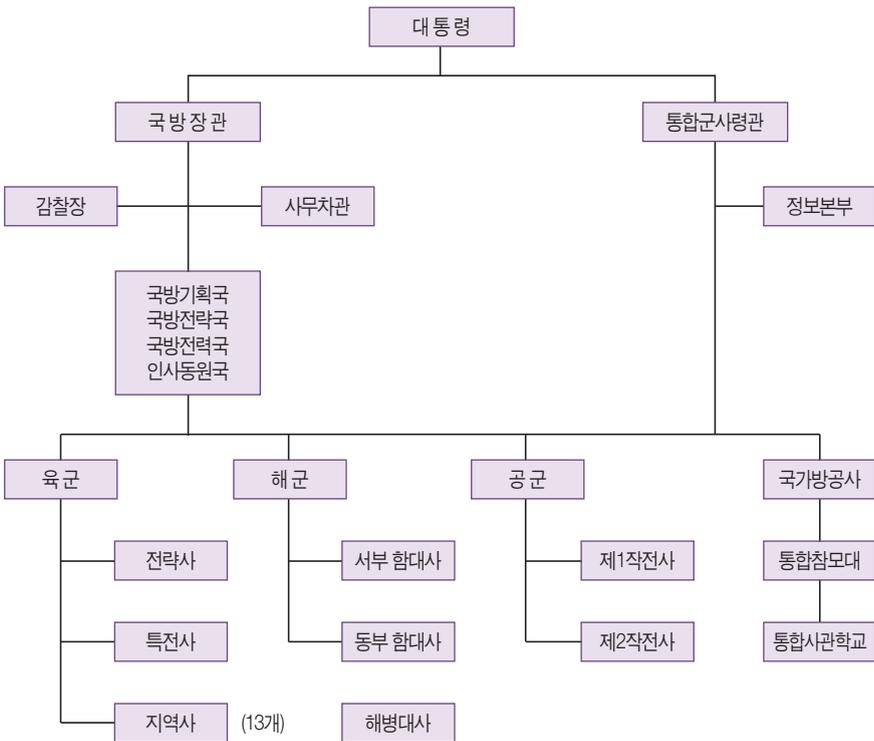
〈 자카르타 모나스 독립기념탑 〉

1. 군사 조직
2. 군사력 현황
3. 인도네시아 군부와 민주주의
4. 최근 군사동향



# 1. 군사 조직

- 통합군 체제, 지원병제
- 대통령은 통합군사령관을 통해 지휘권 행사
  - 통합군사령관은 정부각료급으로 지위 인정
  - 국방장관은 군정기능만을 수행
- 조직도



## 2. 군사력 현황

(총 병력 : 380,000명)

구분	편 성	주요 장비
육군 (280,00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락사 : 25,000명 - 2개 보병 사단</li> <li>○ 13개 지역사 : 210,000명</li> <li>○ 특전사 : 5,000명 - 5개 그룹</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전차 : AMX-13 : 275대(불) PT-76 : 15대(러) Scorpion : 60대(영)</li> <li>○ A P C : AMX-VIC 등 550여대</li> <li>○ 기 타 : 곡사포, 박격포, 방사포, 대공포 등 다수</li> </ul>
해군 (60,00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부 함대사(자카르타) - 4개 기지</li> <li>○ 동부함대사(수라바야) - 4개 기지</li> <li>○ 해상 수송전대(자카르타)</li> <li>○ 해병대사(자카르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Frigate : 13척</li> <li>○ 잠수함 : 2척(독일T-209형)</li> <li>○ 호위구축함 : 4척(미국)</li> <li>○ 초계정/연안전투함 : 57척</li> <li>○ MCM : 13척</li> <li>○ 상륙정, 쾌속정 25척(한국, 독일)</li> </ul>
공군 (40,00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 작전사(자카르타) - 4개 기지</li> <li>○ 제2 작전사(마카사르) - 4개 기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F-16 A/B : 10대</li> <li>○ SU-27/30 : 10대</li> <li>○ F-5 E/F : 14대</li> <li>○ Hawk 100/200 : 24대</li> <li>○ Hawk 53/10 : 21대</li> <li>○ C-130 : 23대</li> <li>○ KT-1 : 16대</li> </ul>

※ 국방 예산 : 85억 불(2013년 기준)



### 3. 인도네시아 군부와 민주주의

- 민주화(1998) 이전
  - Dwi Fungsi : 군은 국방·치안 기능수행뿐 아니라 국가 발전과 사회 안정을 위하여 정치사회 참여기능을 수행하는 '2중 기능' 보유
  - 육·해·공·경찰의 4군 체제
  - 군에 일정 수의 MPR 및 DPR 의원 할당, 투표권 제한
  - 국내정치뿐 아니라 경제, 사회 등 제반 분야에서 군이 선도적 역할 수행
- 수하르토 대통령 실각(1998.5) 후 민주화 조치
  - 국내정치에서 군부 배제, 국방 장관 포함 장관들 민간 정치인으로 교체
  - 1999년 4월 통합군에서 경찰 분리, 대통령 직속의 경찰청 신설
  - 군의 경제활동 및 개인 부업 금지법 제정(2004)
  - 군사장비 도입 결정 등 국방장관의 권한 강화를 통한 문민통치 추진

### 4. 최근 군사동향

- 유도요노 대통령 취임 후 군 내부 개혁 지속
  - 육군 중심의 군내 구조에서 3군 균형으로 변화
  - 통합사령관직을 육군 2회 해공군 1회 개념으로 순환 보직
- 외부 위협에 대응하는 현대적 개념의 군으로 발전 추구
  - 국가통합을 저해하는 내부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낙후된 군 무기체계를 현대전에 대비할 수 있는 전력으로 전환 추구
  - 말레이시아, 호주, 싱가포르와 잠재적 긴장관계로 이들 국가가 보유하는 무기체계가 인도네시아 군 무기체계 구입에 영향

- 매년 6%이상 경제성장 예상으로 국방예산 안정적 확보에 따라 자주국방 토대 마련 시도
  - 방위사업 자립도 향상을 위해 방산협력을 통한 공동개발, 공동생산 추구
  - 해외도입 시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 최소화를 위해 도입선 다변화

Part I

Part II

Part III

Part IV

Part V

Part VI

Part VII

Part VIII

Part IX

인도네시아 개황 · I N D O N E S I A

# V 경 제



〈 프람바난 힌두사원 〉

1. 분야별 동향 및 전망
2. 인도네시아 경제 관련 각종 통계 자료
3. 석유 및 천연가스 산업
4. 산림 자원
5. ICT 산업
6. 인프라
7. 최근 경제 동향



## 1. 분야별 동향 및 전망

### 가. 경제성장 : 높은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으나 2013년 들어 성장세 다소 둔화

- 인도네시아 경제는 인구에 기반한 거대 내수시장, 자원·에너지 개발 활성화, 외국인 투자의 지속 유입 등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성장 기조를 유지

\* GDP성장률 추이 : 6.2%(2012), 6.5%(2011), 6.1%(2010), 4.6%(2009), 6.0%(2008)

\* GDP 공헌도 : 내수 50% 이상, 투자 25% 내외, 수출 25% 내외

- 다만, 최근 들어 국제 자원가격 약세에 따른 수출 부진 장기화 및 해외투자 유입 증가세의 둔화로 인하여 실물경기의 성장속도가 다소 둔화되는 모습

\* 2013년 1/4분기에 6.0%, 2/4분기에 5.8% 성장하여 최근 3년이래 최저치 기록

\* 세계은행(World Bank) 연간 성장률 전망 하향 : 6.2%(3월전망) → 5.9%(6월전망)

### 나. 인플레이션 안정 : 인도네시아 경제의 최우선 과제로 대두

- 2011년 이래 안정된 모습을 보이던 물가가 최근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중앙은행의 관리목표 범위(4.5%~5.5%)를 초과, 2013년에는 8%대 인플레 전망

\* 최근 월별 소비자 물가 추이 : 5.5%(4월), 5.4%(5월), 5.9%(6월), 8.6%(7월)

- 보조금 석유류가격 인상, 전기료 인상, 최저임금 상승과 계절적 요인에 따른 식품류 가격 상승이 증첩되면서 인플레 기대심리가 촉발된 것이 주요 원인

- (보조금 석유류 가격인상) 휘발유가 리터당 4,500 루피아에서 6,500루피아로, 경유가 리터당 4,500 루피아에서 5,500 루피아로 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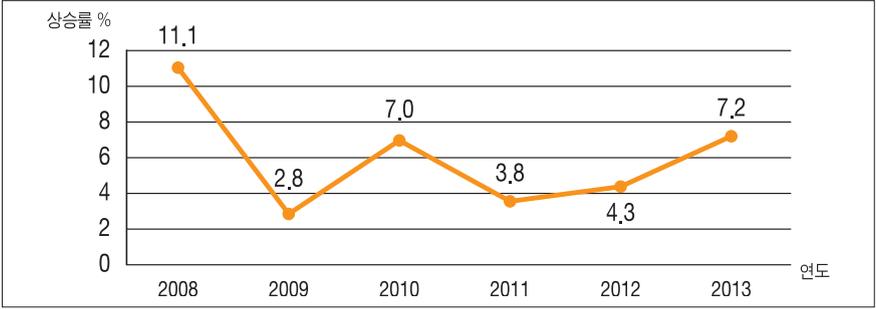
\* 중앙은행은 보조금 석유류 가격인상이 인플레에 미치는 영향을 연간 1.8%로 추정하고 있으며, 3개월 정도 지나면 예전 수준으로 복귀할 것으로 예측

- (전기료 인상) 매분기별 3~4% 인상으로 연간 총 15% 인상

- (최저임금 상승) 2013년 자카르타 최저임금이 전년대비 43% 상승

○ 소비자 물가 상승률

〈소비자물가 상승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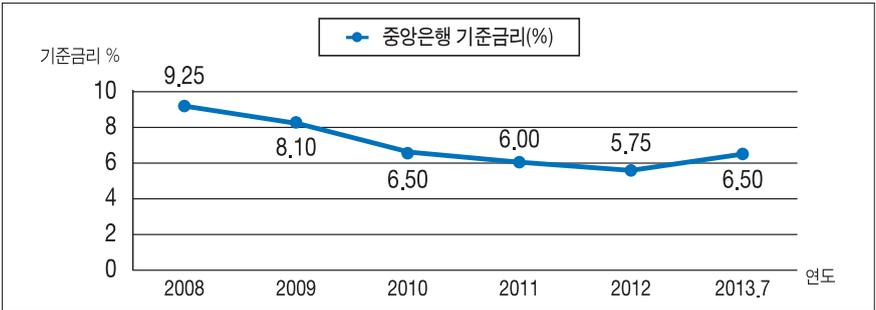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비전망)
소비자물가 상승률(%)	11.1	2.8	7.0	3.8	4.3	7.2%+

♣ 자료 : 인도네시아 통계청

○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 억제 및 외국인 자금의 유출 방지 등을 위해 15개월간 유지해 오던 5.75% 기준금리를 6월 6.00%, 7월 6.50%로 2개월 연속 인상

〈중앙은행 기준금리 변동 추이〉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7
중앙은행 기준금리(%)	9.25	8.10	6.50	6.00	5.75	6.50

♣ 자료 :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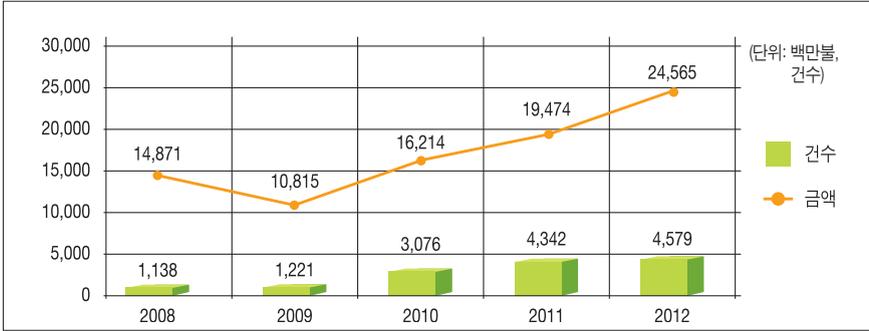
#### 다. 환율 : 루피아 가치 약세 지속

-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움직임(5월)으로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심화되면서 루피아 자산 매각, 달러대비 환율상승, 주식시장 약세 및 채권수익율 상승  
\* 5월-6월간 36억불의 자본유출 발생, 주식 시가총액 4% 하락, 국채수익율 150-200 bp 상승
- 루피아화 가치가 심리적 저항선으로 여겨지던 달러당 10,000Rp 밑으로 하락  
\* 달러당 루피아 환율 추이 : 9,722(4.30) → 9,802(5.31) → 9,929(6.28) → 10,270(7.29)
- 중앙은행의 외환시장 개입으로 외환보유고가 심리적 지지선인 1,000억 USD 미만으로 감소(6.13 현재 980억 USD)
- 경상수지 적자 확대 및 외국으로의 이자 배당 등 과실송금 수요로 인해 달러부족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 루피아는 당분간 약세를 보일 전망

#### 라. 투자

- 외국인투자(FDI)는 2012년 246억 달러로 전년도 195억 달러보다 26% 증가
- 국가별로는 싱가포르(49억불, 1위), 일본(25억불, 2위), 한국(20억불, 3위), 미국(12억불, 4위), 모리셔스(11억불, 5위) 순위

### 〈연도별 인도네시아 FDI 현황〉



(단위: 백만불)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건수	1,138	1,221	3,076	4,342	4,579
금액	14,871	10,815	16,214	19,474	24,565

◆ 자료 : 인도네시아 투자청

### 마. 수출입

- 2012년 총교역액은 3,817억불로 전년대비 0.21% 증가하였으나 수출은 1,900.6억불(6.6% 감소), 수입은 1,916.7억불(8.02% 증가)로 인도네시아 최초로 16.5억불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

\* 총교역 국가별 순위 : ①중국 ②일본 ③미국 ④싱가폴 ⑤태국 ⑥인도 ⑦한국

- 수출의 경우 전반적인 세계경기 침체로 원자재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인도네시아 주력수출품목인 에너지자원분야(특히 석유가스, 광물)의 수출 감소

\* 석유·가스, 팜, 고무, 석탄 등 에너지/자원 분야의 수출이 전체의 38.9% 차지

- 수입의 경우 국내 자동차 수요 및 소비, 투자 등의 증가로 인한 자본재, 중간재, 소비재 증가로 수입 증가

\* 수입에서 중간재는 73.1%, 자본재는 19.9%, 소비재는 7.0% 차지



## 바. 바이오 에너지 개발

### ○ 바이오 에너지 종류

- 바이오 에탄올(가솔린 대체에너지) : 타피오카, 사탕수수, 사탕무, 고구마, 옥수수
- 바이오 디젤(디젤유 대체에너지) : 팜오일, 유채, 피마자
- 바이오 가스(천연가스 대체에너지)

### ○ 인도네시아 팜오일 산업 동향

-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 팜오일 생산국으로 2012년 2,430만톤(135억 USD 규모)
- 인도네시아 농업부에 따르면, 팜오일 대상 가능 면적이 15백만 ha(칼리만탄, 수마트라, 파푸아, 자바섬 등지)로서 세계 최대의 잠재력 보유
- ※ 팜오일 재배가능지는 적도를 중심으로 위도 10도 내외지역
- ※ 단위면적 당 생산성(톤/ha/년): 팜오일(3.4-5톤), 대두유(0.3-0.5톤), 유채유(0.5-1.4톤)
- 원자재 생산기지인 팜오일 농장을 확보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대 인도네시아 관심과 투자 급증

### ○ 인도네시아 정부는 현재 바이오 디젤 및 에탄올 사용에 대한 관련법 제정을 추진 중이며, 2020년까지 전체 에너지 사용 중 바이오 에너지로 5% 충당을 목표

### ○ 우리 기업의 인도네시아 투자 동향

- 코린도 그룹은 지난 1998년 팜오일 농장에 투자, 2004년부터 CPO 가공 공장에서 팜오일을 생산, 판매 중이며, 향후 20만 ha(4억 불 규모)의 장기투자계획 추진 중
- 삼성물산, 삼탄, 대상, LG 등이 진출하여 총 12만ha 추진 중

### ○ 현재 인도네시아 바이오에너지 산업은 원자재 부족 및 식용유로서의 팜오일 수요증대 등으로 활성화 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

- 향후 수요정체, 공급량 증대시 대안으로서 바이오 에너지 산업 활성화 전망

## 2. 인도네시아 경제관련 각종 통계 자료

### 가. 주요 경제지표

구분		2010	2011	2012	비고	한국 (2012)
GDP	명목(억불)	6,588	8,468	9,282	한국(15위)에 이은 세계 16위 (IMF, 2012)	11,635 (IMF)
	1인당(불)	3,004	3,400	3,797	13년 4,000 돌파전망	23,679 (IMF)
경제성장률(%)		6.1	6.5	6.2	G20 국가 중 2위 고성장 (1위는 중국)	2.0% (BoK)
실업률(%)		7.1	6.5	6.1	하향 추세	3.2% (통계청)
물가상승률(%)		7.0	3.8	4.3	13년 8%대 전망	2.5% (BoK)
중앙은행 기준금리(%)		6.5	6.0	5.75	안정적, 최근 인상 추세	2.75% (BoK)
외환보유고(억불)		962	1,113	1,128	6개월치 수입, 단기외채 상환가능	3,269 (BoK)
달러당 환율		9,021	8,700	9,670	당분간 약세 전망	1,071 (BoK)
교역	수출(억불)	1,578	2,036	1,900	2012년 자원 수출 저조로 무역수지 적자 발생	5,478 (무역협회)
	수입(억불)	1,357	1,774	1,917		5,195 (무역협회)
	무역수지 (억불)	222	263	△17		283 (무역협회)
GDP 대비 재정적자(%)		0.7	1.2	1.5	재정 건전한 편	1.4% (기재부)

◆ 자료 : 인도네시아 재무부, 통계청, 투자청, 중앙은행, IMF 등 종합



## 나. 주요 교역 상대국 (2012년)

(단위 : 억 불)

순위	국가	총교역액	수출	수입
1	중국	498,3	208,6	289,6
2	일본	399,2	172,3	226,9
3	미국	260,6	145,9	114,7
4	싱가폴	212,1	105,6	106,5
5	태국	167,9	54,9	113,0
6	인도	164,6	124,5	40,2
7	한국	149,9	66,8	83,0
8	말레이시아	148,0	84,7	63,2
9	호주	84,5	33,7	50,8
10	대만	83,0	40,9	42,1
11	독일	72,5	30,7	41,8

♣ 자료 : 인도네시아 통계청\*

\* 인도네시아 통계청은 원유와 가스를 제외한 나머지 품목만으로 국가별 수출입 순위를 집계

### 3. 석유 및 천연가스 산업

#### 가. 석유 산업 현황

- 인도네시아는 44억 배럴의 석유매장량을 보유하고 세계 27위
  - 전 세계 매장량 1조 3천억 배럴의 0.3% 차지
- 석유생산량은 1.0백만 배럴/일로 세계 22위
  - 1위: 러시아(10.6백만배럴/일), 2위: 사우디(9.7백만 배럴/일), 3위: 미국(7.2백만 배럴/일)
  - 상위 10개사(1위: Chevron Pacific(미), 2위: Pertamina)가 인도네시아 국내 총생산량의 93% 생산
- 對인도네시아 외국인 투자의 축소 영향으로 석유생산 분야에 대한 투자 감소 및 석유탐사, 광구시설의 노후화를 초래, 1993년 이후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하락
- 2004년부터 석유 순수입국이 되었으며 2008년 OPEC에서 잠정 탈퇴

#### 나. 천연가스 산업 현황

- 가스매장량은 113조CF(cubic feet)로 세계 11위
  - 전 세계 매장량 6,534조CF의 1.7% 차지
- 가스생산량은 72억CF/일로 세계 10위
  - 1위:미국(593억CF/일), 2위:러시아(528억CF/일), 3위:캐나다(161억CF/일)
- 신규 가스전 발견 등으로 매장량이 증대, 석유보다는 상대적으로 지속적 생산량 유지(매년 0.1% 감소, 향후 57년 이상 생산)



#### 다. 광물자원 현황

- 인도네시아는 주요 광물자원이 풍부하게 매장된 나라로서 수출량 기준으로 석탄(1위), 주석(1위), 니켈(3위), 동(6위) 등이 풍부

### 4. 산림자원

#### 가. 현황

- 국토의 69%가 산림(131만km<sup>2</sup>)인 세계 2위 열대산림자원 보유국
  - ※ 산림총축적 : 139억m<sup>3</sup>(직경 53cm이상 상업목적 : 32억 m<sup>3</sup>)
- 일부 종족림을 제외한 전 산림이 국유림으로, 국영영림공사가 관리
  - 칼리만탄, 수마트라, 자바섬의 산림은 많이 벌채되었거나 진행 중에 있고, 파푸아주의 산림의 대부분이 미개발 상태
- 동남아 최대 목재산업국으로 고용인력 400만 명, 전체 수출액의 15% 점유
  - 연간 임목생산량이 수종과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ha당 10m<sup>3</sup>-20m<sup>3</sup>으로서 경쟁력이 매우 높음

#### 나. 산림분야 기후변화 대응 정책 현황

- 인도네시아는 2020년 BAU 기준 26% 탄소배출 감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산림부에서 이중 14% 감축할 계획으로 조림을 권장
- 2011년 5월, 천연림과 이탄지의 신규 개발을 2년간 중지하는 '산림개발모라토리엄'을 공포하였으며, 2013년 5월 동 모라토리엄을 2년 더 연장하는 대통령령을 공포

## 5. ICT 산업

### 가. 현황

- ICT 시장규모는 약 170억불로 국가경제에서 2.1% 비중을 차지(2012년 기준)
  - 통신 분야가 전체의 65%, 하드웨어(휴대폰, PC 등) 25%, 소프트웨어(IT 서비스 포함)가 10%를 차지
- ICT 시장은 연 15%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큼
  - 인터넷 가입자는 2012년 현재 63백만 명이며 매년 20%~30% 씩 성장하여 2015년 1억4천만 명이 될 것으로 전망
  - 모바일 가입자는 2억5천만 명으로 유선전화 8백만 명을 훨씬 능가하고, 규모로는 중국, 인도, 미국 다음임
  - Facebook 가입자는 64백만 명으로 세계 5위, Twitter 가입자도 세계 3위 수준이며 꾸준히 증가 추세
- 분야별 시장 현황
  - (이동통신) 국영 Telcomsel과 Indosat XL 사가 90% 이상 점유하고 있으며, 아직 3G 서비스중이고 4G LTE에 대한 구체적 계획은 없음
  - (HW) 통신업체의 서비스 확대에 따라 무선 데이터 송수신 장비 수요 증가, 핸드폰은 노키아, 컴퓨터는 Acer가 점유율 각각 1위인데, 노키아는 피쳐폰 중심이라 점차 감소 추세이며, 점유율 2위인 삼성이 스마트폰 중심으로 점유율 증가
  - (SW 및 IT서비스) 외국계 SW가 전체의 80% 이상을 점유(MS가 현지 1위)하고 있으며, 최근 통신, 금융, 공공, 미디어 쪽에서 IT 서비스 및 SW 수요가 증가 추세



## 나. 우리 기업 진출 현황

- (H/W) 우리기업은 과거 기본적인 통신장비 판매에서 시작, 최근 스마트폰 및 테블릿 PC 등 모바일기기 판매가 급속도로 증가
  - 삼성의 경우 모바일기기 판매량이 월 100만대(1억불, 금액기준 1위) 수준이며, 매년 50%이상 증가
  - 최근 통신장비 분야도 수출이 회복 중
- (S/W 및 IT서비스) IT서비스 시장 확대(매년 18%)에 따라, SI(System Integration), 콘텐츠 서비스, 온라인게임 등에서 한국 기업 진출 증가
  - 스마트폰 메신저 서비스의 경우, 네이버의 라인인 인도네시아 내 1위이며, 카카오톡이 최근 진출 중국계 위챗과 함께 3사 경쟁 가열
  - 온라인게임의 경우, 운영 중인 30개 중 65%인 19개가 한국 게임
  - 전자정부는 국가재정, 특허시스템 등을 중심으로 1억5천만불 수출
- 주요 진출 기업 현황
  - 대기업 : 삼성전자, LG 전자, SK 텔레콤
  - SI 기업 : LG CNS, 삼성 SDS, 마크애니, 나이스신용정보
  - 온라인게임 : PT KREYON, 오렌지 게임
  - 이동통신 협력업체(CP) : Access Mobile, ID BELL
  - E-러닝업체 : 이투스플러스에듀테인먼트
  - 포털 사이트 운영업체 : Iyaa 닷컴, 볼레넷
  - E-Commerce : D마켓, GS 쇼핑, Lejel, Qoo10(큐텐)

## 6. 인프라

### 가. 현황

- 전반적 인프라 경쟁력\*은 조사대상 133개 국가 중 96위로 아시아 주요 개도국인 태국(41위), 말레이시아(27위), 중국(66위)보다 저조

\* 2010년도 국제경쟁력 보고서(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 인도네시아 기업은 열악한 인프라 사정으로 기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으며, 산업구조 고도화의 성패는 인프라 확충 여부에 달려 있다고 평가
  - 세계 평균 7~10%에 비해 인도네시아기업은 제품 가격의 27%를 물류비용으로 지불해 기업 활동의 최대 장애로 평가(동부 자바 화물운송협회의 회장 Windana)

〈인도네시아와 동남아 주요국의 수송인프라 수준비교(2009년 기준)〉

구분		단위	인도네시아	베트남	말레이시아	태국
항공	등록항공기 출발편수(국제선)	대	330,112	83,720	182,002	123,541
	총 수송량(화물)	백만톤	276.9	311.5	2,853.3	2,132.6
	총 수송량(여객)	천명	27,421.2	11,073.6	23,766.3	19,618.7
도로	총 길이	KM	437,759	287,699	123,021	51,655
	포장도로 길이	KM	258,744	153,771	98,368	50,589
	도로포장률	%	59.1	53.4	80.0	97.9
철도	길이	KM	3,370	2,347	1,665	4,429
해운	총 수송량(화물)	백만톤	4,390	3,807	1,384	3,161
	총 수송량(여객)	백만명	14,344	4,129	1,527	8,037

♣ 자료 : World Bank와 ASEAN Secretariat(2011)을 참고로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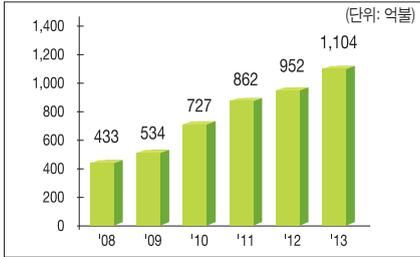


## 나. 시장 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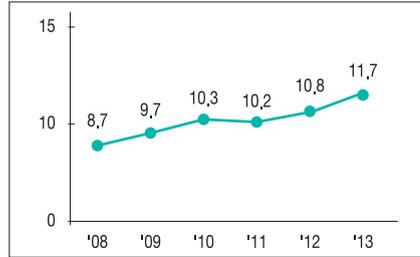
- '11년 5월 중장기 경제개발 마스터플랜(MP3EI) 발표
  - 세계 10대 경제대국 진입을 목표로 인프라개발 등에 '25년까지 총 4,500억불 투자를 목표
  - 총 4,500억불 중 정부재원은 약 10% 수준으로 나머지는 민간 투자유치를 통하여 조달 예정이며 정부는 투자촉진을 위해 조세감축, 보증지원 등 다양한 재정 인센티브 제공
  -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40여개의 법개정 완료, 10여개 법 개정을 추진중이며, 특히 '12년 8월 토지수용법을 개정하여 인프라 개발 용도의 부지매입 문제 해소 노력 중
  - '13년에는 총 143억불에 이르는 82건의 인프라 및 민간개발사업 착공을 목표로 설정
  
- '13년 건설시장규모는 전년대비 16% 증가한 1,100억불 내의 전망
  - 건설부문 성장률은 '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연 7%이상의 성장률 기록, 투자환경 개선 및 자원개발 등의 성장 동력이 충분하여 향후 연 7%대 이상의 성장률 유지 가능
  - 외국인 투자 급증으로 자카르타를 중심으로 한 주요 도시의 주택 및 사무실 수요 대폭 증가, 교통체증 해소 및 시내연결 도로망 개선 등의 목적으로 도로 및 철도사업 추진 지속
  - 자카르타의 사무실 공실율은 9% 미만으로 '09년 대비 90%가까이 임차료 상승, 개발사들의 투자가 지속되면서 건설부문 성장률에 기여 예상
  - 석유 및 가스, 전력 등 에너지관련 사업에 국내의 투자가 활기를 띄고 있으며 관련 프로젝트 발주 지속 전망

\* 국영전력회사(PLN)는 '11~'14까지 160억불 규모의 Fast-Track Program Phase2 추진중, PLN은 자체적으로 76억불 투자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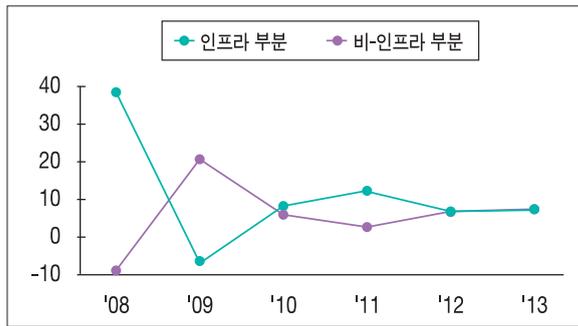
### 〈건설시장규모 및 성장률〉



[건설시장규모 (단위: 억불)]



[건설 / GDP 비중(%)]



[인프라 성장률(%)]

구분		'08	'09	'10	'11	'12	'13
건설시장규모	억불	433	534	727	862	952	1,104
	성장률(%)	7.6	7.1	7.0	6.7	7.3	8.4
건설 / GDP	비중(%)	8.7	9.7	10.3	10.2	10.8	11.7
인프라 부문 (전체의 45%)	성장률(%)	39.6	-6.4	9.0	12.5	7.3	8.2
비인프라 부문 (전체의 55%)	성장률(%)	-9.2	20.7	6.5	3.2	7.2	8.5

♣ 자료 : 인도네시아 통계청(BPS), ADB, BMI(Business Monitor International)



## 7. 최근 경제동향

- 인도네시아 경제는 중산층 증가에 따른 내수와 활발한 해외투자 유입, 풍부한 자원을 기반으로 최근 3년간 6%대의 고성장 지속
- 특히 2012년에는 세계적인 경제 불황속에서도 6.2% 성장하여 G-20국가 중 중국을 제외한 가장 높은 성장률을 달성하는 저력을 보임
  - 2012년도 McKinsey 보고서는 인도네시아 경제가 주요 도전 요인들을 극복할 경우 2030년에 독일과 영국을 초월하여 세계 7위의 경제대국이 될 것으로 전망
- 2013년 들어 인도네시아 경제는 높은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아래 요인들로 인해 경제성장이 다소 둔화(6%대→5%대) 되는 모습
  - 버냉키 미국 FRB 의장의 양적완화 축소 가능성 언급 이후 급격한 환율변동 (루피아화 가치가 심리적 지지선이던 달러당 10,000RP 아래로 하락)
  - 최근 보조금 석유 가격인상과 이에 따른 인플레이(시장은 8%대 전망)
  - 국제 원자재 가격(석탄 등) 약세에 따른 수출 부진
  - 경제성장을 주도하던 외국인 투자의 증가세 둔화 및 소비심리 위축
  - 생산성 증가를 넘어서는 급격한 임금 인상

# VI

## 사회 · 문화 · 교육



〈 자카르타 시내 야경 〉

1. 국민성
2. 문화 및 관습
3. 언론
4. 교육



## 1. 국민성

### 가. 공통적 국민성

- 열대성 기후와 풍요로운 식생활 자원, 광활한 영토 등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온순하고 여유가 있음.
- 대체적으로 인도네시아인은 대국 기질을 갖고 있으며 가부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고 매사를 긍정적으로 말하여 결과가 다른 경우가 종종 있음.
- 이슬람 사회의 경우 여성의 사회 참여가 극히 제한되어 있으나, 인도네시아는 비교적 개방된 이슬람 사회로서 여성의 사회 참여가 보장되어 있고 경제발전예 따라 사회진출이 더욱 활발함.
- 고성으로 질책 당함을 싫어하고 소리 지르는 사람을 이상스럽게 생각함.

### 나. 지역별 특성

- 대통령을 비롯하여 사회지도층 인사를 가장 많이 배출한 자바인은 전체인구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상대를 존중하면서 감정 없는 표현과 사려 깊은 판단을 하는 것이 특징
  - 자바인은 서로 다투는 일이 드물며, 모든 문제를 서로 협의하고 상부상조의 정신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
- 수마트라인은 다소 직선적이고 거칠어 보이거나 사궤수룩 관계가 깊어지는 것이 특징
  - 군부, 법조계, 종교계, 학계에 주로 진출해 있고 과격한 인사가 많으며, 한국인과 비슷하게 매운 음식을 선호
- 파푸아인은 사회지도층이 적으며 경제적 기반도 취약하나 최근 강인한 체력을 인정받아 체육선수로 선발

## 2. 문화 및 관습

### 가. 문 화

- 인도네시아는 중국, 인도, 미국에 이어 세계 4위(2억3,760만)의 인구 대국이며, 300여 종족이 사용하는 언어도 600여 종에 이르고 종족별로 상이한 문화와 전통 유지
  - 이와 같은 여건에서 인도네시아 표준어인 바하사 인도네시아(Bahasa Indonesia)는 인도네시아 국민의 사회통합 유지에 크게 기여
  - 바하사 인도네시아는 2-13세기경에 이르기까지 남부 수마트라지역의 팔렘방을 중심으로 번성한 스리위자야 왕국의 상인들 간에 사용되었던 말레이어의 원조격인 플라유어(Melayu)가 유래
- 인도네시아 국민의 약 87%를 차지하고 있는 이슬람교가 사회 생활문화의 저변을 이루고 있는데, 최근 무슬림과 기독교 간의 종교적 충돌 사례가 늘고 있어 사회적 우려 유발
- 인도네시아 회화의 역사는 매우 오래되어, 약 5천 년 이상 된 것으로 추정되는 인간과 동물의 형상을 그린 동굴벽화가 남부 술라웨시, 파푸아 등에서 발견되었으며, AD 100년경의 천연색 그림이 남부 수마트라 등의 대규모 고분의 내벽에서 발견
  - 밀납을 이용한 염색인 ‘바틱’(Batik)은 일종의 회화로서 현재는 중부 자바의 족자지역과 빌리 지역이 유명
  - 발리풍 회화는 짝 찬 공간을 활용하여 힌두 설화 및 전설 등을 소재로 시·공·구도를 초월한 기법으로 그려 그 독자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1930년대부터는 서구의 양화기법의 영향으로 색·구도 개념을 도입
- ‘와양’(Wayang)이라는 꼭두각시 인형극은 힌두 신화 및 설화 등 전래 민속내용을 소재로 하여 달랑(Dalang)이라는 변사가 가죽, 나무, 바틱으로 만든



꼭두각시 인형을 무대 뒤에서 조종하며 표현하는 전통 연극으로, 주로 자바에서 인기가 높으며 최근에는 현 사회상황을 은유적으로 풍자하는 인형극을 공연

## 나. 사회관습

- 악수나 물건을 주고 받을 때 오른손 또는 두 손을 모두 사용하며, 왼손 사용은 불경한 것으로 여김.
- 지방의 경우 노인 및 어린이들은 통상 낮(오후 2시-4시)에 휴식을 취함.
- 땀을 흘리는 일이 많으므로 기상 시와 취침 전에 반드시 목욕을 함.
- 머리는 영혼을 담은 곳이라고 생각하여 어린아이이라도 머리를 만지지 않음.
- 술에 취한 사람을 매우 싫어함.

## 다. 근무시간

- 관 공 서 : 08:00 - 16:00 (월-금)
- 민간기업 : 08:00 - 17:00 (월-금)

# 3. 언론

## 가. 언론 정책

- 1998년 5월 수하르토 대통령의 하야 이후 언론 및 표현의 자유가 급격히 신장되었고 와히드 대통령 재직 시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공보부가 폐지되어 현재는 언론정책을 담당하는 정부부처는 없고, 인도네시아 기자협회에서 언론제도를 자율적으로 관장

- 방송·통신의 설립 허가 등은 정보통신부에서 관장
- 외신의 경우 외교부 내 공보국에서 상주 및 취재 허가 업무 담당

○ 광활한 영토와 방송·통신 인프라 부족으로 전국지나 전국방송이 제한

## 나. 언론 현황

○ 일간지 : 전국적으로 중앙일간지 약 50여종, 지방일간지 약 170종 등 총 220여종의 일간지가 발행 중

※ 주요 중앙일간지

일 간 지 명	발행부수	비 고
- 콤포스 (Kompas)	53만	주간
- 스포트라 인도네시아 (Seputar Indonesia)	35만	주간
- 미디어 인도네시아 (Media Indonesia)	27만	주간
- 수아라 머르데카 (Suara Merdeka)	20만	주간
- 레뿌블리카 (Republika)	15만	주간
- 수아라 뱌비루안 (Suara Pembaruan)	15만	석간
- 꼬란 템뵤 (Koran Tempo)	15만	주간
- 브리따 부아누 (Berita Buanu)	15만	주간
- 삐끼란 라깿 (Pikiran Rakyat)	15만	주간
- 시나르 하라판 (Sinar Harapan)	10만	석간
- 비즈니스 인도네시아 (Bisnis Indonesia)	8만	주간, 경제지
- 쏬땀 (Kontan)	7.5만	주간(Kompas 자매지)
- 주르날 나시오날 (Jurnal Nasional)	5만	주간
- The Jakarta Post	5만	주간, 영자지
- Jakarta Globe	4.5만	주간, 영자지

○ 주간·격주간, 월간지 : 전국적으로 총 약 570종 발간

- 템뵤(TEMPO) : 인도네시아어판 12만부, 영어판 5만부 발행
- 가뜨라(GATRA) : 인도네시아어판 10만 5천부 발행



○ 텔레비전(PAL 방식): 1공영 다민영 TV방송 체제

- 공영방송

- TVRI : 1962년 설립된 유일한 공영방송으로 인도네시아 내 최다지역에서 시청 가능

- 민영방송 (11개의 민영 채널과 54개의 지역방송 채널)

- RCTI : 최대 민영방송
- SCTV : 종합편성 채널
- MNCTV : 교육 프로그램 위주의 편성에서 리얼리티, 예능 프로그램으로 방송 영역 확대
- ANTV : 음악 및 쇼 프로그램 채널
- Indosiar : 연예 및 쇼 프로그램 채널
- MetroTV : 뉴스 전문채널
- TransTV : 종합편성 채널
- TVone : 종합편성 채널
- Trans7 : 종합편성 채널
- GlobalTV : 종합편성 채널 및 음악방송(M-TV) 특화
- O Channel : 연예 및 쇼프로그램, SCTV 계열사
- ※ 기타 JakTV(자카르타 일원 시청), Bali TV(발리 일원 시청), Pacific TV (머나도 일원 시청) 등 다수의 지역 채널 존재

○ 라디오

- 4개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국영 RRI 방송국 외에 지방자치단체 운영 또는 민영 라디오 방송국이 약 3000여 개 존재하나 전국 방송 라디오 채널은 소수

- 주요 전국 방송 라디오 채널

- RRI Pro I : 91.2 MHz
- RRI Pro II : 105.0 MHz
- RRI Pro III : 88.8 MHz
- RRI Pro IV : 92.8 MHz
- Radio Elshinta : 90.0 MHz

## ○ 통신사

- 국영 Antara 통신 : AFP, 로이터, UPI 등 세계 각국 통신사와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한국의 연합뉴스 및 북한의 중앙통신과 동시에 뉴스공급 계약 체결

## ○ 기타

- detik.com, vivanews 등 인터넷 포털과 주요 언론의 인터넷판 증가 추세

## 4. 교육

### 가. 개요

- 인도네시아는 6-3-3-4년제의 학제 실시
- 1994년부터 9학년(초등학교, 중학교) 의무교육제 채택
  -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는 학비면에서 크게 차이가 있음.

### 나. 교육제도

학 교	기 간	졸업제도	학 점	비 고
초등학교(SD)	6년			일반, 종교학교
중등학교(SMP)	3년			일반, 종교학교
고등학교(SMA)	3년			일반, 종교학교, 실업고교
전문대/대학 (Institut/Universitas)	전문대(Diploma)	학 점/졸업시험	114-120	1년, 2년 또는 3년 과정 별도 운용
	대학학부과정 8~10학기(S1)	논 문/졸업시험	144-160	학 사
	대학석사과정 4학기(S2)	논 문	46	석 사
	대학박사과정(S3)	논 문		박 사



#### 다. 고등교육 현황

- 2012년 기준 대학·전문대학 등 국공립 고등교육기관은 총 105개(4년제 대학은 48개), 사립 고등교육기관은 총 2,892개(4년제 대학은 393개)
- 2012년 전국 고등교육기관 재학생은 약 480만 명이며, 신입생은 약 10만 명
- 2013년 기준 중등교육기관에서 대학·전문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으로의 진학률은 50%이며, 2013년 인도네시아 대학 입학 시험에 77만 7천명이 응시
  - 2004년 현 정부 출범 당시 동 연령층의 대학진학률은 14.2%

# VII

## 우리나라와의 관계



〈울룬 다누 브라만 사원〉

1. 기본관계
2. 정무관계
3. 경제 · 통상 관계
4. 분야별 양자협력
5. 문화 · 인적교류
6. 영사 · 교민 관계



## 1. 기본관계

- 1949.12 아국, 인도네시아 승인
- 1966. 8 영사관계 수립
- 1966.12 주자카르타 총영사관 개설
- 1968.6 주서울 총영사관 개설
- 1973. 9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

## 2. 정무관계

### 가. 정상간 교류

한국 방문		인도네시아 방문	
1982.10	수하르토 대통령 방한	1981. 6	전두환 대통령 방문
2000. 2	와히드 대통령 국민방한	1988.11	노태우 대통령 방문
2002. 3	메가와티 대통령 국민방한 (남북한 동시 방문)	1994.11	김영삼 대통령 국민방문 (APEC 정상회의, 보고르)
2005.11	유도요노 대통령 방한 (APEC 정상회의, 부산)	2000.11	김대중 대통령 국민방문
2007. 7	유도요노 대통령 국민방한	2003.10	노무현 대통령 방문 (ASEAN+3 정상회의, 발리)
2009. 6	유도요노 대통령 방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제주도)	2006.12	노무현 대통령 국민방문
2010.11	유도요노 대통령 방한 (G-20 정상회의, 서울)	2009. 3	이명박 대통령 국민방문
2012. 3	유도요노 대통령 국민방문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2010.12	이명박·유도요노 대통령 정상회담 (발리 민주주의포럼)
		2011.11	이명박·유도요노 대통령 정상회담 (ASEAN+3 정상회의, 발리)

		2012.11	이명박·유도요노 대통령 정상회담 (발리 민주주의포럼)
<b>국제회의의 계기 정상간 교류</b>			
1992. 9	노태우·수하르토 대통령 정상회담(뉴욕)		
1993.11	제1차 APEC 정상회의 참석(시애틀)		
1999.11	김대중·와히드 대통령 정상회담(ASEAN+3 정상회의, 마닐라)		
2004.11	노무현·유도요노 대통령 정상회담(ASEAN+3 정상회의, 비엔티엔)		
2008. 7	이명박·유도요노 대통령 정상회담(G-8 확대정상회의, 도야코)		
2010.10	이명박·유도요노 대통령 정상회담(하노이, ASEAN+3 정상회의)		

## 나. 인도네시아의 한반도정책

### 1) 대 한국 관계

- 한국을 인도네시아 경제발전의 모델로 인식, 양국 경제협력 증진에 관심 다대
- 2006.12월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 UN, APEC, ASEAN, ASEM 등 국제기구에서 협조적 태도 견지

### 2) 대 북한 관계

- 비동맹 회원국으로서의 북한입장을 의식, 대남북한 균형 기조 유지
- 북한과 전통적인 우호관계국이나, 실질적 협력관계는 미미

## 다. 양국간 정기 고위급 협의회

- 외교장관 공동위(외교부) : 2006. 6(1차, 서울)
- 군사정보교류회의(국방부) : 2009. 4(29차, 자카르타)



- 외교부간 정책기획협의(외교부) : 2010. 6(3차, 발리)  
※ 1차는 2008.11월 자카르타, 2차는 2009.10월 서울 개최
- 한· 인도네시아 국방장관회담 및 방산협력위(차관급) 설립 MOU 체결(국방부)  
: 2011. 9(1차, 자카르타)
- 유무상 통합 ODA 정책협의회 : 2013. 6(1차, 자카르타)
- 방위산업 협력위(차관급) : 2013.6(2차, 자카르타)
- 임업위원회(각료급) : 2013. 7(21차, 자카르타)

### 3. 경제 · 통상 관계

#### 가. 양국 경험관계 교류 현황

- 제4차 한· 인도네시아 민관합동 경제협력실무 T/F 개최 (2012.6월, 자카르타)
  - 민관 대표단(우리 산업부 차관보 및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 차관) 참석하여 8개분야 W/G 회의 개최
- 제6차 에너지 포럼 개최(2012.4월, 발리)
  - 석유·가스, 석탄·광물, 전력·신재생 에너지 4개 분야별로 양국간 에너지자원 협력 프로젝트 발굴 및 기술·정보 공유
- 자카르타 세계일류상품전 개최(2012.6.26-8, 자카르타)
  - 70개의 한국 기업이 방문하여 활발한 수출 상담회 개최
- 제7차 한· 인도네시아 산림포럼 개최(2013. 7월, 자카르타)
  - 매년 개최되는 민·관·학계가 함께 참여하는 회의로 목재산업 및 바이오매스 조림 관련 진출업계 애로사항 해결, 산림휴양 및 생태관광 협력 및 GIS 분야 협력 추진

## 나. 한·인도네시아 CEPA 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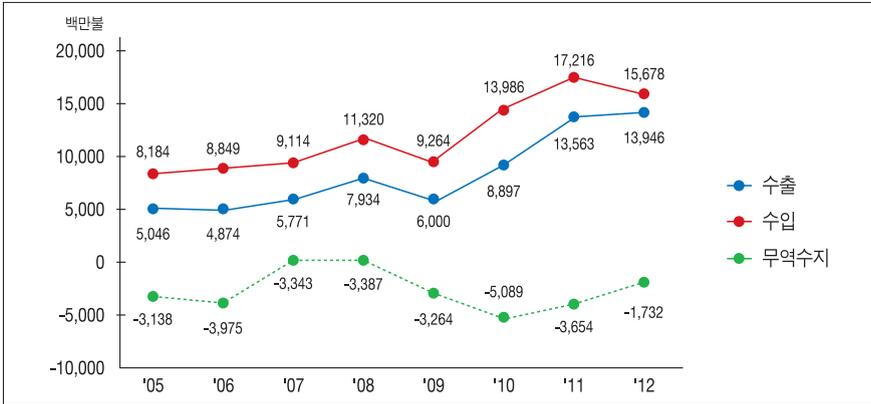
- 2011.2월 인도네시아 특사단 방한시 양자간 FTA 추진 필요성에 공감하여 2011.5월~10월간 타당성에 관한 공동연구 수행
  - 상품·서비스무역·투자 장벽 철폐 및 완화, 무역원활화, 경제협력을 포괄하는 양자 협정을 추진
- 2012.3월 핵안보 정상회의 계기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시 합의에 따라 2012.7월 제1차 협상(자카르타)이 출범
  - 2012.12월 제2차 협상(자카르타)에서 TOR에 합의하고 2013.5월 제3차 협상(부산), 7월 제4차 협상(발리) 개최

## 다. 교역 현황(2012년 기준, 우리관세청 집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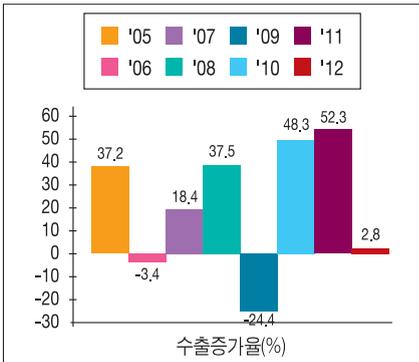
- 양국간 교역규모는 2004년 100억불을 돌파하였고, 2012년에는 2011년 대비 5.5% 감소한 296.2억불 기록(우리나라가 17억불 적자)
  - 한국은 인도네시아의 제7위 교역국이며,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제8위의 교역국임
  - 인도네시아는 ASEAN 국가 중 우리나라의 두 번째로 큰 교역 파트너 (싱가포르 1위)
- ※ 한국의 對ASEAN 교역규모는 2012 기준 1,312.2억불(수출 : 792.4억불, 수입 : 519.8억불)로 전체 국가 중 제2의 교역국(중국 23.6, ASEAN 14, 미국 10.9, EU 9.3, 일본 7.1)으로 최근 4년째 수출 비중 확대
- 한국의 대 인도네시아 수출은 139.5억불(2.8%증가), 수입은 156.8억불(8.9% 감소), 무역수지는 다소 개선(11년 37억불 → 12년 17억불)
  - 수출은 경유, 휘발유, 편직물, 열연/냉연강판, 합성고무 등 5대 품목이 對인도네시아 수출의 48.3% 차지
  - 수입은 LNG, 유연탄, 원유, 천연고무, 동광 등 5대 품목이 對인도네시아 수입의 71.1%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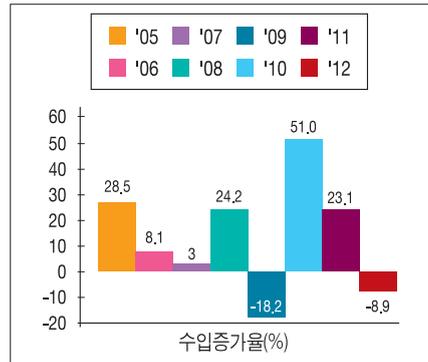
(한 · 인도네시아 연도별 무역 현황)



♣ 자료 : 관세청



♣ 자료 : 관세청



♣ 자료 : 관세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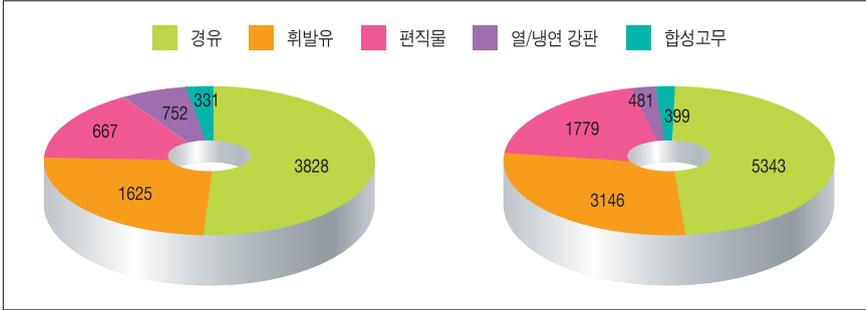
(단위 : 백만불, 전년 대비 %)

구분		'05	'06	'07	'08	'09	'10	'11	'12
수출	금액	5,046	4,874	5,771	7,934	6,000	8,897	13,563	13,946
	증가율	37.2	-3.4	18.4	37.5	-24.4	48.3	52.3	2.8
수입	금액	8,184	8,849	9,114	11,320	9,264	13,986	17,216	15,678
	증가율	28.5	8.1	3.0	24.2	-18.2	51.0	23.1	-8.9
무역수지		-3,138	-3,975	-3,343	-3,387	-3,264	-5,089	-3,654	-1,732

♣ 자료 : 관세청

〈한·인도네시아 5대 주요 품목별 교역현황〉

(단위: 백만불)



♣ 자료 : 관세청

(단위: 백만불, 전년 대비 %)

순위	수출('12년)			수입('12년)		
	품목명	금액	증가율	품목명	금액	증가율
1	경유	3,828	-19.4	LNG	5,343	0.8
2	휘발유	1,625	-2.7	유연탄	3,146	-9.3
3	편직물	667	-6.5	원유	1,779	-23.2
4	열/냉연 강판	752	2.8	천연고무	481	-21.3
5	합성고무	331	-11.0	동광	399	-55.8
	소계	7,203		소계	11,148	
	총계	13,946	2.8	총계	15,678	-8.9

♣ 자료 : 관세청



## 라. 투자 현황

- 인도네시아는 미국, 중국, 홍콩, 베트남, 호주, 캐나다에 이어 우리나라의 제7위 투자대상국(수출입은행, '12년 누계, 신고 기준)이며, 한국은 인도네시아의 제3위의 투자대상국(인도네시아통계청, 12년, 투자 기준)
  -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국가 중 우리나라의 두 번째 투자 대상국(1위: 베트남)
- 2012년 현재까지의 한국의 對인도네시아 투자는 총 4,253건, 106.5억불('12년 누계, 신고 기준)으로 '12년은 19.5억불 기록
  - 인도네시아의 對한국 투자는 총 115건, 9.6억불('12년 누계, 신고 기준)로, '12년은 9건 68.3백만불 기록
- 업종별로는 한국의 對인도네시아 투자는 제조업이 전체 투자의 56.9%를 차지하며, 광업 22.0%, 도소매업 4.6%, 부동산업 2.1% 순으로 구성
  - 1990년대는 제조업 중 노동 집약적 산업 투자가 주를 이루었으나, 1990년대 중반 이후 철강, 자동차, 전자, 건설 등으로 다양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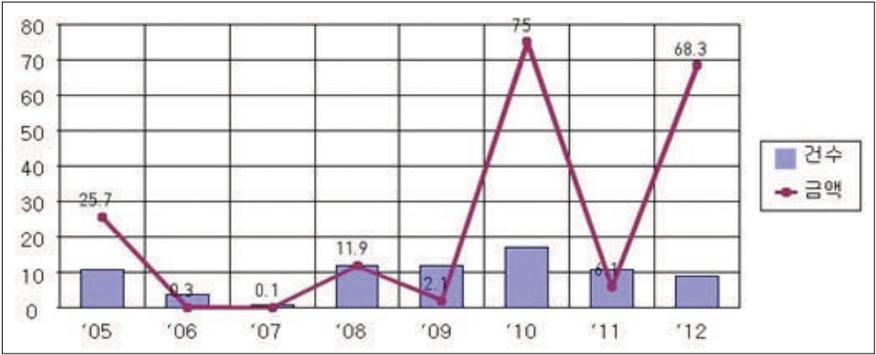
〈한· 인도네시아 연도별 투자 현황(신고기준)〉

(단위: 백만불, 건)



◆ 對인도네시아 투자, 자료 : 수출입은행

(단위: 백만불, 건)



◆ 對한국 투자, 자료 : 수출입은행

(단위 : 백만불, 건)

구분		'05	'06	'07	'08	'09	'10	'11	'12	누계*
對 인도네시 아투자	금액	137	276	619	658	527	1,793	1,333	1,950	10,654
	건수	175	278	127	138	312	331	440	314	4,253
對 한국투자	금액	25.7	0.3	0.1	11.9	2.1	752.1	6.1	68.3	957.0
	건수	11	4	1	12	12	17	11	9	1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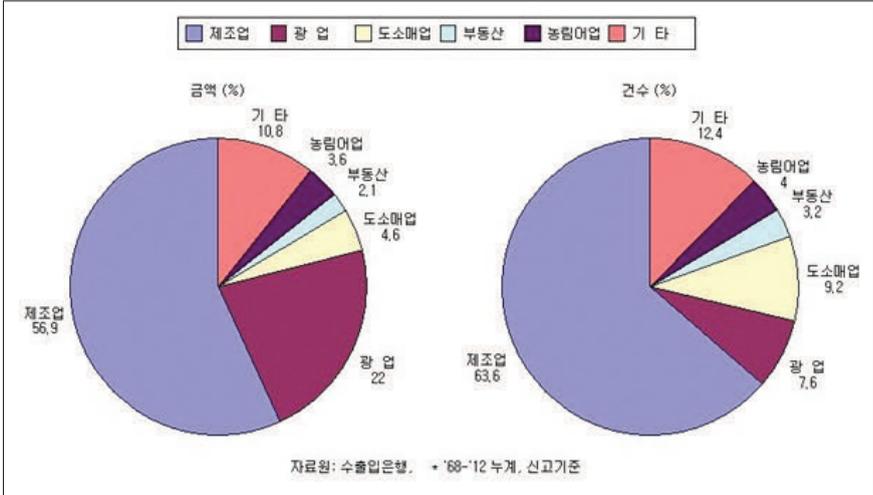
◆ 자료 : 수출입은행,

◆ 누계 : 對인도네시아 투자 ('68-'12), 對한국 투자 ('62-'12)



### 〈업종별 對인도네시아 투자 현황〉

(단위: 백만불, 건)



◆ 자료: 수출입은행

(단위: 백만불, 건)

구분	제조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	농림어업	기타	총계
금액	6,064	2,344	485	223	387	1,151	10,654
건수	2,704	325	394	134	170	526	4,253

◆ 자료: 수출입은행

◆ '68-'12 누계, 신고기준

## 4. 분야별 양자협력

### 가. 개발협력: 인도네시아는 우리의 ODA 중점 지원대상국

#### 1)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체결

- 인도네시아 개발계획의 성공적 이행에 협력하기 위해 양국간 협의하에 ODA 협력 중점분야를 반영한 CPS를 2012년 체결
  - 공공행정, 경제 인프라, 환경·자원관리를 중점협력분야로 선정

#### 2) EDCF 지원 현황 및 계획

- 지원실적(1987-2012년) : 총 18건, 534.5백만불

	사업명	승인시기	승인액		집행액	추진단계
			백만원	백만불	백만원	
1	파당시 우회도로 건설사업	'87.12	9,839	13.0	9,774	원리금 회수
2	이동식 직업훈련사업	'91.9	18,181	25.0	16,994	원리금 회수
3	생견사제조 해투사업	'92.6	978	1.3	978	종료
4	실업교육 개선사업	'94.2	8,111	10.0	7,098	원리금 회수
5	마나도 우회도로 건설사업	'95.12	13,318	10.0	13,203	원리금 회수
6	칼리만탄 병원개선사업	'97.9	27,534	30.0	27,367	원리금 회수
7	병원폐수처리시설 확충사업	'99.12	45,336	40.0	44,913	원리금 회수
8	동자바 지방병원 개선사업	'00.7	34,369	30.0	32,902	원리금 회수
9	국가범죄정보센터 개발사업	'04.6	19,438	20.2	19,312	원리금 회수
10	종합병원 개선사업	'05.12	27,500	24.0	21,892	지출중
11	마나도 우회도로 건설사업(2차)	'06.7	19,094	16.0	5,212	지출중
12	바탐 전자정부 구축사업	'06.9	14,747	16.0	14,124	원리금 회수
13	국가정보통신교육원 건립사업	'06.11	19,362	21.0	19,103	원리금 회수



	사업명	승인시기	승인액		집행액	추진단계
			백만원	백만불	백만원	
14	아담말릭병원 개선사업	'08.11	34,945	30.0	20,604	지출중
15	파당시 우회도로 확장사업	'09.12	67,560	58.0	616	구매
16	경찰청 무선통신망 구축사업	'10.12	46,593	40.0	-	구매
17	카리안담 건설사업	'10.12	116,483	100.0	1,073	구매
18	비탐 하수처리시설 구축사업	'13.5	56,700	50.0	-	L/A체결
총 18건			580,088	534.5	255,165	

○ 2010 ~ 2013년간 총 6억불의 EDCF 지원 약속을 2015년까지 연장 예정

- 2015년까지 지원 후보사업(4억불) : 경찰청 고속순시선 사업, 국가범죄정보 센터 개발사업, 2차 항로표지시설 개선 사업, 반동지역 댐 및 수로공사 사업, 서부지역 농업관개시설 개선사업, 라우시메메 다목적댐 건설사업, 북 술라웨시 전자정부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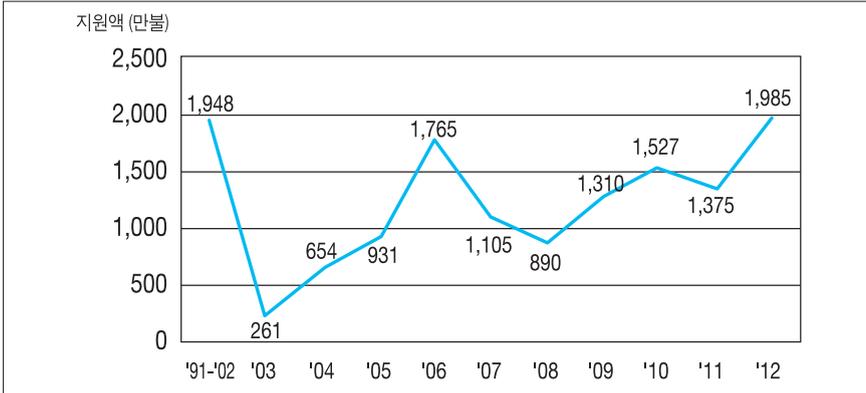
3) 무상원조

○ 지원 실적

- 1991-2012년간 총 1.3억불 지원
- 2004년 12월 쓰나미 발생 이후 재난복구지원 예산 증대, 경제협력 확대, 프로젝트 사업 등으로 인해 최근 지원액 급증
- 프로젝트 사업, 국별연수, 봉사단 파견, NGO 지원 등 사업 추진(2012년에는 16개 프로젝트, 13개 국별연수사업 등에 1,982.5만불 지원)

※ 무상원조 지원현황 ▷ 1991-2012년간 총 13,748만불 지원

(단위: 백만불, 건)



♣ 자료 : KOICA

(단위 : 만불)

연도	'91-'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잠정)	계
지원액	1,948	261	654	931	1,765	1,105	890	1,310	1,527	1,375	1,982	13,748

♣ 자료 : KOICA



○ 2013년 지원 계획

- 공공행정 역량강화, 경제인프라 확충, 지속가능한 성장 지원 분야를 중심으로  
1,584.4만불 지원

※ 2013년 지원계획

프로그램	사업유형	사업명	예산
정부 투명성 및 효율성 개선을 위한 공공행정 역량 강화	프로젝트	인도네시아 ICT 보안연구개발센터 구축사업 ('11-' 14/ 550만불)	191.03
		인도네시아 IT 행정역량강화 사업 ('13-' 15/ 370만불)	37.38
국토 균형발전 및 경제성장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	프로젝트	인도네시아 선박안정성제고 및 역량강화사업 ('13-' 15/ 130만불)	18.69
		인도네시아 자바 북부해안 공간정보 시스템 구축사업 ('13-' 15/ 350만불)	18.69
		인도네시아 섬유품질표준 및 품질보증검사 기술협력사업 ('12-' 14/ 150만불)	45.79
	개발 컨설팅 (DEEP)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유료도로 제1구간 건설 타당성조사사업 ('12-' 14/ 350만불)	79.44
		인도네시아 고품폐기물 통합처리시스템 마스터플랜 수립 및 타당성조사 사업 ('12-' 14/ 200만불)	9.35
		인도네시아 반동지역 상수도 시스템 구축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사업 ('12-' 14/ 300만불)	65.42
		인도네시아 팔렘방시 배수시설 개선을 위한 마스터플랜 및 타당성조사사업 ('12-' 14/ 260만불)	93.46
		인도네시아 중부자바 섬유공단조성 타당성조사 사업 ('11-' 13/ 480만불)	246.07
환경 및 자원관리를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 도모	프로젝트	인도네시아 남부칼리만탄 녹색학교 실행사업 ('12-' 13/ 70만불)	21.12
		인도네시아 한-인도네시아 산림분야 기후변화 대응 역량강화사업 ('08-' 13/ 500만불)	110.19
		인도네시아 칠리웅강 복원 시범사업 ('13-' 15/ 500만불)	18.69
기타	프로젝트	인도네시아 여성능력개발센터 구축사업 ('12-' 14/ 130만불)	44.95
		인도네시아 중부 칼리만탄지역 농업개발계획 수립 및 시범사업 ('10-' 13/ 250만불)	97.85

프로그램	사업유형	사업명	예산
기타	글로벌 연수	저개발국 선진농업기술 개발 3명	2.27
		강원도의 새마을 운동과 지역 활성화 2명	1.51
		지역 바이오소재 부가가치 창출 2명	1.51
		아시아 도로관리 및 교통기술 3명	2.27
		아태지역 지방정부의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과 보호 3명	2.27
		개발협력정책(아시아, 동구CIS) 2명	1.51
		COMS 기상위성자료 활용능력 향상 2명	1.51
		한국어와 한국 문화의 이해 (공무원 초급) 2명	1.51
		UNDP 성인지 경제정책 관리 2명	1.51
		ASEAN 특별연수 1 (미정) 2명	1.51
		ASEAN 특별연수 2 (미정) 2명	1.51
		경제개발전략 - 재정운영(동남아시아) 6명	4.54
		사이버범죄 대응역량 강화(아시아) 5명	3.79
		품종보호제도 및 심사기술(아시아, 아프리카) 1명	0.76
		의약품 안전(아시아) 5명	3.79
	국별 연수	인도네시아 기후변화대응 산림역량강화 15명	8.41
		인도네시아 녹색성장을 위한 환경관리 15명	8.41
		인도네시아 출입국 행정서비스 역량강화 15명	8.41
		인도네시아 지방공무원 역량강화(정부혁신) 15명	8.41
		인도네시아 과학수사 및 범죄예방 역량강화 15명	8.41
		인도네시아 무역투자진흥전략 15명	8.41
		인도네시아 여성공무원 정책역량강화 15명	8.41
	해외 봉사단	인도네시아 해외봉사단 73명	291.5
	민관협력	인도네시아 빠리아만 시설 확충, 개량을 통한 지역사회 조성 및 주민의 건강한 자립 지원사업 ('10-'11, '12-'14)	22.99
		인도네시아 반다야체 초등학생 건강증진 및 보건교육사업 ('12-'14)	6.07



프로그램	사업유형	사업명	예산
기타	민관협력	아시아 태양광 전등 지원 사업 ('13)	4,67
		인도네시아 칠릉시 취약계층 청소년 직업 훈련 사업(3차년도)	9,35
		인도네시아 보고르 산간지역 찌자이린 마을 교육환경개선 및 아동발달지원 사업	14,02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청소년 역량강화를 위한 자동차 정비 기술 교육	32,71
		인도네시아 찌따 글라르 마을 마이크로수력 발전소 건설사업	14,30
합계			1,584.4

## 나. 에너지 · 자원협력

### 1) 석유

#### ○ 인도네시아는 '12년도 수입량 기준으로 9위의 원유수입국

- 한국의 '12년 원유 총수입량 947.3백만배럴의 2.2%(20.6백만배럴)

※ 1위: 사우디(303.1백만배럴), 2위: 쿠웨이트(137.7백만배럴), 3위: 카타르(103.8백만배럴), 4위: 이라크(93.1백만배럴), 5위: UAE(86.5백만배럴), 6위: 이란(56.2백만배럴), 7위: 러시아(30.6백만배럴), 8위: 영국(24.8백만배럴)

### 2) 가스

#### ○ 인도네시아는 '12년도 수입량 기준으로 2위의 가스수입국

- 한국의 '12년 가스 총수입량 34,970천톤의 17.7%(6,206천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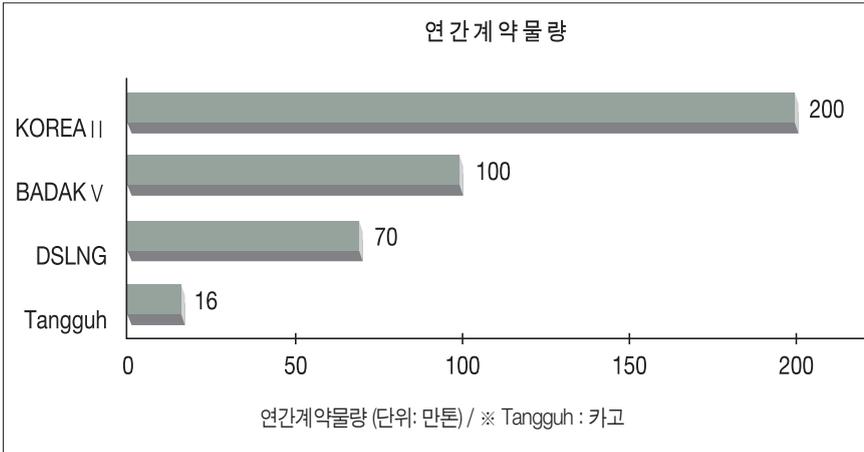
※ 1위: 카타르(10,587천톤), 3위: 오만(4,164천톤), 4위: 말레이시아(4,036천톤), 5위: 예멘(2,604천톤)

#### ○ 총 12개의 한국 기업이 진출하여 13개 사업 참여중(생산 4, 개발 2, 탐사 7)

※ 사업종료 및 철수 진행 사업 : 탐사 3개(워캄, NEM I, NEM II), 개발 1개(Banko)

### 〈한국-인도네시아 가스 공급 계약 현황〉

(2013. 1. 현재)



구분	Project명	연간계약물량	계약기간	인도조건	계 약 체결일
장기계약	KOREA II	200만톤	'94~'14	FOB	'91.5
	BADAQ V	100만톤	'98~'17	FOB	'95.8
	DSLNG	70만톤	'15~'27	FOB	'11.1
중기 계약	Tangguh	16카고 (판매자옵션 △8카고)	'13~'16	DES	'13.1

### 3) 석탄

#### ○ 인도네시아는 '12년도 수입량 기준으로 2위의 석탄수입국

- 한국의 '12년 석탄 총수입량 117,619천톤의 32.2%(37,917천톤)

※ 1위: 호주(42,849천톤), 3위: 캐나다(11,850천톤), 4위: 러시아(11,408천톤), 5위: 미국(6,704천톤)



#### 4) 광물

- 인도네시아는 '12년도 수입액 기준으로 2위의 광물자원 수입국(석탄 포함)
  - 한국의 '12년 광물자원 총수입액 43,174백만불의 10.5%(4,549백만불)
  - ※ 1위: 호주(17,516백만불), 3위: 브라질(3,262백만불), 4위: 캐나다(3,188백만불), 5위: 남아공(1,660백만불)
- 총 12개의 한국 업체가 광종 82개 사업에 진출하였으며, 현재는 10광종 51개 사업(생산 12, 개발 17, 탐사 22개) 진행 중

#### 5) 산림

- 우리나라의 대 인도네시아 임산물 수출입 현황(2012년 기준)
  - 수출 : 19백만불(단기임산물 16, 제재목 0.5, 건축목공 0.4)
  - 수입 : 172백만불(합판 73, 성형목재 40, 목탄 27)
- 진출기업 현황 및 전망
  - 코린도 그룹이 대표적인 임업분야 진출 기업으로서 원목생산, 조림, 합판, 펄프, 제지, 팜오일 등의 연매출액이 10억 불에 이르고 있음.
  - ※ 조림 실적 : 총 75,000ha
  - 식물성 오일, Bio-Energy 원으로서의 팜오일 산업 투자 증대되고 있으며, 삼탄, 대상, 삼성물산 등이 진출하여 활동 중
  - 50만ha 조림투자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산림조합중앙회 등 우리기업에서 기 조림허가 14만ha, 허가진행 및 사업대상지 조사 24만ha 진행중에 있으며 향후 12만ha 사업추진 예정
  - 20만ha 우드펠렛 조림투자 양해각서에 따라 20만ha에 대한 조림허가 및 합작 투자계획 추진 중

- 우리나라의 대 인도네시아 임산물 수출입 현황(2012년 기준)
  - 수출 : 19백만불(단기임산물 16, 제재목 0.5, 건축목공 0.4)
  - 수입 : 172백만불(합판 73, 성형목재 40, 목탄 27)
- 양국간 임업협력 현황
  - 한·인도네시아 임업협력 협정 : 1987년 6월 체결
  - 한·인도네시아 임업위원회 : 지난 1987년 임업협정이 체결된 이래로 1-2년마다 개최되어 2013년에 제21차 한·인도네시아 산림협력위원회가 인도네시아에서 개최
  - 2006년 8월 한·인도네시아 50만ha 조림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산업조림 및 탄소배출권 확보를 위한 조림투자 증가
  - 2006년 12월 한-인도네시아 산림포럼 개최 MOU 체결 이후 2013. 7월 7차(자카르타)
  - 2009년 3월 한·인도네시아 20만ha 우드펠릿 조림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우드펠릿 원자재 확보

## 6) 수산협력

- 인도네시아는 해양면적이 580만km<sup>2</sup>(EEZ 270만km<sup>2</sup> 포함)로서 어획잠재력은 연 1,200만 톤에 이르나, 어선 낙후로 실제 어획량은 연 700만 톤 수준임
- 우리 어선은 1987년부터 진출하였으나, 2001년 인도네시아 EEZ내 외국인 어업금지법이 발령되면서 인도네시아 국적(유효기간 2년, 외국인 승선 5명 이내)으로 조업 중이며, 2011년 현재 8척이 정상 조업
  - 조기, 한치, 갈치, 가오리가 중점 어획
  - 최근 인도네시아 인근 해역의 어획자원 감소와 외국인 조업쿼터 축소 등으로 우리나라의 진출 어선과 어획량이 줄어드는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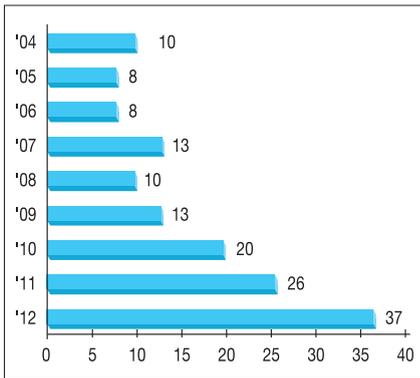


## 다. 건설협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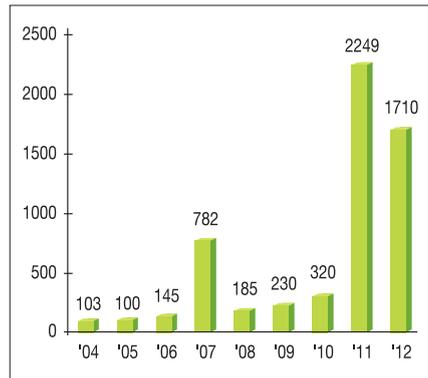
### 1) 우리나라 업체 실적

- 최초 진출 : '70. 4, 삼환기업, 자카르타 주택공사(643천불)
- 총 수주액 : 102개사, 381건, 122.5억불
  - 주요분야 : 플랜트(77건, 72억불), 건축(72건, 21억불), 토목(96건, 26억불), 용역(143건, 3.6억불), 통신(4건, 1억불)

〈우리 업체의 인도네시아 수주 추이〉



[우리업체 수주 건수]



[우리업체 수주 금액]

(단위 : 백만불)

구분	합계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건수	381	236	10	8	8	13	10	13	20	26	37
금액	12,250	6,426	103	100	145	782	185	230	320	2,249	1,710

◆ 자료 :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 90년대 초반까지 우리업체는 토목, 건축 등 단순 도급공사에 치중하여 수주 실적이 미비하다, 1995년부터 발전, 시멘트, 석유화학 분야를 중심으로 플랜트 및 엔지니어링 프로젝트 및 개발형 공사 등에 주력하여 수주 실적이 급증하다가, 1997년 IMF 여파로 인한 건설시장의 급격한 위축으로 수주 실적 급감

- 2000년 중반이후 경제회복에 따라 가스설비, 발전소 등의 플랜트 및 도로, 빌딩등 토목/건축 프로젝트 수주가 이루어 졌으나, 2008년 세계 금융위기로 인해 건설시장 발주가 감소
-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2009년 하반기부터 발전소, 도로 및 엔지니어링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회복 추세이나 '07~'12년 수주액의 75%가 발전소 등 플랜트 공사이며, 나머지는 토목 및 제조업체 공장 공사로 수주의 다변화 필요
- '11~'12년은 대형 발전소 공사 수주와 더불어 POSCO의 일관제철소 건설사업 수주로 급격한 수주 증가세 기록

## 2) 진행 중인 공사 현황

- 쌍용, 현대, 대우엔지니어링, 두산중공업 등 60개 업체가 진출하여 84건, 51억불 규모의 공사를 시행중이며 발전소, 플랜트, 도로 공사 등 참여 추진중

### 〈진행중인 주요 공사〉

(4천만불 이상공사) (단위 : 천불)

업체	공사명	계약액	계약일
GS건설	찢라잡 중질유 분해설비 프로젝트	592,821	2011/09/30
도요ENG	PBI 부타디엔 추출 프로젝트	80,027	2011/06/01
도요ENG	칼팀-5 비료공장 - 설계 및 조달	203,656	2011/10/31
두산중공업	찌레본 석탄화력 발전소 건설공사	590,408	2007/09/18
삼성ENG	반유 유립 석유,가스처리시설 (EPC-1)	354,966	2011/08/05
삼성ENG	세노로 가스처리시설 건설 공사	233,151	2012/09/17
삼환기업	한국타이어 인도네시아 공장 건축토목	56,204	2011/08/05
서희건설	일관제철소- 부생기력발전소(시공)	49,000	2011/12/26
쌍용건설	반둥 Cileunyi-Dawuhan간 유료도로	77,984	2011/12/19
KMH	이글스우드 병원 신축공사	84,200	2008/04/24



업체	공사명	계약액	계약일
포스코 ENG	메락 석탄화력 발전소(2x60MW)	171,000	2010/04/08
	웜푸 수력발전소 건설공사	96,203	2009/12/21
포스코 건설	일관제철소(고로, 주설비)1차 건설	268,977	2011/10/10
	일관제철소 건립 -2차 토건공사	59,759	2012/03/01
	일관제철소(코크스/제강 등)건설	794,117	2011/03/17
	일관제철소 2x100MW 부생기력발전소	213,844	2012/11/01
현대건설	살롤라 지열발전소 건설공사	653,900	2012/06/18
	푸산간 1&2 수력발전소 공사	93,012	2011/03/18
	복서수마트라 송전선(275kV)공사 Pkg2	61,281	2013/03/06
	Soekarno-Hatta공항 터미널3 확장	72,654	2013/03/18

◆ 출처 :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 라. 국방협력

### 1) 상호교류

- 국방정책교류회의 : '08년 신규
- 국방정보교류회의 : '73년 이후 지속
- 육·해·공 각 군간 교류회의 : '96(해), '04(공), '06년(육) 이후 지속
- 군수·방산 공동위원회 : '13년 2차 방산협력위 분과위로 진행
  - ※ 방산협력위 분과위 : 군수방산공동위, KF/IFX, 잠수함, 지상장비
- 특전사, 대통령 경호실 교환훈련 : '90년 이후 지속(비정기적)
- 기타, 상호 교환교육 등 인적교류 활발함(매년 총장급 이상 상호방문)

## 2) 방산 수출 실적

(단위: 만 불)

구분	'02이전	'03~'07	'08	'09	'10	'11	'12	총계
수출	17,588	32,578	5,041	22,280	5,056	150,000	6,978	240,130
수입	15,430	-	9,391*	33	-	-	-	24,854

\* '08년 인도네시아로부터 한국 해경용 초계기 도입계약: 9,391만 불

### ○ 수출추진 진행사업

- K-21 장갑차 100대(5억 불)
- 함대함 유도탄(0.7억 불)
- KT-1 6대(0.4억불)
- 기타 통신장비, 기동헬기 수리온 등 다수 사업

### ○ 공동 프로젝트

- 전투기 공동 개발사업(KFX): '10년 7월 MOU서명
- ※ 한측 사정으로 '14.9까지 체계개발 유예 중

### ○ 퇴역장비 양도를 통한 우호적 방산협력 분위기 조성

- '10년 2월 LVT7A1 10대 무상 이양

## 마. 전자정부 및 행정개혁 협력

### 1) 주요 내용

- 인도네시아는 전자정부 및 행정개혁의 롤모델로 한국을 상정하고 최우선 협력 파트너로 선정
  - 부디오노 부통령과 유정복 안행부장관 간 회담 및 MOU 서명식에서 동 분야 협력 강화 약속('13.7)



- 양국은 전자정부/행정개혁 분야 공동협력위원회(Joint Committee) 구성에 합의하고, 동 위원회에서 실질적인 협력 아젠다 논의(‘13.7)

## 2) 추진 경과

- 인도네시아 행정개혁부 장관(Azwar Abubakar) 방한 및 협력방안 논의(‘13.1)
  - 안행부 장관, 중앙공무원교육원장, KOICA 이사장 면담
- 인도네시아 행정개혁부 장관, 주인도네시아 대사간 협력 회의(‘13상반기, 1~4차)
  - 인도네시아 전자정부 마스터플랜 수립 협력, 한국 경험공유 및 전문가 자문
- 인도네시아 고위급 회의를 한국 전자정부 및 인사개혁 사례 발표/공유(‘13.4)
- 전자정부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TOR 마련(‘13.5)
- 유정복 안행부 장관 방인 및 부도요노 부통령 면담(‘13.7.4)
  - 행정개혁 및 전자정부 부문에서 양국간 긴밀한 협력 약속
- 양국간 전자정부/행정개혁 협력에 관한 MOU 체결(2건, ‘13.7.4)
  - 인도네시아 행정개혁부장관(Azwar Abubakar) - 안행부 장관(유정복)
  - 인도네시아 통신정보부장관(Tifatul Sembiring) - 안행부 장관(유정복)
- 제1회 한-인도네시아 전자정부 포럼 개최(‘13.7.4, 자카르타)
  - 참석 : 인도네시아 행정개혁부/통신정보부 장관, 안행부 장관, 고위공무원, 전자정부 관련 기업 등 200여명
  - 내용 : 인도네시아/한국 행정개혁 및 전자정부 정책 공유, 향후 협력 방안 논의, 한국 전자정부 시스템 소개 및 전시

## 5. 문화 · 인적 교류

### 가. 인도네시아 한국학 현황

#### 1) 개황

- 국립 인도네시아 대학교(UI), 가자마다 대학교(UGM), 나시오날 대학교(UNAS) 등이 한국학(어)과를 정규 학위과정(4년제) 또는 준 학위과정(Diploma, 3년)으로 운영 중
  - UI는 2006년 8월 인도네시아 최초로 4년제 학위과정의 한국어 · 문화학과(Korean Studies Program)를 개설하고 2010년 8월 제 1회 졸업생 배출
  - UGM은 2007년 8월 4년제 학위과정의 한국어과(Korean Language Program) 개설(2003년부터 운영 중인 3년제 연수과정 병행운영)
- 하사누딘 대학교(UNHAS)가 인문대학내에 선택과목(2학점)으로 망쿠랏 대학교(UNLAM), 디포네고로 대학교(UNDIP) 등이 한국학 센터를 개설 비정규 과목으로 한국어 강좌 운영

#### 2) 주요 대학별 한국학 현황

##### (가) 국립 인도네시아 대학교(University of Indonesia)

- 개요
  - 1986년 한국어를 선택과목으로 개설
  - 2006년 8월 인도네시아 최초로 한국어 · 문화학과를 4년제 학위과정으로 인문대학에 개설
  - 2010년 8월 제 1회 졸업생 배출



- 학과명 : Korean Language and Culture
  - 학 점 : 4년 총 144학점
  - 학생수 : 58명(2013년 현재)
- 주요 교수
  - 인문대학장 : Prof. Dr. Bambang Wibawarta, MA
  - 한국학과장 : Zaini, MA
- 특이사항
  - 국제교류재단 및 KOICA에서 한국어 강사 각 1명씩 2명 파견

#### (나) 국립 가자마다 대학교(Universitas Gadjahmada)

- 개요
  - 1995년 9월 한국어를 교양 선택과목으로 개설
  - 1996년 10월 한국학 센터 설치 운영
  - 2007년 8월 4년제 학위과정의 한국어과를 개설하고, 2003.8월부터 운영 중인 3년제 Diploma 과정 병행 운영
- 학과명 : 한국어과(KOREAN LANGUAGE DEPARTMENT)
  - 학 점 : 학위과정 4년 총 147학점/ Diploma과정 3년 총 110학점
  - 학생수 : 학위과정 180명/Diploma 과정(1-3년) 140명(2013년 현재)
- 주요 교수
  - 인문대학장 : Dr. Pujo Semedi Hargo Yuwono, MA
  - 한국어과장 : Drs. Tri Mastoyo, M. Hum

### ○ 특이사항

- 동포기업 KORINDO 그룹에서 장학금 지원
- KOICA에서 한국어 강사 1명 파견
- 인도네시아 한국학회(INAKOS) - 연 2회 학술대회 개최

### (다) 나시오날 대학교(Nasional University)

#### ○ 개요

- 한국어과를 3년제 Diploma 과정으로 운영(1994년 9월 비공인, 2005년 5월 교육부 공인)
- 1987년 6월 한국학 센터 설립 운영

#### ○ 학과명 : 나시오날대학교 외국어학당-한국어 교육과정 ABANAS-Program Studi Bahasa Korea(Academy of Foreign Language-Korean Language)

- 학생수 : 120명 (2013년 현재)
- 학 점 : 3년 총 110학점

#### ○ 주요 교수

- 어학당원장 : Drs. H. Agung Prawoto, M,M
- 한국어과장 : Drs. DS. Suranto, M, Hum

#### ○ 특이사항

- 재 인도네시아 한국 부인회에서 한국어과 학생 장학기금 1만 불 지원

## 나. 문화교류

### 1) 개 요

- 양국간 문화교류가 정부 차원뿐만 아니라 민간차원에서 다양하게 전개되는 상황



-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이 계속 증대되고 있으며, 중앙 및 지방 TV가 K-POP과 한국드라마를 지속 방영 중
- 한·인도네시아 문화협정이 2007년 9월에 발효되고, 문화협정에 따라 2008년 5월 14일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에서 제1차 한·인도네시아 문화공동위원회 개최, 문화교류 활성화 기반 구축
- 2011년 7월 자카르타에 한국문화원을 개설하여 문화 교류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고 자카르타 한국문화원 내 세종학당에 한국어 강좌를 마련하여 현지인들에게 우리 말과 글 보급 : 2013년 2/4분기에 기초, 중급 1·2·3, 말하기 등 총 22개반 519명 수강(12주)

## 2) 주요 교류 내용

- TV 드라마 방영 : 2002년 7월 Indosiar TV에서 처음으로 ‘가을동화’를 방영한 이후 한국드라마를 지속 방영 중. 2007년 6월 이후 현재까지 약 20여 개 지방 TV에서 60여개 이상의 한국드라마 방영
  - Indosia, LBS TV, Jak TV, B Channel TV 등 5개 방송국에서 궁, 동이, 황태자의 첫사랑, 내 이름은 김삼순, 호텔리어, 러브스토리 인 하버드 등 다수의 한국드라마 방영
- 인도네시아 최대 극장 체인인 ‘Cinema 21’ 과 ‘Blitz Mega Plex’에서 2003년부터 한국 영화를 수입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한달 1편 이상 한국 영화를 상영 : ‘포화속으로’, ‘김종욱 찾기’ 등 다수의 영화 상영 및 2013년 현재 ‘고령화 가족’, ‘늑대소년’, ‘7번방의 선물’, ‘미스터리고’ 상영
- 공연
  - 국립무용단 공연(2002.9)
  - 김복희 현대무용단 공연(보로부두르 축제 참가, 2003.6)
  - 이대 TAM 현대무용단(아트서밋 참가, 2004.9)

- 심혜경 전통무용단(페스티벌 ASI 참가, 2004.11)
- 국수호디딤무용단(2005.9), From Korea with Love(2006.3)
- 청주시립무용단(2006.5)
- 반등한국문화교류행사(2007.5)
- 안애순무용단(ASI 참가, 2007.11)
- 전통·현대공연단(2009.6)
- 전통공연단(2009.10)
- BEAT 공연단(2010.10)
- 서울 Chamber Society 공연(2013.5)
- 신은주 무용단, 이인수 무용단 현대무용(2013.6)
- 양상블 시나위 한국퓨전국악 공연(2013.6)

○ 한류행사

- 앙드레킴 패션쇼(1999)
- 한복·바틱 패션쇼(2003.8)
- 백지영 공연(2004.1)
- 장나라 팬사인회(2004.12)
- 보아 공연(AMI 어워즈, 2004.12)
- 한국음식축제, 장동건 영화시사회(2006.3)
- 권상우 팬미팅(2006.9)
- 파란공연(2007.7)
- 묘성 비보이공연(2008.5.12.)
- 비 공연(2009.12)
- 이지훈 팬미팅(2010.7)
- 샤이니 공연(2010.10)
- 한복-바틱 패션쇼(2010.10)
- 인도네시아 근로자 위안 콘서트(2011.7)
- 비스트 월드투어 콘서트 '뷰티풀 쇼 인 자카르타' (2012.3)
- 슈퍼주니어 콘서트(2012.4)

Part I

Part II

Part III

Part IV

Part V

Part VI

Part VII

Part VIII

Part IX



- JYJ 김준수 아시아 투어 인도네시아 콘서트(2012.6)
- 포미닛 공연(2012.10)
- 빅뱅 콘서트(2012.10)
- 팀(Tim) 단독 콘서트(2012.10)
- 2PM 콘서트(2012.12)
- 뮤직뱅크 in 자카르타(2013.3)
- 이루 인도네시아 단독콘서트(2013.4)
- 장우혁 자카르타 공연(2013.4)
- 지드래곤 월드투어 공연 자카르타(2013.6)
- 씨엔블루 콘서트(2013.9 예정)
- 소녀시대 콘서트(2013.9 예정) 등

#### ○ 영화제

- Jiffest 국제필름 페스티벌(2001, 2002, 2004, 2005, 2006 참가)
- 달빛시네마 축제 참가(2003.2)
- 한국영화주간 개최(2007.4, 자카르타 및 반둥)
- 한국영화주간(2009.10, 자카르타)
- 한국우수영화제(2010.10, 자카르타)
- 제 2회 한국영화제 2011(2011.9 자카르타)
- 제 3회 한국영화제(2012.10, 자카르타)
- 제 4회 한국영화제 2013(2013.6, 자카르타)

#### ○ 전시회

- 한국미술전시회(서울-자카르타 교류 20주년 기념행사, 2004.8)
- 한양여대 공예작품전시회(아체 쓰나미 구호성금 모금행사, 2005.1)
- KOREA TV 쇼케이스(2005.5)
- 한국현대조형작가회전(2006.2)
- 한국생활 공예작품전(2008.1)
- 한 · 인도네시아 문화교류 축제(2008)

- 한상수 자수전(2009.10)
- 제2회 한국도예전(2010.10)
- 독도 사진 전시회(2011.7)
- 장성은 사진전(2012.1)
- 김섭, 김언배 작가의 설치·섬유 예술 전시회(2012.7)
- 한·중·일 서예작가 초대전(2012.7)
- 현대 미술의 단면전(2012.9)
- 한-인도네시아 도자기 전시회(2013.3)
- 인치혁 개인전(2013.4)
- 현대 조형작가 전시회(2013.6)
- 한-인도네시아 현대미술교류전(2013.10 예정) 등

#### ○ 문화 행사

- 한국문화원 개원 1주년 문화행사(2012.7)
- 수교 40주년 문화행사(2013.3)
- 한국어 글쓰기 대회(2013.3)
- 태권도 시범1(2013.6)
- 한국문화원 개원 2주년 문화행사(2013.7)
- 한국어 말하기 대회(2013.6)
- Quiz on Korea(2013.6)
- 한식 Festival(2013.10월 예정)

#### ○ 상호 초청 및 교류

- 자카르타시 주관 정도(定都)기념, Jakarnival 행사(매년 6월) 등에 한국 참가
- 한국 외교부 주관 ‘동아시아 주간’ (2006.9, 서울) 행사에 인도네시아 공연단 (33명) 및 영화 1편 참가
- 부산국제영화제에 인도네시아 영화상영(2004, 2005, 2006)
- 경기도 주관 노인문화축전에 인도네시아 공연단 참가(2009, 2010)
- 자카르타와 서울시의 자매도시 결연(1983) 이후 정기 문화공연단 교류

Part I

Part II

Part III

Part IV

Part V

Part VI

Part VII

Part VIII

Part IX



- 인도네시아문화관광부 주최로 3년마다 개최되는 국제 현대공연 예술축제인 ‘Art Summit Indonesia 2007’ (11.1-30)에서 폐막작으로 한국의 White Noise를 공연(11.29-30)하고 2010(10.4~24) 대회에서는 대구시립무용단의 ‘이상화의 마돈나’ 공연이 개막작으로 선정 공연

#### 다. 지자체 교류

- 2012년 말 현재, 수도 자카르타-서울, 제2의 도시 수라바야-부산 등 17개 지자체가 상호간 자매(우호) 결연을 맺고 있으며, 매년 경제, 문화교류를 확대해 나가고 있음
- 지자체간 결연 현황

연번	인도네시아	한국	결연일
1	자카르타(Jakarta)	서울특별시 본청	1984-07-25
2	족자카르타주 족자카르타시 (Jogjakarta City, Jogjakarta Province)	서울특별시 강북구	2005-04-19
3	동부 자바주 수라바야시 (Surabaya City, East Java Province)	부산광역시 본청	1994-08-29
4	서부 수마트라주 빠당시 (Padang City, West Sumatra Province)	부산광역시 수영구	1997-03-22
5	반딤주(Banten Province)	인천광역시 본청	2009-09-14
6	북부 수마트라주 메단시 (Medan City, North Sumatra Province)	광주광역시 본청	1997-09-24
7	남 술라웨시주(South Sulawesi Province)	경기도 본청	2002-02-04
8	서부 자바주 반둥시 (Bandung City, West Java Province)	경기도 수원시	1997-08-25
9	족자카르타주(Jogjakarta Province)	강원도 본청	2001-09-10
10	중부 자바주(Central Java Province)	충청북도 본청	1992-03-27
11	서부 누사땡가라주 (West Nusa Tenggara Province)	충청남도 홍성군	2008-10-18
12	중부 술라웨시주(Central Sulawesi Province)	전라남도 본청	2009-09-29
13	서부 자바주(West Java Province)	전라남도 본청	2001-04-26
14	중부 술라웨시주(Central Sulawesi Province)	경상북도 본청	2009-09-29

연번	인도네시아	한국	결연일
15	족자카르타주(Jogjakarta Province)	경상남도 본청	2005-02-24
16	동부 자바주(East Java Province)	경상남도 본청	1996-05-09
17	발리주(Bali Province)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1989-06-16

## 6. 영사 · 교민 관계

### 가. 재인도네시아 동포 현황

- 현재 인도네시아에 거주 및 체류하는 동포는 약 5만명으로 추정
- 동포 대부분은 섬유 · 신발 · 완구 · 전자 등 노동 집약적 업종에서 자영업을 운영하거나, 한국계 혹은 외국계 회사에 근무
  - 일부는 사업상 목적으로 인도네시아 국적을 취득
- 동포언론으로 K-TV, KBS World, 자카르타 경제일보, 한인뉴스, 데일리코리아, 일요신문 등이 있음

### 나. 한인회 개요

- 연혁 : 1972년 설립
- 역대회장

역대	이름	재임기간
제1대	최계월	1972. 7.16 ~ 1986.10.14
제2대	신교환	1986.10.15 ~ 1990. 6.19
제3대	승은호	1990. 6.20 ~ 2012.12.31
제4대	신기업	2013. 1. 1 ~ 현재



- 구성 : 재인도네시아 한인회와 12개 지역 한인회
- 지역 한인회(12) : 동부자바(수라바야), 발리, 반둥, 족자, 중부자바, 메단, 바탐, 보고르, 탕그랑, 치카랑, 수카부미, 버카시
  
-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운영위원
- 명예회장 : 승은호(코린도 그룹 회장)
- 회장 : 신기엽(PT. HANINDO EXPRESS UTAMA 대표이사: 물류)
- 부회장 : 16명
  - 수석부회장 : 조규철(PT. DONGJUNG 대표이사: 물류)
- 자문위원 : 13명 / 이사 : 90명

#### 다. 자카르타 한국국제학교(JIKS) 현황

- 1976년 1월 개교, 1993년 3월 현 신축교사 이전
- 교육과정 : 현재 초·중·고등학교 수과정 개설, 총 982명 (2013.3.5 기준) 학생 재학 중, 교사는 정부파견교사 1명 포함 총 112명
- 설립재원 : 총 381만불(한국정부 100만불, 대사관 5만불, 코린도 그룹 48만불 등 기업 기부)
- 학교 재정은 대부분 수업료 수입이 대부분이며, 정부지원은 주로 파견 교사 인건비로 충당
- 운영 : 대사관은 학교를 지휘·감독하되, 재정·예산 문제는 재단이 운영하는 형태

## 라. 양국간 외교관·관용여권 소지자 무사증 입국 허용

- 우리 정부는 2004년 5월 1일자로 인도네시아 외교관·관용여권 소지자에 대해 무사증 입국 허용(30일 체류 가능)
- 인도네시아 정부는 2004년 6월 1일자로 우리 외교관·관용여권 소지자에 대해 무사증 입국 허용(14일 체류 가능)
  - ※ 일반 국민에 대해서는 도착비자(Visa-on-Arrival) 제도(30일 체류 가능) 도입

인도네시아 개황 · I N D O N E S I A

# VIII

## 북한과의 관계



〈아궁 산 (Gunung Agung)〉

1. 기본 관계
2. 외교사절 교환
3. 통상 관계
4. 협정 체결 현황
5. 주요 인사 교류

## 1. 기본 관계

- 1958. 8            주 자카르타 교역대표부 설치
- 1961.12.31       주자카르타 총영사관 개설
- 1963.12           주 평양 총영사관 개설
- 1964. 4.16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
- 1964. 4.18       주자카르타 대사관 개설

## 2. 외교사절 교환

### 가. 주인도네시아 역대 북한공관장

역대	공관장	신임장 제정일
제1대	박왕섭	1964. 7
제2대	문성술	1968. 5
제3대	이정화	1972. 8
제4대	박민섭	1978. 6
제5대	장용준	1982.11
제6대	조성범	1986.12
제7대	한봉화	1990. 5
제8대	이삼로	1994.11
제9대	조규일	1996. 1
제10대	김병홍	1998.12
제11대	장창천	2002. 6
제12대	정춘근	2006.10
제13대	이정률	2011. 6

## 나. 주 평양 인도네시아대사

재임기간	공관장
1987.9-1990.4	Sanadji
1990.11-1994.6	Sumadipradja
1995.5-1998.10	Zulkamaen Afri Pane
1998.12-2002.6	Buchari Effendi
2002.12-2005.7	Hendrati Sukendar Munthe
2006.11-2010.9	Daulat Pasaribu
2010.10-현재	Nasri Gustaman

Part I

Part II

Part III

Part IV

Part V

Part V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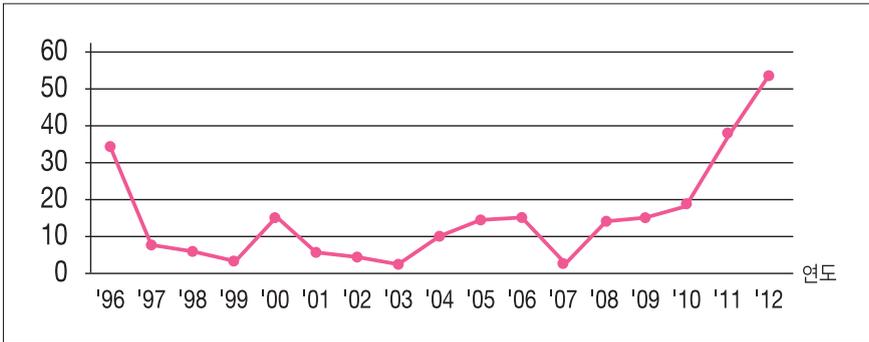
Part VII

Part VIII

Part IX

### 3. 통상 관계(북한 기준)

(단위: 백만불)



(단위: 백만불)

구분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총무역	35,6	8,6	6,4	3,5	15,5	5,6	4,5	2,4	10,3	15,3	15,4	3,1	14,9	15,6	19,6	38,2	54,0

- 주요 수출품 : 철강, 기계부품, 공구류, 플라스틱류 제품 등
- 주요 수입품 : 담배, 목재, 합판, 종이, 의류 등

## 4. 협정 체결 현황

- 1963.11 무역협정(자카르타)
- 1985. 9 공보·문화협력 양해각서(평양) - 양국 공보장관간 기자교류, 뉴스교환, 공동위 설치 합의
- 1991. 2 경제기술협력 협정(자카르타) - 1991년 2월 수정·보완 후 재체결
- 2000.2 자카르타 투자촉진 및 보호협정, 구상무역 추진 MOU
- 2002. 7 과학기술협력 협정(자카르타)이중과세 및 탈세방지 협정(자카르타)
- 2003.11 외교관 및 관용여권 소지자 사증면제 협정(평양)
- 2007.4 북-인도네시아 문화교류협정(평양)
- 2007.11 평양 - 자카르타 자매도시 결연 MOU(자카르타)
- 2009.2 정보통신협력 협정(자카르타)
- 2008. 6 언론부분 교류확대에 관한 공보 양해 각서
- 2009. 2 정보통신협력 협정
- 2010.11 2011~13년 문화교류계획서

Part I

Part II

Part III

Part IV

Part V

Part VI

Part VII

Part VIII

Part IX

## 5. 주요 인사교류

### ○ 북한 인사 인도네시아 방문

방문일시	주요인사
1965.4	김일성 주석
1974.4	계응태 대외무역상
1978	공진태 부총리
1979	황장엽 최고인민회의 의장
1981.6	계응태 부총리
1982.2	이종옥 총리
1984.11	최정근 대외무역부장
1985.4	손상필 최고인민회의부의장
1985.11	박성철 부주석
1987.4	김영남 외교부장
1988.12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의장
1989.10	이동률 보건부장
1991.2	연형묵 정무원 총리
1991.11	김용순 노동당 국제부장
1992.5	김영남 외교부장
1992.9	연형묵 정무원 총리
1993.9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의장
1995.4	김영남 외교부장
1995.4	최광 총참모장
1996.9	김광진 인민무력부 부부장
1996.10	김학수 보건부장
1996.10	원동구 노동당 노동단체부장
1997.7	최창식 보건부 부부장
1999.10	김수학 보건상

방문일시	주요인사
2000.2	강정모 무역상
2002.7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2003.7	최성철 인민보안성 외사국장
2004.6	백남순 외무상
2005.1	김철민 노동당 군수공업부 부부장
2005.4	김영남 상임위원장
2006.3	미철수 외무성 아태국장
2007.4	김영일 외무성 부상
2007.11	김정식 평양시 인민위원회 부위원장
2008.6	강능수 문화상
2009.12	김완수 최고인민회의 부의장
2010.8	박의춘 외무상
2011.7	박의춘 외무상
2012.5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2012.9	최창식 보건상
2012.9	강표영 인민무력부 부부장

Part I

Part II

Part III

Part IV

Part V

Part VI

Part VII

Part VIII

Part IX

## ○ 인도네시아 인사 북한 방문

방문일시	주요인사
1964.11	수카르노 대통령
1974.7	말리크 외상
1980.9	다랴트모 국회의장
1981.9	목타르 외상
1983.2	말리크 부통령
1987.7	목타르 외상
1988.9	로스탐 복지담당조정상
1991.6	알라타스 외상
1992.5	수다르모노 부통령
1993.5	하르모코 공보장관
1996.7	하르모코 공보장관
1999.6	화이살딴중 정치·안보조정장관
1999.4	우스만 관광예술장관
2001.11	악바르딴중 국회의장
2002.3	메가와티 대통령
2003.11	수티요노 자카르타 주지사
2004.5	핫산 외교장관
2004.9	데라자툰 해군 정보참모부장
2004.11	수드라자 국방부 전략국장
2005.4.10	메가와티 前 대통령
2006.2.7	나나 대통령 특사
2007.4	이만 경찰청 보안개발처장
2007.4	샵타 문광부 차관
2007.9	수비안토 해군총장
2008.4	무클리스 문광부 장관 특보
2009.5	아궁 락소노 국회의장(Ketua DPR)

방문일시	주요인사
2011.9	메가와티 前 대통령
2012.9	말리랑겅 체육청소년부 장관
2013.7	무띠아 하따 대통령 자문위원

Part I

Part II

Part III

Part IV

Part V

Part VI

Part VII

Part VIII

Part IX

인도네시아 개황 · I N D O N E S I A

# IX 부 록



〈발리 꾸따비치〉

1. 인도네시아 주요인사 인적사항
2. 인도네시아 제2기 내각 명단
3. 인도네시아 국제기구 및 조약 가입현황
4. 인도네시아 관련 주요 웹사이트 목록
5. 양자협정 체결현황
6. 한-인도네시아간 공동성명 및 공동언론  
발표문
7. 역대대사 명단
8. 약어 정리



## 1. 인도네시아 주요인사 인적사항

### 유도요노 인도네시아 대통령 인적사항

성 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Dr. H. Susilo Bambang Yudhoyono)</li> <li>※ 일반인들은 약칭인 SBY로 호칭을 선호</li> </ul>	
출 생 지	○ 동부 자바 빠찌판 출생	
연 령	○ 1949.9.9 (64세)	
학 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도네시아 육군 사관학교 수석졸업(1973)</li> <li>○ 미국 Fort Benning 보병학교 고급 과정 수료(1982~83)</li> <li>○ 미국 Fort Leavenworth 지휘 참모대학 수료</li> <li>○ 미국 Webster 대학 경영학 석사</li> <li>○ 인도네시아 보고르 농대 농경제학 박사</li> </ul>	
경 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74~1994 육군 장교 임관후, 주요 지휘관으로 복무</li> <li>○ 1994~1995 족자카르타 지역 072 부대 사령관</li> <li>○ 1995~1996 보스니아 주재 유엔 평화유지군 단장</li> <li>○ 1996~1997 육군 남부 수마트라 지역 사령관</li> <li>○ 1998~1998 육군 정치사회담당 참모부장</li> <li>○ 1998~1999 육군 영토담당 참모장</li> <li>○ 1999~2000 광업에너지부장관</li> <li>○ 2000~2001 정치·사회·안보조정장관(와히드 대통령 정권)</li> <li>○ 2001~2004 정치·안보조정장관(메가와티 대통령 정권)</li> <li>○ 2004.10.20 제6대 대통령 취임</li> <li>○ 2009.10.20 대통령 재임</li> </ul>	
가족관계	○ 부인(아니 밤방 유도요노) 및 2남(아구스 하리무르티 유도요노, 에디 바스코로 유도요노)	
인 물 평	○ 개혁적이고 정직하며 대중적 이미지의 인물	
방한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76           私的 방한</li> <li>○ 2005           부산 APEC회의 참석차 방한</li> <li>○ 2007.7        국민 방한</li> <li>○ 2009.6        한-ASEAN 특별정상회의 참석차 방한</li> <li>○ 2010.10      G-20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li> <li>○ 2012.3        서울핵안보회의 참석 및 국민 방한</li> </ul>	

## 부디오노 인도네시아 부통령 인적사항

성 명	○ 부디오노 (Prof. Dr. Boediono)	
출생지	○ 동부 자바 블리따르 출생	
연 령	○ 1943. 2. 25 (70세)	
학 령	○ Western Australia 대학 경제학 학사(1967) ○ Monash 대학 경제학 석사(1972) ○ 美 Pennsylvania 대학(Wharton School) 경제학 박사(1979)	
경 령	○ 인도네시아 가자마자대학(UGM) 경제학부 교수 ○ 1996~1998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이사(1996-1998) ○ 1998~1999 국가개발계획부 장관 ○ 2001~2004 재무부 장관 ○ 2005~2009 경제 조정장관 ○ 2008.4~2009.4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 총재 ○ 2009~현재 부통령	
가족관계	○ 부인(Herawati) 및 2자녀(Ratriana Ekarini, Dios Kumiawan)	
인물평	○ 꼼꼼하고 정직하며 말이 많지 않으나 항상 미소를 띠고 있음 ○ 일처리에 있어 항상 조용하고 모든 일들을 깔끔하게 마무리한다는 평가	
기 타	○ 선호음식 : 새우튀김, 닭튀김, 탕(소고기)류, 생선, 채소류 등 ○ 기피음식 : 강한 양념, 탄산음료, 고 콜레스테롤 음식	



### 마르띠 인도네시아 외교장관 인적사항

성 명	○ 마르띠 나탈르가와 (Dr. Marty Natalegawa)	
출생지	○ 서부 자바 반둥 출생	
연 령	○ 1963. 3. 22 (50세)	
학 령	○ 英 Ellesmere College, Concord College 학사(1976-81) ○ 英 런던정경대학 학사(1984) ○ 英 캠브리지대학 석사(1985) ○ 호주국립대학 국제정치학 박사(1993)	
경 령	○ 1986                   외교부 입부 ○ 1994~1999       유엔대표부 ○ 2002                장관보좌관 겸 대변인 ○ 2003                ASEAN 총국장 겸 대변인 ○ 2005.11           주영국대사 ○ 2007.9            주유엔대사 ○ 2009.10          외교장관	
가족관계	○ 부인(Sranya) 외 3자녀(Annisa, Anantha, Andreyka)	
인 물 평	○ Hassan Wirajuda 前외교장관이 발탁한 인도네시아 외교부 신예 외교관 그룹 (12기) 중 한 명으로, 46세에 주영국대사에 임명된 후 인도네시아 최고위 대사직인 유엔대사를 역임하는 등 초고속 승진 ○ 뛰어난 발표능력으로 英옥스퍼드大, Essex大, London Metropolitan 大, 캠브리지大 등에서 강연활동	

## 기타 인도네시아 통상장관 인적사항

성 명	○ Gita Irawan Wirjawan (기타 이라완 위르아완)	
출생지	○ 자카르타 출생	
연 령	○ 1965. 9. 21 (48세)	
학 령	○ 美 하버드대 Kennedy School 졸업(공공행정학 석사) ○ 美 텍사스대(오스틴) 졸업(경영학 학사)	
경 령	○ 2000~2004 골드만 삭스 싱가포르 근무 ○ 2004~2006 ST Telekomunikasi 싱가포르 근무 ○ 2006~2008 인도네시아 JP Morgan 사장 ○ 2008 Ancora Capital(자원개발 투자회사) 설립 ○ 2010~2012 투자청장(BKPM) ○ 2011.10~현재 통상장관(Minister of Trade) ○ 2012~현재 전 인도네시아 배드민턴 협회장	
종 교	○ 이슬람	
인물평	○ 2011.10월 유도요노 2기 정권 개각시 공직에 임명 ○ 2013.9월 예정인 집권여당 민주당의 2014 대선후보 경선에 참가 선언 ○ 수준급 재즈뮤지션이며 골프 애호가	



## 2. 유도요노 정권 제2기 내각명단(영문)

### ▶ Coordinating Ministers

1. Coordinating Minister for Political, Legal & Security Affairs : Djoko Suyanto
2. Coordinating Minister for the Economy : Hatta Rajasa
3. Coordinating Minister for People's Welfare : Agung Laksono

### ▶ Ministers

1. Minister of Home Affairs : Gumawan Fauzi
2. Minister of Foreign Affairs : Marty Natalegawa
3. Minister of Defense : Purnomo Yusgiantoro
4. Minister of Justice and Human Rights : Amir Syamsuddin
5. Minister of Finance : Muhammad Chatib Basri
6. Minister Energy and Mineral Resources : Jero Wacik
7. Minister of Industry : M.S. Hidayat
8. Minister of Trade : Gita Wirjawan
9. Minister of Agriculture : Suswono
10. Minister of Forestry : Zulkifli Hasan
11. Minister of Transportation : E.E. Mangindaan
12. Minister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 Sharif Cicip Sutardjo
13. Minister of Health : Nafsiah Mboi
14. Minister of Manpower and Transmigration : Muhaimin Iskandar
15. Minister of Public Works : Djoko Kirmanto
16. Minister of Education and Culture : Mohammad Nuh

- 17. Minister of Social Affairs : SalimSegaf Al-Jufri
- 18. Minister of Religious Affairs : Suryadharna Ali
- 19. Minister of Tourism and Creative Economy : Mari Elka Pangestu
- 20. Minister of Communication & IT : Tifatul Sembiring

▶ **State Ministers**

- 1. State Minister for Research and Technology : Gusti Muhammad Hatta
- 2. State Minister for Cooperatives and SME : Syarifuddin Hasan
- 3. State Minister for the Environment : Balthasar Kambuaya
- 4. State Minister for Women’s Empowerment & Child Protection : Linda Amalia Sari
- 5. State Minister for Administrative Reforms : Azwar Abubakar
- 6. State Minister for Acceleration of Development in Backwards Regions : Helmy Faishal Zaini
- 7. State Minister for State-Owned Enterprises : Dahlan Iskan
- 8. State Minister for Public Housing : Djan Faridz
- 9. State Minister for Youth and Sports Affairs : Roy Suryo Notodiprojo
- 10. State Minister/Chairman of National Development Planning : Armida Alisjahbana
- 11. Minister/State Secretary : Sudi Silalahi

▶ **Others (Ministerial Level)**

- 1. Cabinet Secretary : Dipo Alam
- 2. Attorney General : Basrief Arief
- 3. Chief of Intelligence(BIN) : Marciano Norman
- 4. Chief of Presidential Unit for the Management of Reform Programs : Kuntoro Mangkusubroto
- 5. Commander of the Indonesian Armed Forces(TNI) : Agus Suhartono
- 6. Chief of Indonesian National Police(POLRI) : Timur Pradopo

Part I

Part II

Part III

Part IV

Part V

Part VI

Part VII

Part VIII

Part IX



### 3. 인도네시아 국제기구 및 조약 가입 현황

(2013.7 현재)

순번	국제기구	소관부처	지위	가입년도
1	Inter-Parliamentary Union (IPU)	국회	회원국	1974
2	Association of Secretary General of Parliaments (ASGP)	국회	회원국	1976
3	The Parliamentary Union of Islamic Countries (PUIC)	국회	회원국	1999
4	ASEAN Inter-Parliamentary Assembly (AIPA)	국회	회원국	1977
5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upreme Audit Institutions (INTOSAI)	감사원	회원국	1956
6	Asian Organization of Supreme Audit Institutions (ASOSAI)	감사원	회원국	1979
7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Supreme Administrative Jurisdictions (IASAJ)	대법원	회원국	1983
8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Anti Corruption Authorities (IAACA)	대검찰청	회원국	2006
9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Prosecutor (IAP)	대검찰청	회원국	2006
10	Forum prosecutor China - ASEAN	대검찰청	회원국	2006
11	Centreon Integrated Rural Development for the Asia and Pacific (CIRDAP)	내무부	회원국	1979
12	Sub Regional Office of the Centre on Integrated Rural Development for Asia and the Pacific in Southeast Asia (SOCSEA)	내무부	회원국	1997
13	United Nations Organization (UN)	외무부	회원국	1950
14	Association of the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	외무부	회원국	1967
15	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PEC)	외무부	회원국	1989
16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	외무부	회원국	1950
17	Convention on The Prohibition of the Development, Production, and Stockpiling of Bacteriological(Biological) And Toxin Weapons And on Their Destruction (BWC)	외무부	당사국	1991
18	Convention on the Prohibition of the Use, Stockpiling, Production and Transfer of Anti Personnel Mines and Their Destruction (Ranjau Darat)	외무부	당사국	2006
19	Preparatory Commission for Comprehensive Nuclear Test-Ban Treaty Organization (PrepCom CTBTO)	외무부	당사국	1996

순번	국제기구	소관부처	지위	가입년도
20	ASEAN Foundation	외무부	회원국	1997
21	ASEAN-China Centre	외무부	-	2009
22	Indian Ocean Marine Affairs Cooperation (IOMAC)	외무부	회원국	1985
23	Asia-Europe Foundation (ASEF)	외무부	회원국	1997
24	United Nations Institute for Training and Research (UNITAR)	외무부	회원국	1965
25	NAM Center for South-South Technical Cooperation (NAMCSSTC)	외무부	회원국	1965
26	Developing Eight (D-8)	외무부	회원국	1997
27	Group of 77 and China (G-77 and China)	외무부	회원국	1964
28	Group of Fifteen (G-15)	외무부	회원국	1989
29	South Centre (SC)	외무부	회원국	2004
30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ITLOS)	외무부	회원국	1996
31	International Seabed Authority (ISA)	외무부	회원국	1982
32	Organisation of the Islamic Conference (OIC)	외무부	회원국	1969
33	Central Emergency Response Fund (CERF)	외무부	contributor	-
34	Government Contribution towards Local Office Costs (GLOC) UNDP	외무부	contributor	-
35	United Nations Regional Centre for Peace and Disarmament in Asia and the Pacific (UNRCPD)	외무부	회원국	-
36	United Nations Relief and Work Agency for Palestine Refugees in the Near East (UNRWA)	외무부	회원국	-
37	Chemical Weapons Convention (Assistance and Protection against Chemical Weapons) Trust Fund	외무부	회원국	-
38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외무부	당사국	-
39	Capital Master Plan	외무부	contributor	-
40	Organization for the Prohibition of Chemical Weapons (OPCW)	외무부	당사국	1998
41	ASEAN Intergovernmental Commission on Human Rights (AICHR)	외무부	회원국	2009
42	United Nations Interim Force in Lebanon (UNIFIL)	외무부-PKO	contributor	-



순번	국제기구	소관부처	지위	가입년도
43	United Nations Mission in the Sudan (UNMIS)	외무부-PKO	contributor	-
44	United Nations Mission for the Referendum in Western Sahara (MINURSO)	외무부-PKO	contributor	-
45	United Nations Peacekeeping Force in Cyprus (UNFCYP)	외무부-PKO	contributor	-
46	United Nations Observer Mission in Georgia (UNOMIG)	외무부-PKO	contributor	-
47	United Nations Interim Administration Mission in Kosovo (UNMIK)	외무부-PKO	contributor	-
48	United Nations Support to the African Union Mission in Somalia (UNSOA)	외무부-PKO	contributor	-
49	United Nations Mission in the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MONUC)	외무부-PKO	contributor	-
50	United Nations Mission in Ethiopia and Eritrea (UNMEE)	외무부-PKO	contributor	-
51	United Nations Mission in Liberia (UNMIL)	외무부-PKO	contributor	-
52	United Nations Operations in Cote d'Ivoire (UNOCI)	외무부-PKO	contributor	-
53	United Nations Stabilization Mission in Haiti (MINUSTAH)	외무부-PKO	contributor	-
54	United Nations Integrated Mission in Timor Leste (UNMIT)	외무부-PKO	contributor	-
55	United Nations Mission in the Central African Republic and Chad (MINURCAT)	외무부-PKO	contributor	-
56	Asian African Legal Consultative Organization (AALCO)	법무인권부	회원국	-
57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sation (WIPO)	법무인권부	회원국	-
58	International Institute for the Unification of Private Law (UNIDROIT)	법무인권부	회원국	2009
59	International Organisation of Securities Commissions (IOSCO)	재무부	회원국	-
60	Debt Management and Financial Analysis System -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재무부	회원국	-
61	World Customs Organisation(WCO)	재무부	회원국	-
62	International Fund for Agricultural Development (IFAD)	재무부	회원국	1977
63	OPEC Fund	재무부	contributor	-
64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ASEAN) - Centre for Energy	에너지광물부	회원국	1995
65	Coordinating Committee for Geoscience Programmes in East and Southeast Asia (CCOP)	에너지광물부	회원국	1969

순번	국제기구	소관부처	지위	가입년도
66	Organization of the Petroleum Exporting Countries (OPEC)	에너지광물부	일시정지	-
67	United Nations Industrial Development Organization (UNIDO)	산업부	회원국	-
68	UNIDO Local Office	산업부	회원국	-
69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통상부	회원국	1994
70	International Textiles and Clothing Bureau (ITCB)	통상부	회원국	1984
71	Association of Natural Rubber Producing Countries (ANRPC)	통상부	회원국	1970
72	International Pepper Community (IPC)	통상부	회원국	1977
73	Asian and Pacific Coconut Community (APCC)	통상부	회원국	1969
74	International Coffee Organization(ICO)	통상부	회원국	-
75	ASEAN Promotion Centre on Trade, Investment, and Tourism(APCTIT) / ASEAN - Japan Centre	통상부	회원국	1981
76	Bureau International des Exposition (BIE)	통상부	회원국	-
77	Global System of Trade Preferences (GSTP)	통상부	회원국	-
78	Organisation Internationale de Metrologie Legale (OIML)	통상부	회원국	-
79	ASEAN-KoreaCentre	통상부	회원국	2008
80	Animal Production and Health Commission (APHCA) for Asia and the Pacific	농업부	회원국	1977
81	Centre for Aliviation of Poverty through Secondary Crops Development in Asia and the Pacific (CAPSA)	농업부	회원국	1982
82	Food and Agriculture Organisation (FAO)	농업부	회원국	1949
83	Office Internationaldes Epizooties(OIE) / World Organisation for Animal	농업부	회원국	1954
84	Regional Network for Agriculture Machinery (RNAM)	농업부	회원국	2006
85	World Food Programme (WFP)	농업부	회원국	2006
86	International Cocoa Organization (ICCO)	농업부	Observer	-
87	FAO Representative Office in Jakarta	농업부	회원국	1980



순번	국제기구	소관부처	지위	가입년도
88	International Sugar Organization(ISO)	농업부	Observer	-
89	ASEAN Animal Health Trust Fund (AHTF)	농업부	회원국	2006
90	International Treatyon Plant Genetic Resources for Food and Agriculture (IT-PGRFA)	농업부	회원국	2006
91	International Seed Testing Association (ISTA)	농업부	회원국	2006
92	The Asia and Pacific Seed Association(APSA)	농업부	회원국	2006
93	East Asia Plant Variety Protection(EAPVP) Forum	농업부	회원국	2007
94	International Plant Protection Convention(IPPC)	농업부	회원국	1977
95	Asia Pacific Plant Protection Convention(APPPC)	농업부	회원국	1992
96	International Tropical Timber Organization (ITTO)	산림부	회원국	1986
97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CITES)	산림부	회원국	1975
98	Convention on Wetlands of International Importance Especially as Waterflow Habitat (RAMSAR)	산림부	회원국	1991
99	United Nations Convention to Combat Desertification (UNCCD)	산림부	회원국	1998
100	Center of International Forestry Research (CIFOR)	산림부	회원국	1993
101	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IUCN)	산림부	회원국	1967
102	International Network for Bamboo and Rattan (INBAR)	산림부	회원국	1994
103	International Sericultural Commission (ISC)	산림부	회원국	1992
104	Wetland International (W)	산림부	회원국	1995
105	Asia Pacific Association of Forestry Research Institutions (APAFRI)	산림부	회원국	2000
106	International Federation of Beekeepers' Association (APIMONDIA)	산림부	회원국	1979
107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ICAO)	교통부	회원국	1950
108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	교통부	회원국	1960
109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Marine Aidsto Navigation and Lighthouse Authorities (IALA)	교통부	회원국	-
110	Tokyo - Memorandum of Understanding on Port State Control (MOU)	교통부	회원국	-

순번	국제기구	소관부처	지위	가입년도
111	Network of Aquaculture Centres in Asia - Pacific (NACA)	해수부	회원국	2005
112	Indian Ocean Tuna Commission (IOTC)	해수부	회원국	2007
113	Commission for the Conservation of Southern Bluefin Tuna (CCSBT)	해수부	회원국	2007
114	Western and Central Pacific Fisheries Commission (WCPFC)	해수부	Cooperating non member	2004
115	Southeast Asian Fisheries Development Center (SEAFDEC)	해수부	회원국	-
116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ILO)	노동이주부	회원국	1950
117	Asian Productivity Organization (APO)	노동이주부	회원국	1968
118	International Commission of Large Dams (ICOLD)	공공사업부	회원국	1950
119	International Commission on Irrigation and Drainage (ICID)	공공사업부	회원국	1950
120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보건부	회원국	1950
121	South East Asian Ministers of Education Organisation (SEAMEO)	교육부	회원국	1966
122	UNESCO Jakarta Office	교육부	contributor	-
123	Educational Development Fund (SEAMEO EDF)	교육부	회원국	-
124	Islamic Fiqh Academy (IFA)	종교부	회원국	-
125	Islamic Education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ISESCO)	종교부	회원국	-
126	International Congress and Convention Association - Asia Pacific Chapter (ICCA-APC)	문화부	회원국	1981
127	Pacific Area Travel Association (PATA)	문화부	회원국	1975
128	United Nations World Tourism Organization (UNWTO)	문화부	회원국	-
129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UNESCO)	문화부	회원국	-
130	UNESCO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UNESCO CSICH)	문화부	회원국	2008
131	ASEAN NTOs (ASEAN National Tourism Organization)	문화부	회원국	1976
132	ASEAN Tourism Association (ASEANTA)	문화부	회원국	-
133	International Federation of Arts Council and Culture Agencies (IFACCA)	문화부	회원국	2006



순번	국제기구	소관부처	지위	가입년도
134	Asia Pacific Telecommunity(APT)	정보통신부	회원국	1985
135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ITU)	정보통신부	회원국	-
136	Universal Postal Union (UPU)	정보통신부	회원국	1877
137	Asia Institute Broadcasting Development (AIBD)	정보통신부	회원국	1977
138	Asian Pacific Postal Union(APPU)	정보통신부	회원국	1970
139	Asia Pacific Broadcasting Union (ABU)	정보통신부	회원국	1964
140	ASEAN ICT Fund	정보통신부	회원국	-
141	The Colombo Plan for Cooperative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in Asia and Pacific (Colombo Plan)			
142	ASEAN Science Fund	연구개발부	회원국	2000
143	Centre for Science and Technology of Non Aligned Movement (NAM) and Other Developing Countries	연구개발부	회원국	-
144	Standing Committee for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Co-operation of OIC (COMSTech)	연구개발부	회원국	-
145	Regional Trust Fund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Action Plan for the Protection and Development of the Marine Environment and Coastal Areas of the East Asian Seas (COBSEA) FUND 810 INS	환경부	회원국	1981
146	Trust Fund for the Basel Convention on the Control of Trans-boundary Movements of Hazardous Wastes and their Disposal (BC) FUND 3060 INS			
147	Trust Fund for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 FUND5080INS	환경부	회원국	1993
148	Trust Fund for the Montreal Protocol Substances that Deplete the Ozone Layer (MP) FUND 1040 INS	환경부	회원국	1987
149	Trust Fund for the Core Budget of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	환경부	회원국	1992
150	Trust Fund for the Vienna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Ozone Layer (VC FUND 1030 INS)	환경부	회원국	1987
151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UNEP) FUND 700 INS	환경부	회원국	-
152	Trust Fund for The Core Programme Budget for the Biosafety Protocol(BG) FUND 9340 INS (Cartagena Protocol)	환경부	회원국	2000
153	Kyoto Protocol	환경부	회원국	-

순번	국제기구	소관부처	지위	가입년도
154	General Trust Fund for the Stockholm Convention on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its Subsidiaries Bodies and the Convention Secretariat (POPs) FUND 9400 INS	환경부	회원국	-
155	Global Ecolabelling Network			
156	United Nations Development Fund for Women (UNIFEM)	여성부	회원국	-
157	International Research and Training Institute for the Advancement of Women (INSTRAW)	여성부	회원국	-
158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UNICEF)	여성부	회원국	1950
159	World Anti Doping Agency(WADA)	체육청소년부	회원국	-
160	ASEAN Schools Sports Council (ASSC)	체육청소년부	회원국	1978
161	Asian Schools Sports Federation (ASSF)	체육청소년부	회원국	1992
162	Asian Schools Football Federation (ASFF)	체육청소년부	회원국	1972
163	United Nations Human Settlement Programme / UNCentre for Human Settlements (UN-Habitat)	체육청소년부	회원국	1976
164	International Criminal Police Organization (ICPO)-Interpol	경찰청	회원국	1954
165	ASEAN-China Cooperative Operation in Response to Dangerous Drugs (ACCORD)	미약청	회원국	2005
166	Colombo Plan Drug Advisory Program (CP DAP)	미약청	회원국	1953
167	International Council on Archives (ICA)	국가기록원	회원국	1968
168	Southeast Asia Regional Branch of ICA (SARBICA)	국가기록원	회원국	1968
169	Southeast Asia - Pacific Audio Visual Archives Association Visual Archives Association (SEAPAVAA)	국가기록원	회원국	1996
170	Partners in Population and Development (PPD)	가족계획원	회원국	1994
171	International Council on Management of Population Programs (ICOMP)	가족계획원	회원국	1991
172	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 (UNFPA)	가족계획원	회원국	1973
173	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 (UNFPA) Representative Office in Indonesia	가족계획원	contributor	-
174	World Association of Investment Promotion Agencies (WAIPA)	투자청	회원국	2007



순번	국제기구	소관부처	지위	가입년도
175	Brunei Darussalam - Indonesia - Malaysia - Philippines Facilitation Center (BIMP-FC)	투자청	회원국	2006
176	International Union of Geodesy and Geophysics (IUGG)	국가지리원	회원국	-
177	International Cartographic Association (ICA)	국가지리원	회원국	-
178	World Meteorological Organisation(WMO)	기상청	회원국	1950
179	International Emergency Centr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EC-IAEA), National Competent Authority Abroad (NCA-A)	원자력감독원	회원국	2002
180	International Emergency Centr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EC-IAEA) (NCA-D)	원자력감독원	회원국	2002
181	International Emergency Centr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EC-IAEA) National Warning Point (NWP)	원자력감독원	회원국	2003
182	United Nations Statistical Institute for Asia and the Pacific(UN-SIAP)	통계청	회원국	-
183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sation (ISO)	국가표준원	회원국	1965
184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IEC)	국가표준원	회원국	1954
185	Bureau Internationale de Poids et Mesures (BIPM)	국가표준원	회원국	1975
186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	원자력청	회원국	1975
187	International Satellite System for Search and Rescue (COSPAS-SARSAT)	재난방재청	회원국	1991
188	International Institute of Administration Science (IIAS)	국립행정원	회원국	1992
189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School and Institute of Administration (IASIA)	국립행정원	회원국	1994
190	Eastern Regional Organisation of Public Administration (EROPA)	국립행정원	회원국	1971
191	Network of Asia Pacific Schools and Institutes of Public Administration Governance (NAPSIPAG)	국립행정원	회원국	2004
192	Association of Asian Social Science Research Councils (AASSREC)	국립과학원	회원국	1994
193	Rijksherbarium - Onderzoekinstituut rijkuniversiteit Leiden - The Flora Malesiana Foundation	국립과학원	회원국	1948
194	International Council for Science (ICSU)	국립과학원	회원국	1992
195	International Federation of Social Science Organization Secretariat Office (IFSSO)	국립과학원	회원국	2002

순번	국제기구	소관부처	지위	가입년도
196	Pacific Science Association (PSA)	국립과학원	회원국	1967
197	World Association of Industrial and Technological Research Organizations (WAITRO)	국립과학원	회원국	2007
198	Asia Pacific Metrology Program (APMP)	국립과학원	회원국	-
199	Committee on Data for Science and Technology (CODATA)	국립과학원	회원국	1996
200	Asia and Pacific Centre for Transfer of Technology (APCTT)	국립과학원	회원국	2007
201	Committee on Space Research (COSPAR)	항공우주원	회원국	-
202	International Geosphere Biosphere Program (IGBP)	항공우주원	회원국	-
203	International Astronautical Federation (IAF)	항공우주원	회원국	-
204	Science Committee on Solar Terrestrial Physics (SCOSTEP)	항공우주원	회원국	-
205	Inter-Islamic Network on Space Sciences and Technology (ISNET)	항공우주원	회원국	-
206	The 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and Institutions (IFLA)	국립도서관	회원국	1950
207	Congress of South East Asians Librarians (CONSAL)	국립도서관	회원국	1975
208	Organisation of Asia Pacific News Agency (OANA)	ANTARA 통신	회원국	1961
209	International Islamic News Agency (IINA)	ANTARA 통신	회원국	1973
210	International Hydrographic Organization(IHO)	해군	회원국	1961
211	International Astronomical Union (IAU)	국립천문대	회원국	1950
212	International Federation of Red Cross and Red Crescent Societies (IFRC)	적십자	회원국	
213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ICRC)	적십자	회원국	1950



## 4. 인도네시아 관련 주요 웹사이트 목록

- 주인도네시아 한국 대사관 : [idn.mofa.go.kr](http://idn.mofa.go.kr)
- 주인도네시아 한국문화원 : [id.korean-culture.org](http://id.korean-culture.org)
- 주대한민국 인도네시아 대사관 : [www.indonesiaseoul.org](http://www.indonesiaseoul.org)

### 가. 정치

- 인도네시아 정부 : [www.indonesia.go.id](http://www.indonesia.go.id)
- 대통령실 : [www.presidentri.go.id](http://www.presidentri.go.id)
- 부통령실 : [www.wapresri.go.id](http://www.wapresri.go.id)
- 외교부 : [www.kemlu.go.id](http://www.kemlu.go.id)
- 내무부 : [www.kemendagri.go.id](http://www.kemendagri.go.id)
- 국민협의회 : [www.mpr.go.id](http://www.mpr.go.id)
- 국회 : [www.dpr.go.id](http://www.dpr.go.id)
- 지역대표협의회 : [www.dpd.go.id](http://www.dpd.go.id)
- 국방부 : [www.kemhan.go.id](http://www.kemhan.go.id)
  - 인도네시아 통합군 : [www.tni.mil.id](http://www.tni.mil.id)
  - 인도네시아 육군 : [www.tniad.mil.id](http://www.tniad.mil.id)
  - 인도네시아 공군 : [www.tni-au.mil.id](http://www.tni-au.mil.id)
  - 인도네시아 해군 : [www.tnial.mil.id](http://www.tnial.mil.id)
- 경찰청 : [www.polri.go.id](http://www.polri.go.id)

- 민주당 : [www.demokrat.or.id](http://www.demokrat.or.id)
- 골카르당 : [www.partaigolkar.or.id](http://www.partaigolkar.or.id)
- 투쟁민주당 : [www.pdiperjuangan.or.id](http://www.pdiperjuangan.or.id)
- 복지정의당 : [www.pks.or.id](http://www.pks.or.id)
- 국민수권당 : [www.pan.or.id](http://www.pan.or.id)
- 통일개발당 : [www.ppp.or.id](http://www.ppp.or.id)
- 국민계몽당 : [www.pkb.or.id](http://www.pkb.or.id)

#### 나. 경제

- 중앙은행 : [www.bi.go.id](http://www.bi.go.id)
- 무역부 : [www.kemendag.go.id](http://www.kemendag.go.id)
- 재무부 : [www.depkeu.go.id](http://www.depkeu.go.id)
- 관광창조경제부 : [www.budpar.go.id](http://www.budpar.go.id)
- 중소기업부 : [www.depkop.go.id](http://www.depkop.go.id)
- 인력관리공단 : [www.sdm.depkeu.go.id](http://www.sdm.depkeu.go.id)
- 재무부 경제 투자 센터 : [www.pip-indonesia.com](http://www.pip-indonesia.com)
- 국영기업부 : [www.bumn.go.id](http://www.bumn.go.id)
- 통계청 : [www.bps.go.id](http://www.bps.go.id)
- 국세청 : [www.pajak.go.id](http://www.pajak.go.id)
- 물류 협회 : [www.ali.web.id](http://www.ali.web.id)



## 다. 교육

- 교육문화부 : [www.kemdiknas.go.id](http://www.kemdiknas.go.id)
- 과학기술부 : [www.ristek.go.id](http://www.ristek.go.id)
- 과학기술부 기술과학연구센터 : [www.puspipstek.ristek.go.id](http://www.puspipstek.ristek.go.id)
- 교육문화부 교육감독청 : [www.ban-pt.kemdiknas.go.id](http://www.ban-pt.kemdiknas.go.id)
- 교육문화부 교육개발연구센터 : [www.litbang.kemdikbud.go.id](http://www.litbang.kemdikbud.go.id)
- 국립 인도네시아 대학교 : [www.ui.ac.id](http://www.ui.ac.id)
- 국립 가자마다 대학교 : [www.ugm.ac.id](http://www.ugm.ac.id)
- 국립 반둥 과학기술대학교 : [www.itb.ac.id](http://www.itb.ac.id)

## 라. 사회 · 문화

- 교육문화부 : [www.kemdiknas.go.id](http://www.kemdiknas.go.id)
- 노동이주민부 : [www.depnakertrans.go.id](http://www.depnakertrans.go.id)
- 국립 박물관 : [www.museumnasional.or.id](http://www.museumnasional.or.id)
- 자카르타 역사 박물관 : [www.museumsejarahjakarta.com](http://www.museumsejarahjakarta.com)
- 와양 박물관 : [www.museumwayang.com](http://www.museumwayang.com)
- 기록물 박물관 : [www.muri.org](http://www.muri.org)
- 인도네시아 여성연맹 : [www.dwp.or.id](http://www.dwp.or.id)
- 인도네시아 변호사 협회 : [www.ikadin.or.id](http://www.ikadin.or.id)
- 인도네시아 영화예술인 협회 : [www.indonesiafilm.or.id](http://www.indonesiafilm.or.id)

## 마. 언론

- 국영 방송국 : [www.tvri.co.id](http://www.tvri.co.id)
- RCTI 방송국 : [www.rcti.tv](http://www.rcti.tv)
- 안따라 통신 : [www.antara.co.id](http://www.antara.co.id)
- 국영 라디오 방송국 : [www.rri.co.id](http://www.rri.co.id)
- 콤포스 신문 : [www.kompas.com](http://www.kompas.com)
- 미디어 인도네시아 신문 : [www.mediaindonesia.com](http://www.mediaindonesia.com)
- 텬뽀 신문 : [www.korantempo.co](http://www.korantempo.co)
- 자카르타 포스트 신문(영자) : [www.thejakartapost.com](http://www.thejakartapost.com)
- 자카르타 글로브 신문(영자) : [www.thejakartaglobe.com](http://www.thejakartaglobe.com)
- 드딕닷컴 인터넷 신문 : [www.detik.com](http://www.detik.com)
- 비바뉴스 인터넷 신문 : [www.news.viva.co.id](http://www.news.viva.co.id)

## 바. 한인 소식

- 재인도네시아한인회 : [www.innekorean.or.id](http://www.innekorean.or.id)
- 재인도네시아대한체육회 : [www.ksai.or.kr](http://www.ksai.or.kr)
- 인도웹 동포 커뮤니티 : [www.indoweb.org](http://www.indoweb.org)



## 5. 양자협정 체결현황

- 1971. 8           경제 및 기술협력과 통상증진에 관한 협정
- 1981. 7           건설협력 양해각서
- 1987. 6           임업협정
- 1989. 9           항공협정
- 1989.11          이중과세방지협정
- 1991. 2           투자보장협정
- 1996.12          법무자료교환협정
- 1997.11          대외경제협력기금(EDCF)협정
- 1999. 4           건설협력약정
- 2000.11          범죄인 인도협정 및 문화협정
- 2002. 3           사범공조협정(미 발효)
- 2002. 4           자원협력협정
- 2003. 1           도로협력약정
- 2006.12          원자력 협력협정(미 발효)
- 2007.11          EDCF 기본약정(2007-2009)
- 2010.12          EDCF 기본약정(2010-2013)

## 6. 한-인도네시아간 공동성명 및 공동언론발표문

Joint Communique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concerning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

Jakarta, September 18, 1973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have agreed to establish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with a view to strengthen and develop further the friendly relations existing between the two countries. Accordingly, they have decided to raise the present Consulate-General Representation to Ambassadorial level.

Part I

Part II

Part III

Part IV

Part V

Part VI

Part VII

Part VIII

Part IX



## 전두환 대한민국 대통령 각하와 수하르토 인도네시아 공화국 대통령 각하간의 공동성명서

1981.6.27. 자카르타

1. 전두환 대통령 각하 및 동 영부인은 수하르토 인도네시아 대통령각하 및 동 영부인은 수하르토 인도네시아 대통령 각하 및 동 영부인의 초청으로 1981년 6월 25일부터 6월 29일까지 인도네시아를 공식방문하였다. 전두환 대통령 각하 및 동 영부인은 신병현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 노신영 외무부장관, 주영북 국방부장관, 박봉환 동력자원부장관, 김경원 대통령 비서실장 및 기타 정부고위관리들을 대동하였다.
2. 전대통령각하 내외분은 6월 25일 “메르데카” 궁으로 수하르토 대통령각하 내외분을 예방하였다. 수하르토 대통령각하는 전대통령각하에게 인도네시아 공화국 대성장을, 동 영부인에게는 마하푸테라 대성장을 각각 수여하였으며, 전두환 대통령 각하는 수하르토 대통령 각하 내외분에게 각각 대한민국 무궁화 훈장을 수여하였다. 전두환 대통령각하 내외분은 아담 말리크 부통령 내외분의 예방을 받았다. 전대통령은 6월 25일 자카르타시 칼리바타의 영웅묘소에 헌화하였다. 또한 전대통령각하 내외분은 자카르타 시장이 시청에서 베푼 시민환영대회에 참석하였다.
3. 양국 대통령은 정중하고도 우호적인 분위기속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국제 및 지역정세와 양국간의 문제에 관하여 광범위하게 의견을 교환하였다. 동 회담은 양국간의 상호이해 증진은 물론 양국 대통령간의 밀접한 친분관계를 맺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4. 전 대통령과 수하르토 대통령은 정당하고 항구적인 중동평화의 실현을 위한 유일한 방안은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포함하여 1967년 전쟁이래 점령한 모든

아랍영토로부터 철수하는 것이며 또한 유엔 관계결의에 의하여 확인되어온 팔레스타인 인민의 자결권을 포함한 합법적인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5. 양국 대통령은 특히 동북아시아와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아시아 및 태평양지역 정세를 검토하고, 양국이 위치한 각지역의 평화와 안전은 상호 긴밀한 관련이 있으며, 나아가 아시아 및 전세계의 평화, 안정유지에 필요불가결하다는 점에 견해를 같이하였다. 전 대통령은 동북아시아 정세를 설명하고 대한민국이 동지역의 평화, 안전유지와 한반도에서의 전쟁재발 방지를 위해 계속 노력하여 왔음을 밝혔다. 수하르토 대통령은 전대통령의 설명에 사의를 표하고 이러한 대한민국의 노력을 찬양하였다.

수하르토 대통령은 전대통령에게 동남아시아 정세와 함께 아세안이 주창한 “동남아시아 평화, 자유, 중립지대” 제안의 취지에 따라 인도네시아가 동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들을 설명하였으며, 전대통령은 동 아세안 제의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양국 영도자는 동북 및 동남아시아의 발전에 기여할 평화와 안정의 유지를 위하여 상호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6. 양국 대통령은 캄푸차의 현사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캄푸차 문제가 유엔총회의 관계 결의에 의거하여 정치적으로 일괄 해결되어야 한다는데 합의하였다.

전대통령은 캄푸차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아세안 국가들의 노력을 치하하고 동 문제의 항구적인 정치적 해결을 추구하는 아세안 제국에 대한 한국정부의 지지를 표명하였다.

7. 전대통령은 아세안이 지역내 협력을 증진, 강화함으로써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분야에서 다대한 업적을 이룩하고, 성공적이며 실효적인 지역연합체로 발전하였음을 찬양하였다. 전대통령은 아세안의 이러한 적극적이고도 중요한 역할 및 대한민국과 아세안 회원국들간의 긴밀한 기존 쌍무관계에 비추어 또한



한국과 아세안 간에는 민간 경제계 지도자 회의가 있음에 유의하면서 한국정부는 아세안과 경제 및 기술분야에서 협력하겠다는 희망을 표명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양영도자는 한국과 아세안 회원국간의 호혜적인 협력관계 증진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8. 전대통령은 한반도 정세를 살피면서,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달성을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경주하여 온 긴장완화 및 평화정착 노력을 상세히 설명하였다. 전대통령은 특히 한반도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유일한 현실적 방안은 1.12제과의 6.5제의대로 남북한 최고책임자간의 직접회담을 갖는데 있음을 강조하였다.

수하르트 대통령은 전대통령의 설명에 사의를 표하고 한반도 문제가 남북한간의 대화를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인도네시아의 정책을 재확인하면서 이러한 직접회담을 지지하였다.

9. 전대통령은 유엔, 비동맹 회의 및 여타 국제회의에서 인도네시아가 대한민국의 입장을 이해하고 지지하여 준데 대하여 사의를 표명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양국대통령은 앞으로도 밀접한 협의와 협력을 계속하기로 합의하였다.

전대통령은 남북한의 유엔가입이 한국의 평화통일 달성시 까지의 잠정조치로서, 긴장완화에 기여함은 물론, 민족화해와 평화통일에 유리한 국제적 여건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견해를 표명하였다. 수하르트 대통령은 유엔현장의 보편성 원칙에 입각한 남북한 유엔가입의 실현을 위한 한국정부의 노력에 대해 지지를 표명하였다.

10. 양 영도자는 세계경제현황을 검토하고, 현재경제상황이 개발도상국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 유념하였다. 양 영도자는 보호무역주의 추세가 고조되고 있음에 우려를 표명하고, 세계경제여건의 개선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며, 신국제경제 질서의 수립을 위하여 각종 국제회의에서 협상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영도자는 또한 개발을 위한 국제경제협력에 관한 새로운 국제협상이 개시되기를 희망하였다.

11. 양국 대통령은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간의 경제관계가 상호보완적이며 이러한 관계의 발전이 양국에 상호 이익이 된다는 점을 인정하고 개발도상국인 양국간의 무역과 경제협력을 일층 확대하고 다변화할 것에 합의하였다.

또한 양국 대통령은 양국간의 통상장관회담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양국이 산업정책에 관하여 공동연구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수하르토 대통령은 현재진행중인 인도네시아의 제3차 5개년 개발계획의 개요를 설명하고 동개발계획의 각종사업에 한국의 참여를 환영한다고 설명하였다. 전대통령은 인도네시아 정부의 경제, 사회개발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인도네시아의 인적자원 개발과 사회간접시설 확충을 위해 한국정부가 협력하고 지원할 것임을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전대통령은 기능인력 특히 건설분야의 인력양성을 위한 기술원조 제공의사를 표명하였다. 또한 전대통령은 인도네시아 개발사업에 대한 한국 민간부문의 참여를 장려할 것임을 밝혔다. 양 영도자는 이러한 민간부문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협의체로서 한/인니 민간경제 협력 위원회의 중요성에 주목하였다. 양 영도자는 자원개발, 건설사업, 어업, 농업개발, 기술이전, 제조 및 가공업의 합작투자등 분야에 있어서 양국간 협력의 폭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하고, 이를 위해 상호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12. 전대통령은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 공급과 개발에 대한 인도네시아 협력에 사의를 표명하였다. 양국 대통령은 자운협력공동위원회의 효과적인 운용을 재확인하고, 상호긴밀한 협의하에 원유의 공동개발 사업을 촉진시킬 것과 석탄개발에 있어 상호협력할 것에 합의하였다. 양 영도자는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을 가일층 촉진하기로 합의하였다. 양국 대통령은 과학기술정보교환 및 공동 연구활동을 포함한 과학기술분야의 협력증진에 합의하였다.

양 영도자는 어업분야에 있어서도 기술훈련, 정보교환 등 긴밀한 협력과 동 분야에서의 민간합작투자를 장려하기로 합의하였다.



13. 양국 대통령은 농업개발분야에서 양국간의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점에 견해를 같이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전대통령은 새마을 운동의 이념과 정신을 설명하였으며, 수하르토 대통령은 새마을 운동의 성공적인 수행을 높이 평가하였다. 전대통령은 인도네시아의 농업개발을 위하여 협력과 지원을 제공할 용의를 표명하였으며, 수하르토 대통령은 이를 환영하였다.
14. 양국 대통령은 인도네시아의 경제, 사회 개발을 위한 한국의 투자가 증대하고 있음에 만족을 표명하고 양국간의 이중과세방지협정 및 투자보장협정의 조기체결을 위한 교섭을 개시할 것에 합의하였다.
15. 양국 대통령은 양국의 풍부한 문화적 유산에 비추어 스포츠, 예술, 교육, 매스미디어등 분야에서 양국 국민간의 문화교류와 이해를 더욱 증진해 나갈 필요성을 인정하였다.
16. 전대통령과 수하르토 대통령은 전대통령의 인도네시아 방문이 양영도자간의 두터운 우의와 양국 국민간의 상호신뢰를 재확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데 만족을 표명하였다.
17. 전대통령 각하 내외분은 수하르토 대통령 각하 내외분이 가까운 시일내에 한국을 방문하도록 정중히 초청하였으며, 수하르토 대통령은 동초청을 기꺼이 수락하고 상호편리한 시기에 방한하기를 희망하였다.

전 대통령각하 내외분은 공식방문 기간중 수하르토 대통령 내외분과 인도네시아의 정부 및 국민이 그들과 그들 일행에 베풀어준 따뜻한 환대와 후의에 깊은 사의를 표명하였다.

##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공화국간 21세기 우호협력 증진을 위한 전략적 동반자관계에 관한 공동선언

2006.12.4 자카르타

양국과 각국 국민들에게 유익하게 발전해 온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공화국의 양자관계 수립 40주년을 기념하며,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공화국이 장기간 긴밀하고 우호적인 양자관계를 유지하였으며 동 관계는 양국과 각국 국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만족스럽게 진전되고 생산적으로 발전하였다는 것을 인식하며,

양국이 민주주의, 인권, 시장경제라는 공통적 가치에 충실할 것과 이를 위해 장기적인 양자 관계를 행동중심적이며 미래지향적인 관점에 기반한 새로운 단계로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함을 재확인하며,

호혜적 협력의 심화·확대를 통해 21세기의 우호 및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공화국간 전략적 동반자관계 구축에 합의하며,

나아가 전략적 동반자관계가 무역, 투자, 방산 및 조달, 노동 및 인력, 관광, 교육, 과학·기술, 사회·문화 등의 분야에서 구체적인 협력의 영역을 확대하고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 중요한 수단이 될 것임을 합의하며,

전략적 동반자관계가 국제연합 헌장과 동남아시아우호협력조약에 규정된 원칙들과 기타 보편적으로 승인된 국제법 규범과 일치하며, 동 동반자 관계가 양국과 각국 국민들의 번영뿐 아니라 국제 평화와 안정에 기여함을 인식하며,

나아가 전략적 동반자관계가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간의 포괄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강화하는데 중요한 기둥이며, 보완적인 지역통합의

Part I

Part II

Part III

Part IV

Part V

Part VI

Part VII

Part VIII

Part IX



과정인 동아시아 협력 심화를 포함한 아세안의 전체적인 통합 계획을 지원할 것임을 인식하고,

2006년 8월 24일에 쿠알라룸푸르에서 서명된 한-아세안 상품무역협정이 양국간 유대 강화에 조력할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한반도와 관련된 문제들에 대처하는데 있어 인도네시아공화국의 건설적인 역할에 주목하고,

동아시아 공동체의 건설을 함께 추구해 나아가겠다는 두 국가의 의지를 재확인하고,

전략적 동반자관계가 정치·안보협력을 강화하고, 경제·개발협력을 심화하며, 의회간 그리고 비정부간 관계 뿐 아니라 사회·문화 협력을 증진하는 데 주력할 것임을 확인하며,

우리 양국 정상은 다음과 같이 엄숙히 합의하였다.

## 가. 정치·안보협력

### 1. 정 치

- (1) 상호간의 이해를 증진하고 영구적인 평화, 개발, 사회·경제 발전, 주권 평등, 상호존중, 호혜, 그리고 영토 보전의 완전한 상호존중이라는 공통적 원칙을 지지함.
- (2) 공통적 관심과 이해관계인 양자, 지역, 국제적 문제에 관한 대화를 심화하기 위해 정기적인 고위급 양자 접촉을 증대함.
- (3) 상호이익이 되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양자협력 강화에 필요한 새로운 개념, 접근방법 및 형식을 모색하기 위해 2006년 4월 3일 발족된 ‘한-인니 공동위원회’를 강화하고, 동 공동위원회의 결과를 양국 정상에게 보고함.

## 2. 반부패협력

- (1) 평등과 호혜에 기반하고 각국의 현행법과 규정에 따라 부패 근절 및 방지를 위한 기술적 협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상호 협력하고 반부패 활동의 효과적인 수단들을 강화함.
- (2) 양국 정상은 2006년 12월 4일 ‘반부패 상호협력에 관한 대한민국 국가청렴위원회와 인도네시아공화국 부패근절위원회간의 양해각서’의 서명을 환영함.

## 3.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국제 평화와 안전의 유지 및 증진, 인권의 보호 및 증진, 나아가 지속가능한 개발과 새천년 개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국제연합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연합체제의 효과적인 개혁 노력을 지속함.

## 4. 지역 협력

- (1) 아세안 공동체가 정치·안보 협력, 경제 협력 그리고 사회·문화 협력의 세 개의 기둥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를 위해 지역 평화와 안정, 안보, 발전과 번영을 증진하는 아세안의 역할을 재확인함.
- (2)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평화, 안정, 진보를 유지 및 증진하기 위해 대한민국은 아세안+3, 동아시아지역포럼, 동아시아정상회의의 틀내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성을 인식함.

## 5. 국 방

- (1)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공화국간 정례 고위급 국방정책회의를 개최하여 양국간 다양한 분야에서의 방위 협력을 논의함.



- (2) 양국 국방관련 공무원들간의 접촉 및 교환방문을 더욱 증대함.
- (3) 양국간 교육, 훈련 및 실무참여를 위한 교류를 강화함.
- (4) 양국의 방위산업체간 공동생산, 첨단기술 이전 및 상호구매, 공동 마케팅 등을 포함한 여타 형태의 협력을 증진하고, '한-인도네시아 방산·군수 공동위원회'를 통해 구체적인 방산협력을 더욱 증진토록 함.

## 6. 안 보

기존의 국제협약, 양자 및 지역협정을 일관성있게 이행하고, 협의 메카니즘 설치 방안을 적극 모색하며 각국 국내법에 따라 적절한 경우 여타 분야에서의 협력을 증진시킴으로써 밀수, 부패, 마약, 인신매매, 자금세탁, 불법조업, 불법벌목 및 사이버범죄 등과 같은 테러리즘 및 국제조직범죄 근절을 위한 협력을 증대함. 양국 정상은 또한 테러리즘과 국제조직범죄의 연계 증대에 대해 우려를 표명함.

## 7. 의회간 협력

양국의 최고입법기관간의 직접 교류 및 아세안의회기구, 국제의회연맹과 같은 의회관련 국제기구에서의 조정 및 협력을 장려함. 양국 정상은 최근 성공적인 양국의 국회의장의 상호방문과, 동 방문기간 중 '대한민국 국회와 인도네시아공화국 국회 간의 협력 의정서'가 서명된 데에 만족감을 표명함.

### 나. 경제, 무역 및 투자 협력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공화국은 경제성장과 개발에 대한 근본적인 의지를 공유함. 양국은 호혜 및 상호보완 원칙에 기초한 협력증대가 경제적 동반자관계로 이어질 것임을 강조함.

## 8. 무역자유화

다자무역체제 및 무역자유화과정이 모든 국가들에게 공정하고 균형잡힌 방법으로 충분한 이익을 가져올 수 있도록 국제기구에서의 협력을 강화함.

## 9. 지역협력

- (1) 2005년 12월 말레이시아 팔라룸푸르에서 개최된 정상회의에서, 아세안 국가들과 대한민국 정상간 서명된 기본 협정의 최종 협상 단계로서, 2006년 8월 24일 팔라룸푸르에서 한-아세안 상품무역협정이 서명되었음을 환영함.
- (2) 2005년 초 시작된 한-아세안 자유무역지대 협상이 무역 및 투자 자유화를 앞당겨 경제성장과 개발을 촉진할 수 있도록 향후 2년내에 타결될 것을 장려함.
- (3) 상품 및 서비스 교역을 자유화 및 증대하고 투자 관련 규제의 투명성과 긍정적 효과를 높이는 조치로서 2004년 11월 30일 비엔티엔에서 서명된 '한-아세안 포괄적 협력동반자 관계에 관한 공동선언'의 이행을 증진함.

## 10. 양자무역

기존의 통상장관회의 및 양국 재계간 대화를 통해 양자 무역을 증대하고 중소기업을 포함한 민간부문의 협력을 강화함.

## 11. 투 자

- (1) 제반 분야, 특히 제조업, 에너지부문 및 사회기반시설의 투자 협력을 증진시키고 직접투자 기회 및 관련 규정에 대한 정보교환을 증대함.



- (2) 민간부문의 투자는 투자당국간의 네트워크 강화와 투자환경의 개선을 통해 진흥되어야 함을 인식함.
- (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인도네시아 투자진흥청간의 협력을 확대·강화함.
- (4) 양국 정상은 인도네시아내의 특별경제구역은 경제협력, 특히 투자부문에서의 경제협력의 모델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함. 이와 관련, 양국 정상은 이러한 특별경제구역이 인도네시아공화국에 대한 대한민국의 투자를 촉진시킬 수 있기를 희망함.

## 12. 사회기반시설

- (1) 도로, 교량, 철도, 항만, 댐, 발전소, 정유시설 및 정보통신 등 사회기반시설 개발에 대한 투자와 협력을 강화시킴. 이러한 맥락에서 양국 정상은 보조노가라 발전소 투자 사업에 대한 한국전력공사의 관심에 주목함.
- (2) 호혜적인 사회기반시설 사업을 확인하고 증진함.
- (3) 육상 및 해상 교통에서의 추가 협력 가능성을 모색함.

## 13. 에너지 협력

- (1) 에너지관련 유용한 협의체인 '한-인도네시아 자원협력위원회'를 강화하여 정책 교환과 석유, 가스 및 광업부문에서의 교류·협력 강화에 기여토록 함.
- (2) 지속가능하고 재생가능한 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 및 광물자원의 공동개발을 위한 협력 활동을 증진함.
- (3) 평화적인 목적을 위한 원자력 이용의 협력을 확대·강화함. 이러한 맥락에서 양국 정상은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 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협정'의 2006년 12월 4일 서명을 환영함.

- (4) 대한민국 산업자원부장관과 인도네시아공화국 에너지광물자원부장관이, 현재의 양 기관간 공동위에 더하여 기업간 대화체를 구성함으로써 에너지와 광물자원 분야의 협력을 강화·증진할 목적으로 2007년 서울에서 제1회 한국-인도네시아 에너지 포럼을 개최기로 합의함을 환영함.

#### 14. 노동 협력

- (1) 고용허가제하에 인도네시아 근로자들을 대한민국에 파견하는 데 있어 상호협력을 증진함.
- (2) 인도네시아 근로자들이 대한민국에 취업하기 전 이들의 더 나은 준비를 목적으로 문화 및 기술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들을 설치함. 이러한 맥락에서 인도네시아공화국은 한국국제협력단이 한-인니 기술·문화 협력센터를 건립토록 하는 대한민국의 지원에 대해 사의를 표함.

#### 15. 개발 협력

- (1) 대한민국이 2006년부터 2009년까지 3천만 미불의 대외경제협력 개발협력기금을 포함, 4억3천만 미불을 상회하는 개발 원조를 제공한다는 약속과 특히 인도네시아를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 최우선지원국으로 지정한데 대해 사의를 표함.
- (2) 인도네시아의 '마나도 우회로 (마음비-부하 부분) 건설 사업'과 '종합병원건설사업'에 대한 대한민국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지원에 사의를 표함.



- (3) 무상원조의 일환으로 기술협력, 사업지원, 개발사업의 타당성 조사, 학생교환, 훈련생대상 능력배양 프로그램 및 전문가 파견 등을 확대함. 이와 관련, 양국 정상은 인도네시아 내 정보통신기술센터를 건립한다는 양국 정부의 합의를 환영함.
- (4) 개발 협력의 효과성을 증대하기 위해 양국간 모니터링 메커니즘을 설치하는 방안을 모색함.
- (5) 개발협력관련 절차 간소화 방안을 연구함.
- (6) 지식공유사업 및 인도네시아의 채권시장 개발 방안을 통해 과거 경제개발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노력에 사의를 표함.
- (7) 국가내 훈련 프로그램과 같은 다른 형태의 기술협력 모색을 검토함.
- (8) 2007-2009년간 인도네시아 공무원들을 위한 특별훈련 제공을 통한 대한민국의 기술 지원을 평가하며,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양국간 훈련 협력 강화를 검토함.

## 16. 금융협력

- (1) 자본시장과 조기경보체제의 개발을 위한 상호 기술지원 강화를 통해 금융체제의 안정성을 증진함.
- (2)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공화국간 상한선 10억 미불인 스왑 계약이 2006년 말 종료할 예정임을 감안, 계약 연장 또는 약정액 증가를 협의함.

## 17. 해운 및 어업협력

능력배양 및 투자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해운 및 어업 협력을 강화함.

## 18. 산림협력

- (1) 성장잠재력, 투자환경 및 능력배양에 대한 공동연구를 증진함으로써 산림협력을 강화하고 산림 플랜테이션 및 신규조림·재조림 청정개발체제에 대한 투자를 증진함.
- (2) 인도네시아 정부 공무원 훈련프로그램을 지속하고 묘목원 및 산림개선 사업과 망그로브 복원사업을 지속 추진함으로써 황폐화된 삼림지의 복원을 위한 기존의 협력을 확대·심화함.
- (3) 한-인도네시아 임업협력위원회 및 양국 외교장관급 공동위원회의 틀 내에서 산림협력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증진시킴.
- (4) 산림 플랜테이션 및 신규조림·재조림 청정개발체제의 공동개발, 산림 보호 및 보존, 산림 연구 및 개발에 대한 더욱 긴밀한 협력을 위해 양국의 공무원, 민간단체, 학자로 구성된 산림 포럼의 설치를 환영하고, 2006년 8월 산림 플랜테이션 투자와 신규조림·재조림 청정개발체제에 관한 양해각서 서명을 평가함.

## 19. 농업 협력

농업 분야에서의 무역, 투자, 기술협력 및 능력배양관련 협력을 강화하고, 가능한 경우, 팜오일 프랜테이션을 포함한 프랜테이션 분야에서의 협력도 강화함.

## 20. 환경 협력

양국 정부, 비정부기구 및 국민간의 강화된 교류와 협력을 통해 자연환경을 최우선적으로 보호·보존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함.



#### 다. 과학·기술 협력

21. 방산기술, 의료기술, 생명공학, 생명정보학, 환경공학, 나노기술, 에너지기술, 재생가능 에너지기술, 교통 및 정보통신기술 분야에서의 과학기술협력과 인적자원개발 및 공동연구를 증진함.
22. 2006년 1월 설립된 한-인도네시아 산업기술협력사무소를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협력을 장려함.
23. 2006년 7월 4일 설립된 정보접근센터를 통해 정보기술협력을 강화하고 인도네시아 내 전자정부체제 운영 위한 사업추진을 검토함. 이러한 맥락에서 양국 정상은 2006년 12월 4일 자카르타에서 열린 한-인니 정보통신기술 포럼 개최를 평가함.
24. 원자력발전소의 타당성조사 및 공동연구를 개시하고 전문가 교환을 확대하며 기술 인력의 훈련을 지원함.
25. 과학분야에서 양국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인니측 참가자들을 대학원과정에 수용함.

#### 라. 사회·문화 협력

26. 영구히 인도네시아와 한국 국민간 우호, 상호이해 및 상호존중의 근간을 다지기 위해 관광, 예술, 언론 및 스포츠 분야의 협력을 증대하고 인적교류를 증진하는 한편 자매시·지자체 협력을 확대함. 이러한 맥락에서 양국 정상은 2006년 12월 4일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간의 관광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의 서명을 환영함.

## 27. 교 육

- (1) 적극적인 훈련 교환 증대 등을 통해 교육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고 미래 한-인니 관계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할 대학생과 청소년간 교류를 활성화함.
- (2) 각국의 문화와 언어의 소개를 장려함. 이러한 맥락에서 양국 정상은 최근 국립 인도네시아 대학교의 한국학과 설치와 인도네시아 대학들의 한국학 확대를 위한 지속적 노력에 만족을 표함.

## 28. 문 화

2000년 11월 28일 합의된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간의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발효될 수 있도록 절차를 가속화하고, 동 협정을 토대로 한-인니 문화협력 공동위원회의 개최를 추진함.

## 29. 청소년 및 스포츠

- (1) 청소년, 청소년 기업가 정신, 스포츠 분야에서의 양국과 각국 국민들을 위한 상호협력을 강화·증대함.
- (2) 한국 기업체에서 인도네시아 청년들의 인턴십 기회를 제공함.

## 30. 보 건

조류독감,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후천성면역결핍증 및 여타 전염병 등 잠재적 초월국경 유행병을 예방하고 억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건문제 및 대처능력 협력을 강화함. 이러한 맥락에서 인도네시아공화국은 인도네시아 내 조류독감 예방을 위한 대한민국으로부터의 50만 미불 상당의 물품 지원에 사의 표함.



### 31. 자연재해

- (1) 기술·운영, 능력배양 및 피해완화·복구를 아우르는 광역 조기경보체제 개발을 통해 자연재해감소를 위한 협력을 강화함.
- (2) 2006년 5월 27일 족자카르타와 중앙 자바에 발생한 지진 피해자들을 위해 대한민국 국민들이 슬픔과 고통을 공유하였음을 인식하고, 응급의료진 파견과 재정착 및 복구를 위한 200만 미불의 인도적 원조 등 대한민국의 지원을 평가함.

### 32. 영사 및 사법 협력

- (1) 비자발급절차 간소화를 통한 인적교류를 증진함.
- (2) 2000년 11월 및 2002년 3월 각각 합의된 ‘범죄인인도조약’ 및 ‘형사사법공조조약’의 신속한 발효를 위해 노력함.

## 마. 미래지향

양국간 호혜적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공동선언을 효과적으로 이행하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함. 이를 위해 기존의 양자협력 메카니즘과 차기 정상회의에 권고사항을 제출할 현인그룹 등 새로운 메카니즘을 강화함.

2006년 12월 4일 자카르타에서 영어 복본으로 작성되었으며, 두 본 모두 정본임.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노무현 대통령

인도네시아공화국을 대표하여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대통령

## 유도요노 대통령 방한계기 한-인도네시아 공동발표문

2007.7.25. 서울

1. 인도네시아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Susilo Bambang Yudhoyono)」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의 초청으로 2007년 7월 23일부터 26일까지 대한민국을 방문하였다.
2. “유도요노”대통령의 방한은 지난 2006년 12월 노무현 대통령의 인도네시아 방문에 대한 답방이며, 당시 양국 정상은 양국간 협력의 새 시대를 여는 「21세기 우호협력 증진을 위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위한 공동선언」에 서명한 바 있다.
3. 양국 정상들은 정상회담에서 양국의 장기적인 우호관계유지 및 평화, 안정, 진보 등의 공통관심사에 대해 논의하였고, 양국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공통적 가치를 실현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4. 노무현 대통령은 이슬람 최대인구 국가인 인도네시아가 민주주의, 이슬람교 그리고 현대성이 공존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좋은 예라고 언급하였고, 양국 정상은 양국의 민주주의에 기반한 우호적 협력관계가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왔고, 공고화되고 있음을 평가하였다.
5. 노무현 대통령과 “유도요노” 대통령은 한-인도네시아 양자문제 및 역내외 공통관심사항들을 논의하였다. 양국 정상은 행동 중심·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양국관계의 발전을 추구하고, 다자간 협력 증진 및 역내외 평화, 안정, 경제 개발을 위해서 보다 강화된 한-인도네시아 동반자 관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양국 정상은 국제화된 세계에서 문화, 종교 그리고 문명 간의 관용 및 화합을 위해서 보다 건설적인 역할을 할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Part I

Part II

Part III

Part IV

Part V

Part VI

Part VII

Part VIII

Part IX



6. 양국 정상은 북핵문제의 해결을 위한 2.13 합의의 이행과 관련하여 긍정적인 발전이 있음을 환영하였다. 또한, 양국 정상은 핵 문제 해결 및 한반도 통일이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달성되어야 함을 강조하였고, 한반도 문제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지속적인 관심과 건설적 역할 수행을 평가하였다.
7. 양국 정상은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이행상황에 만족을 표하였으며, 이를 더욱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양국 정상은 2007.7.24 제출된 “행동계획” 보고서를 준비한 현인그룹의 노력을 평가하였다. 동 현인그룹 보고서는 2006년 12월 양국 정상이 서명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 공동선언”의 후속조치로서 양국간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권고사항을 담고 있는 바, 동 보고서는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상호 이익 증대를 위한 충실한 로드맵을 제공할 것이다.
8. “유도요노”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이 2007년 3월 한-인도네시아 경제 협력 Task Force의 출범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한 것을 높이 평가하였다. 동 합동위원회는 양국간 실질적인 경제, 무역 및 투자 기회를 모색하는 실용적 메커니즘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양국의 장기적 이익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9. 양국 정상들은 2007.4.30-5.2간 자카르타에서 약 400명의 양국 기업가, CEO 및 정부 관료들이 참석하여 개최된 제1차 한-인도네시아 경제협력 합동위원회의 성과를 환영하였다. 양국 정상들은 한-인도네시아 합동위원회가 도출한 구체적 합의사항과 사업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민간 및 정부 부문이 더욱 긴밀하게 협력할 것을 장려하였다.
10. 양국 정상은 지금까지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이행 경과에 만족을 표명하고, 아래와 같은 전략적 목표들을 한-인도네시아 합동위원회에게 부여하였다.

○ 현재의 양국간 무역 및 투자를 2012년까지 두배로 증대

- 현재의 양국간 관광교류를 향후 5년내 두배로 증대
  - 인도네시아 인프라 개발을 위한 양국 민간부문의 참여 활성화
  - 재생가능에너지 개발을 위한 상호 협력증진
  - 에너지 안보 증진을 위해 인도네시아내 에너지 개발, 특히, 신규 유전 및 가스전 개발의 상호협력 증진
  - 조림, 산업 산림, 공동연구, 생물공학, 바이오에너지 투자 및 신규 및 재조림시 청정개발체제 이행을 위한 의지 재확인
  - 공동 생산을 포함 양국 간 방산사업협력 확대를 통한 국방협력 증진
  - 고용 허가제를 통한 대한민국내의 인도네시아 노동력 활동을 위한 호혜적 협력 강화
  - 인도네시아 재난조기경보 프로젝트 지원
  - 원자력의 평화적 사용을 위한 상호협력 증진
  - E-government, E-business 및 ICT 직업훈련을 통한 ICT 협력 증진
11. 양국 정상은 양국간 문화 협력을 증진시키고 청소년 스포츠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12. “유도요노”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추진 중인 2012년 여수 세계 박람회 개최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지지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는 바, 이는 국제무대에서 양국 간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13. “유도요노” 대통령은 2007년 7월 25일 서울에서 개최된 비즈니스 에너지 포럼에 참석하여 인도네시아내 비즈니스 환경 및 투자 기회에 대한 정보제공을 장려하였다. 동 포럼을 통해 양국의 공공 및 민간 부문이 향후 다양한 개발 프로젝트에서의 협력을 증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14. 금번 “유도요노” 대통령의 국민 방한 계기에 양측은 아래 협정에 서명하며, 이를 통해 양국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이행에 실질적인 의미를 부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산림청과 인도네시아 산림부간 신규조림 및 재조림 청정개발체제와 기타관련 체제를 통한 산림분야 기후변화적응 및 완화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 기획 예산처와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간 인프라개발을 위한 민관파트너쉽 양해각서
  - 인천자유무역지대와 인도네시아 바탐산업개발 특구간 협력 양해각서
  - 삼안(주)와 인도네시아 PT. Jababeka 간 찌까랑 내륙물류기지건설 양해각서
  - C&Group 중공업과 인도네시아 국영조선소간 조선협력 양해각서
  - 석유공사, SK Energy Co., 인도네시아 석유공사간 공동유전광구개발 의향서
  - SK와 인도네시아 석유공사간 정제능력 개조를 위한 동의서
  - 한국가스공사와 인도네시아 석유공사간 한국-인도네시아 가스공사 공동협력에 대한 의향서
  - EI, 인도네시아 가스공사간 남부 수마트라 NGL 생산합작에 대한 양해각서
  - SK Energy Co., 인도네시아 석유공사간 유탄유 공동브랜드 관련 기본 합의서
  - Innet Co.로 대표되는 한국 Consortium과 인도네시아 PT. Petras 간 남부수마트라 Tanjung Api-api 지역 에너지 산업개발 양해각서
  - 포스코 건설, 삼성 Securities Co., 인도네시아 Nuansa Cipta 석탄투자회사간 직접 석탄 액화에 관한 양해각서
  - 한국수자원 공사와 인도네시아 Medco사 간 인도네시아내 원자력 발전소 개발 연구를 위한 양해각서
  - 포스코 건설, 케넥텍, 동부 칼리만탄주 정부, Kereta Api, Nuansa Cipta 석탄투자회사간 석탄 인프라에 대한 양해각서
15. “유도요노”대통령은 국민방문기간 동안 인도네시아 대표단에게 따뜻한 환대를 베푼 노무현 대통령에게 심심한 감사를 표하였으며, 금번 방문으로 양국 간의 우호관계 및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관계가 한층 강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 한국-인도네시아 정상 공동언론발표문

2012. 3. 28. 서울

1.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Susilo Bambang YUDHOYONO) 인도네시아 대통령 내외는 2012년 3월 26일부터 27일까지 대한민국 서울에서 개최된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한 후 대한민국 이명박 대통령 내외의 초청으로 3월 28일부터 29일까지 대한민국을 국민방문하였다. 양 정상은 3월 28일 개최된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과 이 대통령 내외가 주최하는 국민만찬을 통해 정상간 진정한 우의 관계와 동료애를 재확인하였다.
2. 양국 정상은 지난 2007년에 이은 유도요노 대통령의 두 번째 국민방향을 통해 양국간 경제·통상, 정치·안보, 방산, 문화·관광, 인적교류 분야에서 뿐 아니라 지역 및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등 다방면에 걸쳐 양국 관계를 꾸준히 발전시켜 나가고 있음을 평가하고, 양국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력방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교환을 하였다. 양 정상은 상호간 신뢰와 이해 제고를 위해 정상 방문을 비롯한 고위인사의 상호 교류를 보다 활성화해 나가는 한편, 양국간 협의·협력 메카니즘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3. 양측은 지난해 양국간 교역액이 300억불을 넘어 사상 최대의 교역 실적을 기록하는 등 경제·통상 협력이 1973년 수교 이래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평가하는 한편, 2014년에 양국 교역량 400억불, 2020년에 1,000억불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공동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4. 양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간 경제·통상 분야의 교류·협력을 가일층 심화·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이를 위해 한·인니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체결을 위한 양국 정부간 협상을 개시하기로 선언하는

Part I

Part II

Part III

Part IV

Part V

Part VI

Part VII

Part VIII

Part IX



한편, 제1차 협상을 금년 상반기 중에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5. 양 정상은 인도네시아 중장기 경제개발계획인 「마스터 플랜」 이행을 위한 양국간 협력이 순조로이 진행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이러한 협력의 중심점이 될 「한·인도네시아 경제협력사무국」이 지난 2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출범한 것을 평가하였다. 양측은 항구, 댐, 발전소, 철도 등 인도네시아 인프라 확충을 위한 인프라 건설 분야의 양국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순다해협 대교 건설 등 대규모 프로젝트들이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양측은 양국간 경제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인도네시아에 투자하고 있는 POSCO 일관제철소, 호남석유화학플랜트, 한국타이어 공장 등 대형 협력 사업들이 원활히 진척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6. 양국 정상은 방위산업 분야, 에너지·자원, 농업·환경, 인프라 분야에서의 양국간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최근 T-50 고등훈련기 및 잠수함 수출계약 체결 등 방산분야에서 실질적 협력이 증진되고 있는데 만족을 표하고, 이미 초기 단계에 진입한 최신예 전투기의 공동개발 사업 등을 통해 방산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이번에 체결된 「에너지 분야 협력 MOU」를 통해 인도네시아 천연가스 개발·운송 관련 프로젝트, 발전소 건설·운영 등 에너지·자원 협력 사업을 가일층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인도네시아의 농업 잠재력과 한국의 기술·자본을 결합하는 농·산업 복합단지 조성 사업 등 농업 협력을 강화하고, 한국의 풍부한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자카르타강(江) 복원사업 등 관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7. 양측은 문화·관광 분야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하고, 점증하고 있는 양국 관광 수요에 부응하여 양국간 항공편 증편 등 항공서비스 제고를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수교 40주년을 맞는 2013년을 「한·인도네시아 우정의 해」로 선포하고, 다양한 기념행사를 통해 상호 교류를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8. 유도요노 대통령은 한국의 고용허가제를 통한 양국간 노동분야 협력이 증진되기를 기대한다고 하고, 한국 내 체류중인 인도네시아 근로자에 대한 한국측의 관심과 배려를 요청하였다. 이 대통령은 한국에 체류중인 인도네시아 근로자를 비롯한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권익보호를 위해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9. 양국 정상은 UN, APEC, ASEAN+3, EAS, G20 등 지역 및 국제 무대에서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유도요노 대통령은 한국이 금번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서울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것을 평가하였으며, 이 대통령은 인도네시아의 건설적인 참여와 기여에 사의를 표하였다. 인도네시아측은 한반도의 평화·안정과 북한의 핵포기 등을 위한 한국측의 일관된 노력을 평가하였으며, 양측은 2012.3.16자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계획 발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이 동 발사계획을 철회하고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였다.
10. 양국 정상은 금번 유도요노 대통령 방한 계기에 체결된 「한·인도네시아 에너지 분야 협력 양해각서», 「한·인도네시아 교통협력 양해각서」 등이 양국간 실질협력의 진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 한-인니 정상 공동성명

2013.10.12, 자카르타

1. 박근혜 대한민국 대통령은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인니 대통령의 초청으로 2013년 10월 10일부터 12일까지 인니를 국빈방문하였다. 이번 방문은 한-인니 수교 40주년과 양국 우정의 해를 계기로 이루어졌다.
2. 이번 방문은 우호적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졌으며, 방문기간 중 박근혜 대통령과 유도요노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갖고 양자, 지역 및 국제 문제 관련 공동의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양측은 긴밀한 협력 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가기 위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3. 양측은 한·인니간 협력 관계가 제반 분야에서 비약적으로 발전해 온 데 대해 만족을 표하고, 이러한 양국관계 발전이 양국의 번영과 국민의 행복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양측은 대량파괴무기 비확산, 평화 유지, 에너지, 식량, 개발 및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등 21세기의 도전들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해 향후 보다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 1.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강화

#### (정치·안보 협력)

4. 양측은 상호 방문 및 다자회의의 계기를 통해 정상간 교류를 유지·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또한, 양측은 외교장관이 참석하는 공동위원회에서 금번 정상회담 합의사항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5개년 행동계획을 수립·추진해 나가며, 양국의 정부, 의회, 정당 등 고위급 인사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5. 양측은 금번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 공화국 정부간의 국방분야 협력에 관한 협정 체결을 환영하고 이를 통해 국방 분야의 양국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양국간 방산협력의 진전을 평가하고 T-50 고등훈련기 및 잠수함 수출사업 등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방산 협력사업들을 순조롭게 진행하기로 하였다. 또한 양측은 호혜적 원칙에 입각한 무기체계 조달, 공동개발 그리고 기술이전 등을 위해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 (경제 협력)

6. 양측은 그간 양국간 교역의 확대 추세와 양국 경제성장의 잠재력을 감안하여 양측이 설정한 2015년 500억불, 2020년 1,000억불 교역 목표액 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최근 한·인니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Indonesia-Kore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IK-CEPA) 협상의 의미 있는 진전을 평가하고, 금년 말까지 협상을 타결하기로 합의하였다. 한편, CEPA 협상 과정에서 한국측은 한국 기업들이 제반 분야에서 투자를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하였다.
7. 양측은 포스코 일관제철소 건설 등 양국간 투자협력이 양국의 경제 발전에 호혜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한국측은 대인니 투자 확대를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으며, 인니측은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지원해 나가기로 하였다.
8. 양측은 인니의 중장기 경제개발 마스터플랜(MP3EI) 이행을 위한 양국간 협력을 평가하고, 향후에도 마스터플랜에 대한 한국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하였다. 특히, 한·인니 경제협력공동위원회 및 실무분과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협력사업의 구체적 이행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 양측은 특별경제구역에 대한 양국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양해각서 체결을 환영하였다.



9. 양측은 인니의 대규모 인프라 구축사업에 한국 기업의 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에 대해 만족을 표하고, 현재 경험공동위에서 논의가 진행중인 순다대교, 수카르노 하타 국제공항 철도 등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에 한국기업이 참여하는 방안을 협의하기로 하였다. 또한, 양측은 이에 기초하여 도로, 교량, 철도, 항구, 방조제, 댐, 발전소 건설 및 교통시스템, 공공시설물 안전관리 등 관련 분야에서 프로젝트 수행 경험과 정책의 공유 등 양 정부간 구체적인 협력을 확대하기로 의견을 같이 하였다. 이와 관련, 양측은 합의된 인프라 건설 사업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관련 장관들에게 지시하였다.
10. 양측은 석유, 가스, 광물 등 에너지·자원 분야의 협력이 안정적으로 진행되어 온 데 대해 평가하고, 기존 에너지·자원 분야뿐만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 및 대체 에너지 개발을 위한 협력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11. 양측은 현재 추진 중인 까리안 다목적댐 건설과 중부 자바지역 벼농사 기계화 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적 수행으로 인니 농업 현대화의 기틀을 마련하고, 향후 이들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기술 개발 및 인력양성을 위해 농업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12. 양 정상은 인니 One Village One Product 정책의 지원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을 환영하면서 이를 통해 인니의 산업화를 위한 양국간 협력이 강화되기를 기대하였다.
13. 양측은 그간 목재생산 조림사업을 통한 산림협력 및 열대림 황폐화 방지를 통한 탄소감축(REDD+)을 위한 역량강화 분야에서의 긴밀한 협력을 높이 평가하고, 바이오매스 조림 및 산업 투자, 산림휴양 및 생태관광 협력 등 새로운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 양측은 양국간 인니 산림 보전 지역의 산림 휴양 및 생태 관광 개발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14. 양측은 환경 분야에서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 논의를 위하여 양국 환경장관

회담의 정례화에 합의하였으며, 칠리웅강 복원 시범사업을 계기로 양국 물 환경정책 분야 교류를 확대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천복원, 상하수도 인프라 구축, 폐기물 관리, 토양 오염 복원 분야에서 양국 공동 프로젝트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15. 양측은 고용·노동 분야에서의 양국간 협력이 양국의 경제발전에 도움이 된다는데 대해 의견을 같이하고, 한국내 인니 근로자 선발 과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입국 전후 취업교육을 강화하는 등 이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이 더욱 증진키로 하였다. 유도요노 대통령은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인니 근로자들에 대한 한국 정부의 보호 및 복지 정책에 사의를 표하였다.
16. 양측은 그간 전자정부(e-Government) 분야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환영하고 인니 전자정부 마스터플랜의 실현을 위해 공동 협력위원회를 구성하여 협력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17. 양측은 영화, 게임 등 문화 산업 및 문화·예술 기반의 디지털 콘텐츠 등과 관련한 창조경제 육성에 있어 상호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 양측은 양국간 창조산업 협력 양해각서 체결을 환영하였다.

#### (사회·문화·인적 교류)

18. 양측은 금년도 한·인니 수교 40주년을 기념하여 연중 개최되고 있는 각종 행사가 양국간 공공외교 분야의 협력을 통한 교류 활성화 및 국민간 이해 제고에 기여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고, 만족을 표하였다.
19. 양측은 교육 분야에서의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데 만족을 표하고 향후 학생, 교원, 학자 및 연구원 교류뿐만 아니라 공동 연구 및 대학교간 협력을 통해 교육 분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다.



20. 양측은 공동 관광 진흥 행사 시행, 주요 관광지 직항 노선 설치, 항공기 증편 및 비자 발급 간소화를 통해 양국간 상호방문 관광객의 수를 증가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 II. 지역 및 국제 무대에서의 협력

21. 인니측은 박근혜 대통령이 주창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을 통해 외교와 평화적인 방법으로 한반도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환영하였다. 또한 인니측은 박대통령의 이러한 이니셔티브가 역내 국가들간 동태적 균형성을 통해 안정을 확보한다는 인니의 대외 관계에 대한 인식과 일치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한국측은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북한 핵무기 개발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의 핵보유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이와 관련, 양측은 모든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들과 6자회담 9.19 공동성명상의 약속이 완전히 준수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양측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노력에 있어 대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기할 수 있는 6자회담의 재개를 위해 대화 재개의 긍정적 여건을 조성해 나갈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양측은 한반도와 역내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시키기 위한 공동의 노력에 있어 ARF 등 지역 협의체와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22. 양측은 한·인니 양국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등 가치를 공유하는 아태 지역 국가로서 아태 지역 내 인권신장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 한국측은 인니가 발리 민주주의 포럼을 통해 역내 민주주의 신장에 기여하고 있는 것에 사의를 표하였다. 양측은 ASEAN+3, EAS, ARF, APEC, ASEM, UN, G20, AfCo, GGGI, GCF와 관련한 지역 및 국제무대에서도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23. 양측은 1989년 수립된 한-ASEAN 대화 관계가 크게 발전하여 2010년 한-ASEAN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데 대해 만족을 표하였다. 한국측은

한-ASEAN 대화 조정국이자 ASEAN 사무국 소재국인 인니측의 한-ASEAN 발전을 위한 건설적인 기여와 역할을 평가하였으며, 인니측은 한-ASEAN 대화관계 수립 25주년을 기념하여 2014년 12월에 한국에서 개최될 한-ASEAN 특별정상회의의 성공을 위해 한국측과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24. 박 대통령은 인니가 금년 APEC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발리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것을 높게 평가하였으며, 유도요노 대통령은 한국의 적극적인 참여와 기여에 사의를 표하였다.
25. 박근혜 대통령은 유도요노 대통령의 방한을 공식 초청하였으며, 이에 대해 유도요노 대통령은 사의를 표하였고, 양측은 방한 시기와 관련하여 향후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Part I

Part II

Part III

Part IV

Part V

Part VI

Part VII

Part VIII

Part IX



## 7. 역대 대사 명단

### 〈 역대 주인도네시아 대사 〉

역대	공관장	부임일자
초대	김좌겸 대사	1973. 9 부임
제2대	이재설 대사	1974. 3 부임
제3대	함영훈 대사	1979. 4 부임
제4대	한유석 대사	1981. 1 부임
제5대	최상섭 대사	1984. 4 부임
제6대	김영석 대사	1987. 3 부임
제7대	김재춘 대사	1989. 10 부임
제8대	장명관 대사	1993. 1 부임
제9대	김경철 대사	1994. 2 부임
제10대	민형기 대사	1995. 3 부임
제11대	홍정표 대사	1998. 5 부임
제12대	김재섭 대사	2000. 8 부임
제13대	윤해중 대사	2003. 7 부임
제14대	이선진 대사	2005. 6 부임
제15대	김호영 대사	2008. 6 부임
제16대	김영선 대사	2011. 3 부임

## 8. 약어 정리

ADB	Asian Development Bank	아시아개발은행
ADMM+	ASEAN Defense Ministers Meeting Plus	확대아세안국방장관회의
AFTA	ASEAN Free Trade Agreement	아세안 자유무역협정
AFTA	ASEAN Free Trade Area	아세안 자유무역지대
APEC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RF	ASEAN Regional Forum	아세안 지역안보 포럼
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동남아시아국가연합
ASEM	Asia-Europe Meeting	아시아유럽정상회의
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CIS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독립국가연합
EAS	East Asian Summit	동아시아 정상회의
EDCF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대외경제협력기금
EP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경제동반자협정
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해외직접투자
FTA	Free Trade Agreement or Free Trade Area	자유무역협정, 자유무역지대
IAI	Initiative for the ASEAN Integration	아세안 통합 이니셔티브
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	국제통화기금
JICA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일본 국제협력기구
KOIC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한국국제협력단
NAM	Non-Alignment Movement	비동맹운동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공적개발원조
OIC	Organization of the Islamic Conference	이슬람회의기구
TAC	Treaty of Amity and Cooperation	동남아시아 우호협력조약
TPP	Trans-Pacific Partnershi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WB	World Bank	세계은행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무역기구

Part I

Part II

Part III

Part IV

Part V

Part VI

Part VII

Part VIII

Part IX

---

## 인도네시아 개황

---

인	쇄	2013년 9월
발	행	2013년 9월
발	행	처 외교부 남아시아태평양국 동남아과
주	소	서울 종로구 사직로 8길 60
전	화	(02)2100-7359
팩	스	(02)2100-7946
디자인 / 인쇄		(주)마스타상사
전	화	(02)730-8241

이 책의 내용은 <http://www.mofa.go.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